



제1장

세계 관광시장 동향

I. 아시아 주요국 입국통계	2
II. 세계 관광시장 동향	4
1. 일본시장	4
2. 중화권시장	11
3. 동남아시아	25
4. 미주시장	55
5. 유럽시장	64
6. 대양주시장	79

제2장

한국 관광시장 동향

I. 외래객 입국, 국민해외여행객 및 관광수입·지출 동향	85
II. 통계월보	102
III. 크루즈 통계	120

◆ 우리 공사에서는 해외지사 및 국내외 각종 매체를 통해 입수한 국내외 '관광시장 정보'를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kto.visitkorea.or.kr) '알림' 코너를 통해 주요 시장별로 분류하여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 광 시 장 동 향

제1장 세계 관광시장 동향

I. 아시아 주요국 입국통계

국가	한국 인바운드(7월 누계)		일본 인바운드(7월 누계)		중국 인바운드(2월 누계)	
	외래관광객	성장률	외래관광객	성장률	외래관광객	성장률
전 체	9,813,342	34.3	14,010,300	26.7	20,952,800	3.8
아 시 아 주	8,346,258	38.5	11,748,600	-	18,390,029	-
한 국	-	-	2,829,900	30.8	698,100	7.7
일 본	1,226,109	19.4	-	-	387,400	2.8
중 국	4,734,275	45.4	3,807,900	38.2	-	-
홍 콩	371,607	32.0	1,052,800	23.8	12,505,600	1.7
대 만	476,924	58.8	2,552,800	18.5	29	13.2
마 카 오	-	-	-	-	3,781,700	3.3
필 리 핀	305,983	36.9	201,600	30.1	-	13.4
태 국	275,668	19.7	547,200	15.1	93,300	0.7
말 레 이 시 아	153,817	37.2	208,500	35.7	160,900	18.2
싱 가 포 르	105,579	31.8	178,800	21.6	116,800	5.4
인 도 네 시 아	161,428	51.7	154,300	26.3	80,400	31.0
인 도	107,798	49.7	73,400	23.6	109,800	6.6
중 동	14,672	12.6	-	-	-	-
아시아주 기타	56,524	32.6	141,400	28.9	456,000	-
미 주	640,952	14.3	879,700	-	401,800	-
미 국	503,893	13.9	728,900	20.4	304,400	5.0
캐 나 다	96,772	15.3	150,800	14.9	97,400	19.3
브 라 질	9,985	10.6	-	-	-	-
멕 시 코	8,738	9.0	-	-	-	-
미 주 기타	21,564	26.6	-	-	-	-
구 주	530,431	17.5	559,200	-	481,100	-
독 일	62,960	15.4	103,200	13.5	97,000	28.7
영 국	77,553	8.8	170,000	14.8	83,500	-2.8
프 랑 스	51,840	9.5	149,600	21.3	74,000	-0.8
러 시 아	132,683	25.2	30,100	-1.6	226,600	48.6
이 탈 리 아	34,828	43.7	61,600	17.6	-	-
네 덜 란 드	18,563	15.4	-	-	-	-
스 웨 덴	10,197	9.5	-	-	-	-
스 위 스	8,254	12.2	-	-	-	-
스 페 인	12,519	16.2	44,700	18.3	-	-
오 스트 리 아	6,384	19.3	-	-	-	-
아 일 랜 드	4,401	8.7	-	-	-	-
덴 마 크	6,569	-2.4	-	-	-	-
벨 기 에	6,268	2.7	-	-	-	-
핀 란 드	7,234	16.2	-	-	-	-
노 르 웨 이	10,678	-6.8	-	-	-	-
구 주 기타	21,583	15.6	-	-	-	-
대 양 주	107,068	13.1	233,300	-	90,100	-
호 주	85,734	13.6	262,500	22.1	90,100	-1.2
뉴 질 란 드	17,462	11.3	-	-	-	-
대양주 기타	3,872	10.9	-	-	-	-
아 프 리 카	31,376	34.1	-	-	-	-
국 적 미 상	426	31.1	-	-	-	-
기 타	156,831	4.1	560,300	17.2	1,589,771	-

(단위 : 명, %)

국가	홍콩 인바운드(7월 누계)		대만 인바운드(7월 누계)		싱가포르 인바운드(6월 누계)	
	외래관광객	성장률	외래관광객	성장률	외래관광객	성장률
전 체	32,209,296	-6.0	6,280,372	7.9	8,169,192	12.5
아 시 아 주	29,590,969	-	5,667,792	7.6	6,369,340	14.8
한 국	796,330	9.0	476,136	29.0	302,613	4.8
일 본	580,095	2.6	1,009,621	17.5	366,436	3.6
중 국	24,346,236	-8.8	2,409,535	0.4	1,472,654	55.2
홍 콩	-	-	838,663	7.5	267,747	-1.9
대 만	1,171,970	2.4	-	-	205,595	13.8
마 카 오	-	-	-	-	-	-
필 리 핀	447,510	16.3	91,753	11.7	357,798	6.7
태 국	354,178	26.6	91,503	35.9	283,050	16.1
말 레 이 시 아	280,030	-3.4	240,539	8.0	552,679	-1.6
싱 가 포 르	364,609	3.7	200,385	2.9	-	-
인 도 네 시 아	277,058	9.2	103,402	-1.1	1,412,756	7.3
인 도	296,044	-7.0	19,091	3.8	573,010	10.1
중 동	27,917	9.7	11,757	6.3	78,614	11.2
아시아주 기타	648,992	-	112,642	-	496,388	-
미 주	892,470	-	362,117	7.9	347,256	2.1
미 국	684,756	1.3	293,309	6.9	261,139	2.1
캐 나 다	207,714	2.0	58,098	14.6	52,241	2.5
브 라 질	-	-	2,264	-11.9	-	-
멕 시 코	-	-	1,860	-10.0	-	-
미 주 기타	-	-	6,586	-	33,876	2.1
구 주	692,834	-	167,486	7.9	866,367	10.7
독 일	125,517	9.4	33,387	10.3	170,126	29.9
영 국	314,597	4.1	34,871	1.0	248,735	5.3
프 랑 스	118,132	1.4	23,897	8.7	80,165	12.2
러 시 아	81,483	-12.2	4,211	-11.2	35,486	0.8
이 탈 리 아	-	-	9,478	6.7	30,236	9.2
네 덜 란 드	53,105	6.4	12,460	19.4	37,657	3.0
스 웨 덴	-	-	4,976	8.1	24,392	9.1
스 위 스	-	-	5,727	8.9	47,571	-0.8
스 페 인	-	-	5,711	15.6	19,623	3.7
오 스트 리 아	-	-	3,966	17.3	13,117	14.5
아 일 랜 드	-	-	-	-	9,482	11.9
덴 마 크	-	-	-	-	16,660	4.8
벨 기 에	-	-	3,565	1.3	13,390	8.4
핀 란 드	-	-	-	-	16,385	6.7
노 르 웨 이	-	-	-	-	15,865	-0.4
구 주 기타	-	-	25,237	-	87,477	-
대 양 주	333,592	-	53,530	5.9	555,058	-0.2
호 주	333,592	2.2	44,950	5.8	492,524	0.2
뉴 질 란 드	-	-	7,333	2.7	53,617	-7.1
대양주 기타	-	-	1,247	32.5	8,917	26.6
아 프 리 카	-	-	5,917	3.3	31,166	3.0
국 적 미 상	-	-	23,530	427.6	5	-54.5
기 타	699,431	3.4	-	-	-	-

* 대만통계의 경우, 홍콩은 마카오를 포함한 수치임

* 싱가포르통계의 경우, 벨기에는 룩셈부르크를 포함한 수치임

II. 세계 관광시장 동향

1

일본시장

1. 주요 경제·사회 동향

- 일본 총무성, '2016년 5월 전국 소비자물가조사' 결과 발표
 - 총무성 통계국은 전 품목을 포함한 종합지수, 신선식품을 제외한 종합지수, 식품(주류제외) 및 에너지를 제외한 종합지수 등 매월 3가지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발표함
 - 일본 정부 및 일본은행은 3가지의 지수 중 신선식품을 제외한 종합지수를 기준으로 활용
 - * 아베노믹스의 '향후 2년내 2% 물가상승률 달성'목표도 신선식품을 제외한 종합지수의 2% 상승을 의미
 - 5월 신선식품을 제외한 전국 종합지수는 3개월 연속 전년 동월대비 하락하였으며, 하락폭(0.4%)은 2013년 4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 주요 변동항목으로 에너지 부문에서 전년 동월대비 큰 폭으로 하락(Δ 12.6%) 하였으며, 신선식품을 제외한 식료(1.3%), 숙박료(6.6%) 등은 상승함 (출처 : 일본 총무성, 2016.7.1)

2. 관광정책 및 업계동향

□ 관광정책 및 유치활동

- 국토교통성, 크루즈 기항수 매월 공표, 2016년 상반기는 외국선이 70% 증가
 - 국토교통성은 2016년 7월 이후, 일본 국내 항만에 크루즈선 기항횟수 등을 종합한 통계 자료 'JAPAN Cruise Report'를 매월 공표한다고 발표함
 - 이제까지 속보치와 확정치를 각각 1년에 1번 발표해왔으나, 최근 크루즈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월차 공표로 빈도를 변경하는 것으로 함
 - 7월 19일 발표된 'JAPAN Cruise Report'에서는 2016년 1월부터의 속보치를 발표, 6월 크루즈선 기항횟수는 전년대비 68.3% 증가한 212회로, 그 중 외국선사의 기항횟수는 77.35 증가한 156회로 나타남 (출처 : 트래블보이스, 2016.7.21)

○ 경제산업성, 관광 안내기호를 국제 규격에 맞춰 표준화 추진

- 일본 경제산업성, 2020년 올림픽 대비 관광안내표기 국제 규격화 추진
- 현재 사용되고 있는 표준(JIS)에는 화장실과 승강기 같은 약 140종류의 안내 기호가 있으나 약 절반이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규격과 상이한 문제점이 있음

* JIS(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 1949년에 제정된 일본 공업용품의 규격, 공업용품 외에도 여러 산업 분야의 표준 제시

** 현행 표기 중 온천의 경우 국제 표준과 달라 외국인관광객이 뜨거운 요리를 제공하는 시설로 오인할 수 있는 등 혼란이 발생한다는 지적

- 기존 기호의 변경 외에도 무료 와이파이 이용 가능 장소와 무슬림을 위한 기도실을 나타내는 도식 기호 약 40종류 추가

* 17년 여름, JIS 개정을 목표로 추진, 관련 첫 위원회를 7.7에 개최

(출처 : 교도통신, 2016.7.4)

□ 여행업계 동향

○ 일본여행업협회(JATA), 청년 대상 여권발급비용 지원 캠페인 실시

- (배경) 일본인 해외여행은 최근 3년간 지속 감소하였으나 '16년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세로 전환

* 2013~2015년 각각 전년 대비 5.5%, 3.3%, 4.1% 감소. 2015년에는 최초로 인바운드(19,737,409명)규모가 아웃바운드(16,213,789명)규모 추월

- 엔저, 20대의 해외여행 급감으로 아웃바운드 시장 위축이 지속 ⇒ 여행업계, 20대 대상 해외여행 장려 캠페인 실시 필요성 제기

* 20대 해외 출국자수는 1994년 462만명 → 2013년에는 296만명으로 감소

- JATA, 나리타공항과 공동으로 7월 15일부터 일본 청년 대상 여권발급비용 지원(10,000엔) 캠페인 실시

* (지원대상) 여권을 신규 발급 또는 갱신하고자 하는 18~22세 청년 500명(선착순)

단, JATA 가맹 여행사에서 해외관광상품 구매시에만 지원

- (목적) '내향적'이라고 불리는 일본 젊은이들에게 해외여행 의욕을 높여 자국민의 해외여행 수요 창출 목적

* 일본의 여권보유율은 15년 기준 23.5%에 불과하며, 2015년의 경우 5년 만에 발급 수가 증가했으나 20~30대 청년층 여권 발급은 오히려 감소

(출처 : 요미우리신문, 2016.7.1)

□ 관광시설 등 기타 동향

○ Hotels.com, 모바일을 통한 숙박 예약 행태 조사 결과 발표

- 온라인 숙박예약업체 Hotels.com은 31개국 9,2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 실시(일본인 설문 참가자는 18~70세, 300명)

◆ Hotels.com, 'Mobile Travel Tracker' 일본인 조사 결과

[모바일 이용률] 28%가 모바일을 통해 숙박 예약, 30대 미만은 49%로 모바일 이용률이 낮음(전세계 42%보다 14%p 낮은 수치)

[선택 기준] 요금, 결제방법, 시설사진, 이용후기 順

[예약시점] 숙박당일 33%, 9일전 30%로 전세계 결과보다 당일 예약 비율이 낮음

[스마트폰 이용시간] 1일 1.85시간, SNS 이용 1.55시간으로 전세계 평균보다 1시간 정도 적음

[여행 중 사용 SNS 채널] 라인 40%, 페이스북 32%, 트위터 28%, 유튜브 21%, 인스타그램 16%

[여행 중 검색 정보] 관광명소 59%, 식당 및 식료품 시장 55%, 지도 54% 순으로 관광명소 검색 비율이 전세계에서 가장 높음

(출처 : 트래블보이스, 2016.7.1)

○ JTB 종합연구소, 2016년 여름 휴가(7.15~8.31) 여행동향 발표

- JTB 종합연구소, 일본인 1,200명 대상 설문조사와 예약실적, 업계 모니터링 등을 통해 올 여름 휴가 여행 수요 예상치 발표
- (전체 여행 수요) 국내여행 소폭 감소, 해외여행 증가 예상, 엔화가치 상승으로 해외 소비액은 다소 감소 전망
- * 전체 여행 수요 예상치

대분류	구 분	예상치	전년대비 증감률
전체	총 여행자 수	7,745만 명	-0.7%
	총 여행 소비액	3조 850억 엔	-4.5%
국내여행	총 여행자 수	7,485만 명	-1.0%
	여행 비용(1인)	33,700엔	-2.9%
	총 여행 소비액	2조 5226억 엔	-3.9%
해외여행	총 여행자 수	260만 명	+7.4%
	여행 비용(1인)	21만 6,300엔	-14.0%
	총 여행 소비액	5624억 엔	-7.5%

- (목적지 별 해외여행자) 한국은 전년대비 29.4% 증가한 28.2만명(전체 2위), 증가율은 전체 1위

* 일본인 하계 여름휴가 해외 목적지별 예상치

순위	국 가	예상치(만 명)	전년대비 증감률
1	중 국	31.4	+12.1%
2	한 국	28.2	+29.4%
3	하 와 이	24.8	+6.0%
4	미 국 본 토	23.8	+7.2%
5	대 만	19.4	+6.6%

- (성수기) 해외여행 출발일은 8.10~14일에 집중될 전망
(출처 : 트래블보이스, 2016.7.2)

3. 국내외 여행 동향

○ JTB 종합연구소, 2016년 여름 휴가(7.15~8.31) 여행동향 발표

- JTB 종합연구소는 2016년 여름휴가(7.15~8.31) 여행 동향을 발표, 동기간에 1박 이상 여행의 총 여행자수는 7745만명(전년대비 -0.7%), 총 여행소비액은 3조850억엔(전년대비 -4.5%)로 전망
- 국내여행 총 여행자 수는 7485만명(전년대비 -1.0%), 여행비용은 3만3700억엔(전년대비 -2.9%)으로 총 여행소비액은 2조5226억엔(전년대비 -3.9%)로 전망
- 해외여행 총 여행자 수는 260만명(전년대비 +7.4%), 여행비용은 21만6300억엔(전년대비 -14.0%), 총 여행소비액은 5624억엔(전년대비 -7.5%)로 전망
- 동 기간 해외여행자 수 추계치에서 한국은 전년대비 29.4% 증가한 28.2만명으로 전시장 중, 2위를 차지(1위 중국, 3위 타이완)
(출처 : 트래블보이스, 2016.7.2)

○ 익스페디아재팬 여름휴가 인기 해외여행 랭킹 발표

- 익스페디아 재팬은 예약건수를 근거로 한 '여름휴가 인기 해외여행 랭킹'을 발표, 1위는 작년과 동일한 하와이 오후로 2위 타이베이(전년도 3위), 3위 서울(전년도 5위)로 나타남
- 인기의 상위 8개 도시는 8시간권 내에서 이동가능하며 '安, 近, 短'의 경향을 나타냄
- 전년대비 상승률을 비교하면 1위는 두바이(+287%), 2위 부산(+259%), 3위 골드코스트

(+220%), 4위 타이난(+188%), 5위 멜버른(+185%)으로 전년도는 상위 5개 도시 모두 동남아시아였던 것에 비하여, 올해는 한국과 타이완의 제 2의 도시가 인기를 나타냄

* 2016년 1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의 예약 중, 여행기간이 7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함

(출처 : 트래블보이스, 2016.7.7)

○ 여권 취득시 1만엔, 나리타공항 일본여행업협회 젊은층 대상 캠페인 실시

- 나리타공항과 일본여행업협회(JATA)은 18세부터 22세까지 500명을 대상으로 여권 취득 지원으로 1만엔을 선물하는 캠페인을 15일부터 실시
- 나리타공항을 이용하는 등의 조건이 있지만, '내향적'이라고 불리는 일본의 젊은이들에게 해외여행 의욕을 높이려는 목적임
- 조건은 1)국내 주재로 올해 4월1일 기준 18~22세, 2)여권을 신규 취득 또는 갱신, 3)나리타공항 출/도착의 국내선을 이용, 4)JATA 가맹 여행회사에서 나리타출발의 항공권이나 투어상품을 구입하여 해외여행으로 모두 만족시켜야 함
- 7월 15일 이후 나리타공항 홈페이지에서 응모 용지를 다운로드하여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발송하는 것으로 신청되며 선착순 500명 달성시 종료

(출처 : 요미우리신문, 2016.7.13)

○ 일본여행업협회(JATA) 여행시장동향조사(2016년 6월기) 결과 발표

- 일본여행업협회(JATA)의 여행시장동향조사(2016년 6월기) 결과를 발표, 2016년 4월~6월 해외여행 업계 현황 체감도는 1포인트 후퇴 -40을 나타내며 전분기(-31포인트) 회복전망에서 정체 중
- 업체별로는 해외여행계 여행회사(-6)가 12포인트 상승, 종합여행회사(-63), 해외여행 홀셀러(-48)가 전분기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나 인하우스(-40)가 18포인트 하락
- 방면별로는 하와이(-1)가 2포인트 상승, 한국(-54)가 10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5월25일~6월10일 JATA 회원 각사의 경영자 등을 대상으로 인터넷 조사를 실시, 548개사 중, 334사가 회신, 그 중 국내여행의 유효 회답수는 228사

(출처 : 트래블보이스, 2016.7.3)

○ 일본정부관광국, 6월 방일외국인 수, 일본인 출국자 수 발표

- 2016년 6월, 방일외국인 수는 전년 동월대비 23.9% 증가한 198만5700명으로 발표
- 6월 단월 과거 최고 기록인 2015년 6월 160만2000명에서 약 38만명을 상회하는 결과로 과거 최고치를 기록함

- 2016년 1월부터 상반기 누계치는 전년대비 28.2% 증가한 1171만4000명으로 반년간 기록으로는 처음으로 1000만명을 돌파함
- 한편, 일본인 출국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6.7% 증가한 127만명으로 발표
- 2016년 1월부터 상반기 누계치는 전년대비 3.8% 증가한 791만700명으로 나타남
(출처 : 일본정부관광국 JNTO, 2016.7.20)

4. 관광통계

□ 출입국 동향

(단위 : 명, %)

월	입국			출국		
	2015년	2016년	증감률	2015년	2016년	증감률
1월	1,218,393	1,851,800	52.0	1,235,612	1,276,000	3.3
2월	1,386,982	1,891,400	36.4	1,257,154	1,257,154	-
3월	1,525,879	2,009,500	31.7	1,534,026	1,575,000	2.7
4월	1,764,691	2,081,800	18.0	1,144,833	1,225,000	7.0
5월	1,641,734	1,893,600	15.3	1,262,103	1,250,000	-1.0
6월	1,602,198	1,985,700	23.9	1,190,806	1,270,000	6.7
7월	1,918,356	-	-	1,309,957	-	-
8월	1,817,100	-	-	1,653,618	-	-
9월	1,612,208	-	-	1,525,777	-	-
10월	1,829,300	-	-	1,412,466	-	-
11월	1,647,600	-	-	1,346,000	-	-
12월	1,773,100	-	-	1,346,500	-	-
누계	19,737,429	11,713,746	28.2	5,333,154	7,853,377	3.0

□ 국가별 입국 동향

(단위 : 명, %)

출발국가 → 일본	2016년 6월 입국자 수			2016년 1월 ~ 6월 입국자 수 누계		
	2015년	2016년	증감률	2015년	2016년	증감률
대한민국	251,504	347,400	38.1	1,819,337	2,382,951	31.0
대만	345,243	397,800	15.2	1,792,655	2,155,798	20.3
홍콩	137,014	163,100	19.0	691,591	868,148	25.5
태국	43,390	47,900	10.4	423,581	485,914	14.7

출발국가 → 일본	2016년 6월 입국자 수			2016년 1월 ~ 6월 입국자 수 누계		
	2015년	2016년	증감률	2015년	2016년	증감률
말 레 이 시 아	18,525	20,900	12.8	133,652	183,520	37.3
필 리 핀	18,619	27,600	48.2	138,543	181,330	30.9
인 도 네 시 아	17,119	22,900	33.8	96,661	127,634	32.0
싱 가 포 르	29,167	32,600	11.8	129,846	160,880	23.9
베 트 남	13,043	16,700	28.0	94,363	122,836	30.2
인 도	8,588	12,000	39.7	51,101	63,122	23.5
중 국	462,248	582,500	26.0	2,178,564	3,076,640	41.2
미 국	1,304	125,400	22.8	8,488	611,283	20.6
캐 나 다	102,103	18,900	13.0	507,025	127,874	14.7
영 국	16,725	20,300	20.6	111,493	145,218	19.3
독 일	16,839	12,000	13.9	121,775	88,698	15.1
프 랑 스	10,537	16,700	23.7	77,052	122,579	21.3
스 페 인	13,500	6,100	15.8	101,046	33,468	19.7
러 시 아	5,269	3,500	-6.8	27,953	25,414	-0.5
오 스트 레 일 리 아	3,756	30,200	33.1	25,546	233,342	23.0

2 중화권시장

1. 중국

가. 관광정책 및 업계 동향

□ 관광정책 및 업계 동향

○ 뤼마마, 2016 하계 관광추세 조사 결과 발표

- 온라인여행사 뤼마마는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하계 국내여행 및 해외여행 추세 조사 결과를 발표

◆ 뤼마마, '2016 하계 관광추세'

[예약] 6월까지 여름 상품 예약인원은 전년 대비 2.7배 증가, 6.15~30 기간에 예약이 집중

[국내관광] 하이난, 상하이, 푸젠, 윈난, 베이징 순으로 인기, 예약규모 전년 대비 3배 증가

[해외관광] 예약규모 전년 대비 3.2배 증가

- 인기 목적지 : 태국, 일본, 한국, 필리핀, 이태리, 인도네시아, 미국,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순
- 영국이 브렉시트에 따른 파운드화 절하로 인기 상승
- 일본, 한국보다는 동남아 지역의 증가세가 큼
- 미국, 호주 등 영어권 국가로의 교육을 테마로 한 상품 수요 증가

(출처: 신량여유, 2016.7.4)

○ 리커창 총리, 다보스 하계 포럼에서 5대 행복 산업 중 관광을 가장 강조

-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2016년 하계 다보스 포럼 개막식에서 스마트 통신, 핸드폰, 차세대 에너지 자동차 등 새로운 소비가 확대 되고 관광, 문화, 체육, 건강, 양로의 '5대 행복 산업'의 빠른 발전이 소비증가와 소비의 업그레이드를 촉진한다고 지적함
- 업계 관계자는 중요한 국제회의 상에서 총리가 관광, 문화, 체육, 건강, 양로의 '5대 행복 산업'을 지적하고 관광업을 5대 행복 산업 중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관광산업이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전국면에 점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함
- 서비스 산업의 국민경제 점유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음. 통계는 1분기 GDP는 전년대비 6.7% 증가. 그중 서비스 산업은 7.6% 증가하여 GDP 비율이 56.9%를 점유하여 2차 산업보다 19.4% 높아 중국 GDP 중 가장 큰 산업이 되었음. 생산측면에서 서비스 산업은 1/4분

기에 국민경제성장의 공헌도가 63.5%로 국민경제 발전에 가장 큰 추진 동력이 되고 있음
(출처: cnta.gov.cn, 2016.7.2)

○ 브렉시트 이후 영국 방문 중국 아웃바운드 시장 현황 및 전망

- (현황) 중국인의 영국 방문 아웃바운드 규모는 '15년 시진핑 주석의 영국 국빈 방문 이후 이루어진 비자발급 완화 조치로 급격히 확대
 - * (영국 방문 중국관광객 비자 발급 완화) 비자 유효기간은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 중국 관광객을 위한 복수 관광 비자제도 도입
 - ** (중국인 방문 아웃바운드 시장 확대) '14년 152,000명 → '15년 223,000명(47.2% 증가), 1인당 지출액은 2,688파운드 (중국관광객 22명이 영국 내 1개 일자리 창출)
- (문제점) 중국관광객은 유럽여행 시 유럽 내 복수의 국가를 방문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유럽여행 목적지에 영국을 추가할 경우 2개의 비자가 필요
 - * EU 국가 방문 시 Schengen Visa 1개만 필요, 유럽여행 중 영국 방문 시 영국 입국 비자 추가 필요
- 영국 입국을 위한 추가 비자 발급의 번거로움 때문에 프랑스 등 기타 유럽국가에 비해 영국 방문 중국관광객 규모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
 - * ('15년 중국인 유럽 아웃바운드 규모) 프랑스 250만, 독일 140만, 체코 29만, 영국 22만
- 브렉시트 이후 △더욱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는 유럽↔영국 출입국 절차, △유럽↔영국으로의 출입국 시 관세 및 VAT 문제 발생 가능, △단기적으로는 파운드 약세로 영국 시장이 인기를 끌 수 있으나 장기적인 시장 확대에는 부정적 영향
(출처 : China Outbound Tourism Research Institute (COTRI), Jing Daily, 2016.7.5)

○ 2016년 상반기 중국 관광 투자 전년대비 30% 성장, 문화관광 인기

- 중국국가여유국 통계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중국 관광 관련 투자가 9,444건, 4,211억5천만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5% 증가하였음. 관광상품의 업그레이드 추세가 명확하여 휴양형 상품, 향촌 관광, 문화 관광 등이 투자가 많이 되고 있음
- 대규모 투자의 증가 속도가 빠른 양상을 보이고, 100억위안 이상의 투자가 206건, 794억 6천만위안이 투자되어 전년대비 34.4% 증가함
- 민간부분에서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활발하며 상반기 민간기업이 투자한 금액은 2,412억 8천만위안으로 전년대비 27.1% 증가하였음. 또한 서부지역 투자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동부지역의 투자가 집중되고 있음
- 관광 상품의 업그레이드 추세가 명확하여 휴양형 관광의 투자비율은 41.3%를 점유하였음.

관광투자의 변화가 두드러져 점유율이 54.3%에서 39.6%로 하락함. 향촌관광의 투자는 뛰어나 1,221억 3천억위안을 달성하여 전년대비 62.3% 증가하였음

(출처: cnta.gov.cn, 2016.7.12)

○ 항중려(CTS, 구 중국여행사, 중려), 중국국제여행사(CITS, 국려) 합병

- 국무원 결정에 따르면 국려는 항중려의 완전 출자 자회사가 되었음. 두 그룹의 업무는 여행사 서비스 방면에 있는 공통점이 있으며, 영업수입 중 30% 이상을 점유하고 있음
- 한편, 국려는 면세점 업무, 중려는 호텔, 관광지, 물류, 금융업을 하고 있으며, 합병 이후에 강점을 보완할 수 있음. 이번 합병을 통해 국가급 관광 슈퍼기업을 만들어 중국 최대의 국유기업 여행그룹이 만들어짐
- 항중려와 국려는 중국 현대 관광산업 발전의 역사임. 20세기 80년대 이전에 중려, 국려와 공청단 중앙 직속인 중청려 3개 여행사가 전국의 여행업을 장악하였음
- 두 그룹은 개혁 개방 이후 30년 동안 크게 발전하였으나, 온라인 여행, 저가항공, 크루즈, 국제 투자, 가이드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 등, 최근 20여년 동안 중국에 나타난 관광의 새로운 트렌드에 빠르게 대처하지 못함

(출처: cnta.gov.cn, 2016.7.14)

□ 항공업계 동향

○ 평양-산둥 직항 노선 편성 등으로 대북관광 확대 움직임

- 기존 전세기로 운영되던 고려항공 평양-산둥(지난) 노선이 7월부터 주 2회(월,금), 정기노선으로 편성 관측
 - * 5월~6월 전세기 총 9편 운영, 7. 15일부터 정기노선 편성 관측
 - 중국인 대상 평양과 묘향산, 개성 등 3곳을 둘러보는 3박4일 관광상품 출시(상품가격 : 1인당 4천 위안)
 - * 해당 항공편이 전세기 포함 '16년 13차례 운영, 산둥성 지난시에서만 약 1천 명의 중국 관광객이 북한 방문 추정
- (출처: VOA, 2016.7.26)

□ 여행업계 동향

○ Ctrip 한국행 단체여행객 이용 식당 직접 인증 실시

- 중국 온라인 여행사 씨트립이 6월부터 방한 중국 단체여행객이 이용하는 식당에 대한 인증 실시, 인증결과를 방한 상품에 적용

- * 최근 중국인 단체관광객용 식당들이 기한이 지난 식재료 사용 등 위생관리 문제점이 중국 언론에 보도되면 중국 여행사가 직접 단체객 식당 관리 추진
 - ** 제주도 3박 4일, 서울 4박 5일, 서울+제주의 연계상품은 인증을 통과한 식당으로 진행
 - 담당 상품매니저들이 정기적으로 현지답사, 해당 식당별 시식 후 맛, 환경, 가격별 기준에 부합하는 식당을 인증하여 상품개발에 반영
 - * 외국인관광객 ‘전용’식당이라는 것 자체가 부조리를 부른다는 판단 하에 현지인에게 개방되지 않은 식당은 원천적으로 제외
 - ** 인증식당의 식대표준은 현재 일반 상품의 2~3배 수준인 끼당 80~100위안으로 설정
 - 인증을 획득한 식당은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의 여행상품 안내에 식당명, 메뉴, 가격 등 정보 공개
 - 씨트립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인증 적용 상품은 늘리고 기준 미달 식당은 탈락시키는 등 관리 계획 발표
- (출처 : 携程旅游, 2016.7.11)

나. 국내외 여행 동향

○ 자녀 동반 가족여행 수요 증가와 트렌드 변화

- 중국 언론사, 여행업자 종사자 대상으로 최근 여행 동향 모니터링 실시

◆ 가족여행도 이제는 해외로

[해외상품의 인기] 가족 여행 목적지로 과거에는 주로 국내에 수요가 국한되었으나, 해외상품의 가격 하락으로 해외 목적지 선택 증가

- 최근 중국인 해외여행자 수 급증 → 항공노선 확대 → 공급 증가에 따른 가격하락
- 2선도시에도 한국, 일본 등 직항노선이 개설되면서 해외여행이 더욱 간편해짐
- 일부 상품의 경우 국내 상품보다 가격이 저렴
- 부모들은 가격차가 크지 않다면 해외에서 자녀들의 견문을 넓혀주고자 하는 니즈가 강함

[여행 행태의 변화] 자녀 동반의 경우 기존의 여행 행태와 다른 모습을 보임

- 명소 순방 형태보다는 체험형 여행의 선호도가 높음
- 관광객들이 몰리지 않는 ‘자신만의’ 관광지를 개발하려는 경향이 강함

(출처 : 치루이디엔, 2016.7.8)

○ 신의주 무비자 반일(半日) 관광

- 북한, 7.9(토)부터 지정된 공간(유람구) 내 반나절 코스 신의주 무비자 관광 시작, 짧은 수

속시간, 저렴한 비용, 간편한 수속으로 중국인 관광객에게 인기

* 1인당 여행비용 350위안(약 6만원), 일평균 방문객 약 10,000명

- (향후계획) 북측은 유람가능 지역 확대(3만 평방미터→13만 평방미터) 및 신의주 외 백두산 인근 무봉국제관광특구 등 접경지역 관광특구 지속 조성 예정

* 홍콩의 영자지 'South China Morning Post'紙는 이례적으로 한국 내 싸드 배치에 따른 한국관광산업의 영향과 중국의 대북관광(신의주) 확대 내용을 한 기사에 함께 보도

(출처 : 요녕신문, South China Morning Post, 2016.7.15)

다. 경쟁국 동향

○ 단체 대만관광 금년 여름 판매량 30% 감소 예상

- 최근 대만 매체가 중국 국가여유국이 7월 20일부터 대륙 관광객의 대만 관광업무를 전면 중단시킨다고 보도한 내용이 인터넷에 유포되어 대만 관광업계에 충격을 가져왔음
 - 그러나 최근 대만 관광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대만 단체 관광객의 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FIT 관광객 수는 유지되고 있음
 - CYTS, CITS, 중신, Ctrip 등 여행사에서는 최근 대만 관광은 정상적이며 국가여유국이나 지방여유국의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함. 대만 단체 관광객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금년 하계에 30% 감소할 것을 전망함
 - 대만 관광객의 감소원인은 대만측의 고가 단체와 보통 단체의 인원 할당제가 있어 여행사의 보통 단체의 인원이 감소하였으며 고가 단체는 모객이 되지 않음
- (출처 : cnta.gov.cn, 2016.7.11)

○ Ctrip, 旅游百事通 공동으로 전국 50개 도시 태국 1만명여행 행사 계획

- 7월 11일 Ctrip, 旅游百事通은 공동으로 협력하여 1만명 태국 행사를 발표하였음
- 협력한 관광상품을 5,000여개 旅游百事通 대리점과 다운로드 17억회의 Ctrip App을 통해, 전국 50개 도시에서 하루에 1만 여명 태국 관광단체를 구성할 계획임
- 이 1만여명 태국여행은 8월 11일 전국에서 동시 출발하며, 관련 상품은 양사의 대리점, 온라인에서 홍보 및 모객 중임
- 이전에 태국상품을 구매한 고객들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양사는 고품질 상품을 개발하여 방콕, 파타야 코스로 일정은 100%투명하며 5성급 호텔, 특색 식당, 태국식 1천명 만찬 등을 섭외할 예정임

(출처 : news.cnair.com, 2016.7.11)

라. 관광통계

□ 출입국 동향

(단위 : 명, %)

월	입국		
	2015년	2016년	증감률
1월	10,920,000	11,108,400	1.7
2월	9,271,300	9,844,400	6.2
3월	11,185,800	-	-
4월	11,992,700	-	-
5월	11,206,000	-	-
6월	10,786,200	-	-
7월	10,921,500	-	-
8월	11,198,700	-	-
9월	11,334,600	-	-
10월	11,815,200	-	-
11월	11,466,700	-	-
12월	11,719,000	-	-
누계	133,817,700	20,952,800	3.8

□ 국가별 입국동향

(단위 : 명, %)

출발국가 → 중국	2016년 6월 입국자 수			2016년 1월 ~ 6월 입국자 수 누계		
	2015년	2016년	증감률	2015년	2016년	증감률
대 한 민 국	325,700	-	-	2,141,200	698,100	-67.4
일 본	206,600	-	-	1,198,000	387,400	-67.7
대 만	467,600	-	-	2,640,900	880,600	-66.7
홍 콩	6,389,600	-	-	39,169,100	12,505,600	-68.1
태 국	43,900	-	-	308,900	87,300	-71.7
말 레 이 시 아	83,100	-	-	498,900	144,900	-71.0
필 리 핀	85,800	-	-	464,700	148,900	-68.0
인 도 네 시 아	47,300	-	-	252,900	80,400	-68.2
싱 가 포 르	86,200	-	-	435,800	116,800	-73.2
베 트 남	184,100	-	-	1,024,500	315,600	-69.2
인 도	65,400	-	-	350,000	107,700	-69.2
미 국	186,900	-	-	1,037,500	304,300	-70.7
캐 나 다	48,200	-	-	329,800	99,600	-69.8
영 국	41,900	-	-	290,000	83,600	-71.2
독 일	45,800	-	-	312,100	97,100	-68.9
프 랑 스	36,600	-	-	244,200	74,000	-69.7
러 시 아	143,300	-	-	641,200	226,600	-64.7
오스트레일리아	48,600	-	-	305,300	95,900	-68.6

2. 홍콩

가. 주요 경제·사회 동향

- 홍콩언론인협회, 중국의 홍콩언론 통제 우려 표명
 - 홍콩언론인협회는 중국 정부의 홍콩 통제가 강화되면서, 홍콩 언론의 자유와 일국양제(One Country Two System)가 위협받고 있다고 밝힘. 이들은 지난 1년간 홍콩 자치권에 대한 중국정부의 강화된 통제가 언론의 자유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발표함
 - 언론인협회는 최근 중국정부에 반하는 책을 유통했던 출판업자들이 사라졌던 사건을 전환점으로, 홍콩시민들이 일국양제 시스템의 유효성에 관해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고 주장
 - 홍콩언론의 31%는 이미 중국 주주가 소유하고 있거나 통제하고 있으며, 언론은 점점 언론의 자유를 이해하고 있는 홍콩 대학생들 대신 중국 대학생들을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출처 : The Standard, 2016.7.4)

나. 관광정책 및 업계 동향

□ 관광정책 및 유치활동

- 홍콩, 아시아 10대 명소 중 5위 차지
 - 세계적 여행출판사 '론리 플래닛' 선정 2016년 꼭 방문해야하는 아시아 10대 명소를 발표함. 1위로는 일본 홋카이도가, 홍콩은 5위로 차지함
 - 홍콩은 야경과 야시장으로 관광객들에게 유명하지만, '론니 플래닛'은 유네스코에 인증된 홍콩의 지질공원을 특별한 자연문화 유산으로 선정함. 특히 지질공원 내에 300년 역사의 객가촌인 라이치위(Lai Chi Wo)마을을 언급함
 - 한편, 론리 플래닛은 사상 처음으로 여행 작가들이 직접 아시아 각국의 여행지를 둘러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1년 안에 꼭 가봐야 할 아시아의 관광명소를 선정하였음

순위	여행지	순위	여행지
1	일본 홋카이도	6	말레이시아 이포
2	중국 상하이	7	인도네시아 페무테란
3	한국 전주	8	태국 트랑섬
4	베트남 콘다오	9	인도 메갈라야
5	홍콩	10	대만 타이중

(출처 : Skypost, 2016.7.14)

○ 홍콩오션파크, 중국 남부지역과 주변국가 방문객 지속 증가 확인

- 오션파크 회장은 상하이 디즈니랜드를 포함한 다수 중국 본토 테마파크 개장에도 불구하고, 오션파크의 지속적인 성장을 낙관적으로 예상함
- 최근 상하이 디즈니랜드뿐만이 아니라 광저우 워터파크, 주하이 침룡 수영장 등 중국 본토에 경쟁 테마파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하지만, 오션파크는 일반적인 국제 테마파크와 달리 홍콩 자체의 로컬 문화를 갖추고 있음을 강조
- 통계에 따르면 오션파크의 연간 방문객 수는 홍콩 디즈니랜드 개장(2005년)전에는 3백만 명이었지만, 현재는 700만명에 이름. 최근 홍콩을 찾는 중국 관광객이 감소함에 따라, 작년 중국관광객은 약 14% 감소했지만, 오션파크는 다른 아시아 국가 방문객 유치에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인도 관광객이 40% 증가했다고 밝힘

(출처 : South China Mornig Post, 2016.7.4)

○ 마카오 호텔, 여름휴가 기간 예약부진에 파격 할인 제공

- 여름휴가 기간 동안 마카오 호텔들이 35%까지 할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의 경우 저녁 뷔페를 구매하면 객실을 제공하기도 함. 하지만 여전히 8월 첫 주말 객실이 비어있는 호텔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마카오 여행업협회에 따르면 홍콩의 경우도, 지난해와 비슷한 방문객 수와 이용률을 보이고 있으나, 지역이나 등급에 따라 객실료가 최소 10%이상 떨어졌다고 밝힘
- 한편, 홍콩관광산업종업원총연합회는 동중국쪽 본토 방문객들이 상하이 디즈니랜드로 몰려가기 때문에 홍콩 도심 호텔의 이용률은 지난해 90%에서 올해 80%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힘

(출처 : The Standard, 2016.7.19)

□ 여행업계 동향

○ 서유럽 단체상품 예약 및 상담 30% 감소

- 홍콩 여행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해 서유럽테러 발생 이후 서유럽 관광 단체수가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최근 홍콩관광객이 독일 기차테러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기도 했으며, 홍콩여행업협회 회장이 유럽당국에 안전조치를 촉구함
- 그는 유럽 기차역의 경우 공항에 비해 보안이 허술하기 때문에 유럽 당국은 기차를 타는 관광객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차역 보안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함
- 또한, 프랑스 등 서유럽 단체예약과 상담이 지난해 11월 파리테러 이후 30% 감소한 반면,

스페인, 포르투갈, 체코, 헝가리 등의 지역은 20% 상승했다고 밝힘. 이러한 것은 홍콩인들이 신변에 관해 걱정하면서도 여행을 매우 좋아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함
(출처 : The Standard, 2016.7.20)

○ 엔화가치 상승, 일본 여행상품 가격변동

- 엔화가치 상승이 일본투어를 취급하는 홍콩여행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홍콩소비자들의 일본상품 예약율도 저조하며, 일본여행에 대한 선호도 낮아지고 있음. 또한 일본현지의 렌드비용도 높아지고 있어서 일본여행시장에 여러모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패키지투어 여행사 관계자는 올해 4월부터 엔화가치 상승과 함께 홍콩시민들의 일본여행 선호도가 현저히 낮아졌고, 예약률 역시 약 10% 감소하였으며 일본 현지의 호텔, 교통, 식사비용 등의 가격이 상승되고 있다고 함

(출처 : Ming Pao, 2016.7.15)

다. 국내외 여행 동향

○ 파운드화 하락에 영국여행 문의 증가

- 여행 인터넷 사이트(엑스피디아)에 따르면, 브렉시트 이후 영국 파운드 가치폭락으로 인해 최근 온라인으로 영국행 항공권과 호텔 검색이 약 6% 증가함
- 연초부터 파운드 하락으로 영국여행 예약은 전년 동기대비 약 40% 증가. 그 중 런던과 맨체스터가 가장 인기 높은 여행목적지이며, 두 지역의 항공료는 세금 포함 4,425~4,900 홍콩달러(약 한화66만~74만원) 정도로 판매되고 있어 더 많은 홍콩소비자들이 영국여행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
- 홍콩여행업협회 관계자는 현재 영국여행에 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환율변동을 반영한 영국단체상품 가격조절에는 약 2주~3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또한 단체상품 가격은 그다지 중요한 사항이 아니며 영국에서 더 저렴하게 쇼핑을 할 수 있게 된 점이 쇼핑을 좋아하는 홍콩 소비자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힘

(출처 : The Standard, 2016.7.7)

라. 관광통계

□ 출입국 동향

(단위: 명, %)

월	입국		
	2015년	2016년	증감률
1월	5,609,698	5,225,578	-6.8
2월	5,405,689	4,295,731	-20.5
3월	4,405,298	4,213,801	-4.3
4월	4,789,112	4,686,316	-2.1
5월	4,756,215	4,453,118	-6.4
6월	4,361,228	4,285,730	-1.7
7월	-	-	-
8월	-	-	-
9월	-	-	-
10월	-	-	-
11월	-	-	-
12월	-	-	-
누계	29,327,240	27,160,274	-7.4

□ 국가별 입국 동향

(단위: 명, %)

출발국가 → 홍콩	2016년 6월 입국자 수			2016년 1월 ~ 6월 입국자 수 누계		
	2015년	2016년	증감률	2015년	2016년	증감률
대한민국	68,975	105,083	52.3	648,452	687,236	6.0
일본	79,570	74,366	-6.5	485,665	499,502	2.8
대만	167,791	176,169	5.0	956,914	986,919	3.1
태국	32,468	39,183	20.7	234,428	306,310	30.7
말레이시아	42,942	39,008	-9.2	252,894	244,589	-3.3
인도네시아	37,896	43,735	15.4	193,745	215,882	11.4
싱가포르	65,975	62,470	-5.3	308,035	324,349	5.3
필리핀	54,602	67,914	24.4	333,745	386,348	15.8
인도	55,266	52,843	-4.4	276,387	258,874	-6.3
중국	3,333,433	3,206,043	-3.8	22,846,524	20,415,710	-10.6
미국	97,588	101,179	3.7	583,412	591,603	1.4
캐나다	23,006	22,523	-2.1	177,904	182,403	2.5
영국	31,601	32,769	3.7	264,226	276,154	4.5
독일	12,728	13,202	3.7	101,363	111,312	9.8
프랑스	13,814	13,119	-5.0	100,719	102,003	1.3
중동	11,334	8,850	-21.9	82,873	82,247	-0.8
오스트레일리아	46,188	46,829	1.4	283,160	289,053	2.1

3. 대만

가. 주요 경제·사회 동향

○ 台 성장률 전망 줄줄이 하향 조정

- 정부 싱크탱크(중양연구원, 중화경제연구원)들이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 이하로 본데 이어 민간 싱크탱크(대만경제연구원)도 0.77% 전망치 발표
- 내달 행정원 주계총처(통계청)의 전망치도 1% 미만으로 예상돼 대만은 2년째 0%대 성장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

* 대만 내 주요 기관별 최신 경제성장률 전망치 : 중양研 0.52%, 중화경제研 0.84%, 대만 경제研 0.77%

(출처 : 공상시보, 2016.7.26)

○ 태풍 피해액 NTD6억에 달해 그 중 台東 피해 제일 커

- 네파탁 태풍 피해 영향으로 經農委會畜牧處, 農糧署, 漁業署와 林務局 등 각 지방정부가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농림업, 어업, 목축업 산물과 각 민간시설 피해액이 NTD 6억 6,380만원에 달하고, 그 중 台東縣의 피해액만 NTD 6억 2,2663만원으로 제일 피해가 컸고, 다음으로 屏東縣 NTD 1,988만, 가우슁시 NTD 1,419만원으로 나타남
- 민간시설 피해 상황은 농업설비 피해액 NTD 870만원으로 台東縣피해가 가장 컸고, 목축업설비 피해액은 NTD 1,199만원으로 총 피해액은 NTD 2,069만원에 달함

(출처 : 中央通訊社, 2016.7.8)

나. 관광정책 및 업계 동향

□ 관광정책 및 유치활동

○ 동남아시아 개방 확대 관련 - 동남아권 가이드 부족이 걱정

- 행정원에서는 8월부터 태국과 브루나이 관광객 대상 대만방문 30일 비자 면제를 시행. 이를 제외한 동남아 국가는 조건부 비자면제를 시행하지만, 대만 관광업계 관계자들은 동남아시아 개방 확대 관련 정부가 언급한 NTD130억의 관광 외환 창출에 대해 의심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추세임
- 업계에 따르면 대만에서 동남아 언어 가능 가이드 혹은 서비스 인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동남아 각국의 문화를 제대로 아는 가이드가 부족하며 국내 여행사들의 동남아 관광객 대

상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것도 떠오르는 난제라고 전함

(출처 : 聯合財經網, 2016.7.16)

○ 台 경제부, 우버(Uber) 투자철회 명령 검토

- 우버타이완의 불법영업 논란이 계속되자 경제부 투자심의위원회는 투자 철회 명령을 검토기로 함(1개월 내 판정 예정)
 - 대만택시기사협회는 우버의 무허가영업 및 낮은 요금체제로 업계 종사자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11일 대만 입법원 앞에서 투자 철회 명령 요구 시위를 벌임
- (출처 : 경제일보 ‘投審會將促Uber撤資’, 2016.7.12)

□ MICE산업 동향

○ 대만무역센터 서울에서 인센티브 관광설명회 개최

- 서울주재 대만무역센터는 15일 서울에서 대만 관광설명회를 개최했고, 한국 여행업계 50여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룸
 - 타이페이 국제회의센터는 한국과 대만의 경제, 무역과 문화교류의 왕래가 정부와 민간단체의 노력 아래 점점 가까워져, 특히 관광부문에서 한국관광객의 대만방문이 매년 증가해 2013년 대만을 방문한 한국관광객수가 약35만 명에 달했고, 2015년엔 88% 성장한 65만 8,000명을 기록. 대만 관광국은 올해 80만명을 예상하고 있다고 전함
 - 또한 「MEET TAIWAN 대만전시회안내계획」은 경제부 국제무역국에서 주최하고, 무역협회가 집행하는 사업으로, 대만 MICE환경을 홍보하고 여러 기업 대상으로 대만 내 MICE 활동 관련 정보나 도움을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설명
- (출처 : 聯合新聞網, 2016.7.15)

□ 관광시설 등 기타동향

○ 외국인 관광객 1인당 지출금액 4년째 내리막길

- 대만 교통부 관광국은 외국인 관광객 1명이 대만을 한 번 찾을 때마다 지출한 금액이 정점인 1,818달러('11년)에서 1,378달러('15년)로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발표
 - 대만의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15년 1천만 명을 돌파(1,044만 명)하며 증가세를 이어간 반면 관광수입 총액은 143억 8,800만 달러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1.6%)
 - 올해는 중국 관광객 감소로 관광수입의 감소폭이 확대될 것으로 업계는 우려됨
- (출처 : 공상시보 ‘來台旅客消費 中日最多’, 2016.7.7)

다. 국내외 여행 동향

○ 관광업자의 40% 중국관광객 감소로 실적 감소 겪어

- 인력은행이 관광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0%에 달하는 여행업자가 중국관광객의 감소로 매출 실적이 떨어졌고 평균 하락폭은 23%라고 함
- 1111인력은행 대만 웹사이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5%가 넘는 여행업자가 중국관광객이 현저하게 줄었다고 답했고, 그 중 약40%의 업자는 중국관광객 감소로 실적까지 떨어졌다고 응답함
- 1111인력은행 부사장은 중국관광객이 전체관광객의 40~50%를 점유해 중국관광객의 감소는 여행산업에 반드시 영향을 줄 것으로 언급. 한 경제연구소 예측에선 중국관광객이 20%만 감소해도 1년에 NTD 261억의 손실을 야기할 것 이라고 분석함
(출처 : 聯合報 , 2016.7.2)

○ 중국 네티즌들의 대만여행 기피 이유

- 웨이보에서 최근 3,227명의 중국관광객을 대상으로 대만 자유여행을 꺼리는 이유를 조사하였고, 이 중 「중국을 욕하면서 돈을 버는 대만이 싫어서」와 「민진당과 지금 총통이 싫어서」가 각각 18%가 넘는 표를 받아 1, 2순을 차지했고, 나머지 3-6순위도 최근 양안관계와 연관되어 있었음
- 台灣島旅遊網의「7월 20일부터 중국관광객의 대만방문 업무를 정말로 전면 중지하나요?」라는 것에 대한 조사결과, 1,638명이 대만여행을 금지하는 것에 지지투표를 했음
(출처 : 中時電子報, 2016.7.12)

라. 경쟁국 동향

○ 중화항공 9월 일본행 항공편 감편 운행

- 中華항공 노조의 파업으로 노동조건 변화뿐만 아니라, 中華항공 인건비도 대폭 증가. 中華항공은 올해 9월 이후, 中華항공의 일본항공선 도쿄, 오사카, 홋카이도의 항공편을 다소 감축할 것이라고 전함. 또한, 항공편 조정은 파업 영향으로 감편한 것이 아닌 시장요구에 맞추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해 조정한 것이라고 강조
- 謝世謙 이사장은, 작년 일본시장의 반응이 좋아 中華항공에서는 지속적인 증편으로 도쿄는 하루 5편 운행에 달했지만, 9월부터는 항편을 조정하여 中華항공 내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할 것이라고 언급
(출처 : 自由時報 , 2016.7.14)

마. 관광통계

□ 출입국 동향

(단위 : 명, %)

월	입국			출국		
	2015년	2016년	증감률	2015년	2016년	증감률
1월	752,271	865,930	15.1	920,674	1,085,927	18.0
2월	817,183	920,155	12.6	1,015,518	1,240,755	22.2
3월	861,592	1,034,730	20.1	1,075,244	1,096,211	2.0
4월	888,011	910,323	2.5	1,139,384	1,237,213	8.6
5월	866,380	882,565	1.89	1,153,079	1,230,556	6.7
6월	800,147	817,800	2.21	1,173,516	1,363,849	16.2
7월	-	-	-	-	-	-
8월	-	-	-	-	-	-
9월	-	-	-	-	-	-
10월	-	-	-	-	-	-
11월	-	-	-	-	-	-
12월	-	-	-	-	-	-
누계	4,985,584	5,431,503	8.94	6,477,415	7,254,511	12.0

□ 국가별 입국 동향

(단위 : 명, %)

출발국가 → 대만	2016년 6월 입국자 수		
	2015년	2016년	증감률
대 한 민 국	36,696	61,599	67.9
일 본	118,156	130,172	10.2
태 국	8,912	11,757	31.9
말 레 이 시 아	29,873	29,746	-0.4
인 도 네 시 아	15,516	17,029	9.8
싱 가 포 르	33,712	34,467	2.2
필 리 핀	11,779	14,145	20.1
인 도	3,352	2,659	-20.7
중 국	308,087	271,478	-11.9
마 카 오	139,920	143,276	2.4
미 국	43,408	47,408	9.2
캐 나 다	5,914	6,090	3.0
영 국	4,108	4,140	0.8
독 일	3,516	3,749	6.6
프 랑 스	2,865	2,909	1.5
이 탈 리 아	1,239	1,210	-2.3
남아프리카공화국	315	352	11.8
중 동	1,657	1,279	-22.8
뉴 질 랜 드	1,441	1,454	0.9
오스트레일리아	5,051	5,324	5.4

3

동남아시아

1. 싱가포르

가. 주요 경제·사회 동향

○ 2016년 싱가포르 방문 중국관광객 증가 예상

- 싱가포르 통화청에 따르면, 1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 1.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2분기의 경제 성장률은 2%가 될 것이라고 예상함
- 하반기 싱가포르 경제는 영국의 브렉시트로 인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무디스는 올해 싱가포르의 경제성장률을 1.6~1.8%로 예상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정부의 공식적인 경제성장 예측치는 1~3%임

(출처 : straitstimes, 2016.7.7)

나. 관광정책 및 업계동향

□ 관광정책 및 유치활동

○ 북한 2016년 10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비자발급 의무화

- 싱가포르 출입국관리소는 2016년 10월 1일부터 싱가포르를 방문하는 북한인에 대한 비자 발급의무화를 발표함
- 싱가포르 출입국 관리소는 정기적인 비자체계 정비의 일환으로 이와 같이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비자 신청절차에 관한 정보는 출입국관리소의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됨

(출처 : channelnewsasia, 2016.7.30)

○ 싱가포르 - 쿠알라룸푸르 간 고속철도 2026년 완공 예정

-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정부가 7월 19일 싱가포르 - 쿠알라룸푸르간 고속철도(HSR)의 개발과 관련한 MOU를 체결하였음. 고속철도 건설과 관련한 확정계약은 올해 말에 서명할 예정이며, 고속철도의 공사기간은 2018년부터 2025년까지로 예정됨

* 고속철도 최대속도 : 300km/h

* 수용인원 : 1,000명

* 소요시간 : 90분(싱가포르 - 쿠알라룸푸르)

- 세관(C), 출입국관리(I), 검역(Q)시설을 싱가포르, 이스칸다르, 쿠알라룸푸르에 함께 배치할 계획이며, 외국인 탑승객들은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CIQ의 확인절차를 한 번에 받게 될 것임

(출처 : ttgasia, 2016.7.20)

□ 항공업계 동향

○ 창이공항, 탑승객 안전성 강화를 위해 1,500만불 투자

- 창이공항의 안전성, 보안, 자동화 시스템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싱가포르 민간항공청 (Civil Aviation Authority of Singapore/CAAS)이 7월 1일, 4년간 15,000,000달러를 투자하여 항공사들의 사업추진 초기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계획을 발표함
- 싱가포르 민간항공청은 안전성 관리 활동을 통합하기 위하여 State Safety Programme을 발전시킬 계획임. 이는 국제민간항공기구(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sation/ICAO)에 의해 전세계적으로 새로이 시행되는 계획안임
- 최근 발생한 이스탄불의 테러공격 등으로 창이공항 내에 보안 및 확인 절차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더욱 강화된 보완조치를 위해 항공 커뮤니티의 이해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함
- 싱가포르 당국 관계자는 궁극적으로 안정성 향상은 창이공항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모두가 지켜나가야 하는 책임성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각자가 맡은 바에 충실히 해야 한다고 언급함

(출처 : straitstimes, 2016.7.2)

○ 2016년 상반기 창이공항 이용객수 8% 증가, 2,880만명 기록

- 창이공항그룹(CAG)의 조사에 따르면, 2016년 상반기 창이공항의 이용객은 2,880만명으로, 이는 전년 동기간 대비 8% 상승한 수치이며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 창이공항을 이용하는 주요 10개국의 증가율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또한, 항공기 이동은 4.7% 증가하여 177,810건, 항공화물 이동은 4.2% 증가하여 950,250톤을 기록함
- 6월 한 달간 창이공항은 전년대비 3% 증가한 4.84백만명의 탑승객의 이동을 기록하였고, 6월 주요 성장률의 원천은 미국, 동북아시아, 남서태평양 지역이었으며 중국과 호주가 창이공항의 탑10개 시장 중에서 각각 16%와 7%를 차지함
- 7월 1일부터, 100여개가 넘는 항공사들이 창이공항을 이용할 계획이며 항공사들은 싱가포르

르와 80개국의 330개 도시를 연결할 것임

(출처 : straitstimes, 2016.7.28)

다. 국내외 여행 동향

○ 싱가포르 푸드페스티벌 개최

- 싱가포르의 연례행사인 푸드 페스티벌(SFF)이 7월 15~31일까지 개최됨. 총 18개 행사가 진행되며 F&B체인점과 호커센터, 호텔 등이 참여함.

* 축 제 명 : Singapore Food Festival

* 개최시기/기간 : 매년 7월 / 2주간

* 시작년도 : 1994년(올해로 23번째)

* 개최장소 : 오차드, 마리나베이, 차이나타운 등 문화지구를 중심으로 한 남부지역

- 싱가포르 푸드 페스티벌은 1994년에 시작되어 이후 23년 동안 싱가포르에서 유일한 음식 축제로 남아있으며 현지음식에 현대적인 부분을 가미하여 현지의 입맛과 창의적으로 진화하는 음식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에 의미를 둠

(출처 : ttgasia, 2016.7.18)

라. 경쟁국 동향

○ 대만 방문 외래관광객은 증가하였으나, 중국관광객은 감소

- 대만 관광부로 통계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5월까지 대만을 방문한 외래관광객은 461만명이었으며, 이는 전년 동기간 대비 10.2%가 증가한 수치임. 이는 최근 몇 년간 다양한 관광객들을 맞이하려는 대만정부의 노력의 결과임
- 특히, 한국 관광객이 전년대비 20.3%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일본 관광객들은 19.3%로 2번째로 큰 증가율을 기록하였음. 말레이시아 관광객은 9.8% 증가, 홍콩과 마카오 관광객은 9.5% 증가함. 중국 관광객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5.7% 증가하였으나, 5, 6월의 중국인 관광객은 전년 동기간 대비 15% 하락하였음

(출처 : theworldfolio, 2016.7.7)

마. 관광통계

□ 출입국 동향

(단위 : 명, %)

월	입국		
	2015년	2016년	증감률
1월	1,252,608	1,412,122	12.7
2월	1,188,818	1,335,029	12.3
3월	1,201,648	1,404,138	16.9
4월	1,208,624	1,393,280	15.3
5월	1,222,836	1,355,503	10.8
6월	1,184,747	1,269,120	7.1
7월	1,519,233	-	-
8월	1,445,062	-	-
9월	1,131,976	-	-
10월	1,246,947	-	-
11월	1,203,992	-	-
12월	1,424,978	-	-
누계	15,231,469	8,169,192	12.5

2. 말레이시아

가. 주요 경제·사회 동향

○ 더욱 가까워진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고속철도 계획

-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큰 교통 프로젝트인 쿠알라룸푸르-싱가포르 고속 철도프로젝트가 곧 체결될 것으로 예상됨
- 입찰은 올해 말에 열릴 예정임. 중국이 입찰을 받는다면 HSR(Hainan High Speed Rail) 라인이 쿠알라룸푸르-싱가포르 고속 철도 프로젝트의 모델로서 사용될지도 모름
- 지난 몇 년 동안 몇몇 국가는 HSR 기술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음

(출처 : New Straits Times, 2016.7.10)

- 싱가포르-말레이시아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2026년 완료될 것
 -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를 연결하는 350km 구간의 고속철도 건설이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됨
 - 7월 19일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는 고속철도 프로젝트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음
 - 말레이시아 총리는 공동기자회견에서 고속철도 프로젝트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경제 활동을 활발하게 만들 뿐 아니라 좋은 승수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언급
(출처 : New Straits Times, 2016.7.19)

나. 관광정책 및 업계동향

□ 관광정책 및 유치활동

- 말레이시아 내 외국인 사절단의 안전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 취해
 - 말레이시아 정부는 말레이시아 내 외국인 사절단과 국민들의 안전과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왔다고 외교부 장관이 언급
 - 외교부는 쿠알라룸푸르 소재 미국 대사관이 수요일 발표한 보안메시지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음. 이 메시지에는 미국 시민들이 이동을 하는 동안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되어 있음
 - 이 메시지는 여행권고가 아니고 외국 대사관이 자국 시민의 안전 경계심 유지를 위해 보안 메시지를 발표하는 보통의 관행이라고 외교부 장관은 언급했음
(출처 : New Straits Times, 2016.7.9)
- 말라카를 더럽히는 관광객에게 벌금 부과
 - 역사적인 관광 도시 말라카가 쓰레기로 인해 더러워지고 있음
 - 말라카 시의회는 하리라야 기간 동안 존커 워크와 스타더이스, 말라카 해양 박물관 등과 같은 곳에 쓰레기가 많이 쌓였다고 언급. 15명의 국내외 관광객에게 쓰레기를 버린 것에 대해 각각 100링깃의 벌금을 부과함
 - 아울러 세 가지 주요 영역에 더 크고 많은 쓰레기통을 배치하고, 존커 워크를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언급
(출처 : New Straights Times, 2016.7.9)
- 중동 관광객에 대한 비자 요구 제안사항 거부
 - 관광문화부 장관은 중동 사람들에게 비자를 부과하자는 국가 안전 보장 회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말함

- 비자 요구 제안을 거절한 첫 번째 이유는 테러 위협은 비자 발급 관련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안전 문제이므로 중동 관광객에 대한 비자를 부과하는 것 대신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함
- 두 번째는 테러가 중동뿐 만 아니라 세계 많은 지역에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중동 관광객에 대해서만 새로운 비자 판결을 부과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함
- 세 번째는 비자 부과 및 면제는 양자 간 협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자를 부과하기 전에 모든 중동 국가들과 논의해야한다고 함
- 마지막으로 장관은 이슬람 협력기구(OIC) 구성원 대부분은 모든 중동 국가와 좋은 외교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태롭게 만들고 싶지 않다고 언급하고, 내각은 이와 같은 4가지 이유로 제안을 거절했음

(출처 : New Straits Times , 2016.7.13)

□ 항공업계 동향

○ 말레이시아 항공, '2016 세계 항공사 어워드'에서 34위 기록, 10단계 하락

- 말레이시아 항공(MAS)은 스카이 트랙스(Skytrax)가 발표한 "2016 세계 항공사 어워드"에 따르면 세계 34위를 기록함
- 전체 순위에서 말레이시아 항공은 지난해에 비해 10단계가 떨어진 34위를 기록했고, 에어 아시아는 지난해에 비해 2단계가 올라 23위를 기록
- 승객들이 선택하는 상으로 잘 알려진 이 상은 전 세계의 많은 여행자들이 수상자를 결정하기 위해서 매년 항공사 승객 만족 조사에 참가한다고 함

(출처 : New Straights Times, 2016.7.14)

○ 공항 새로운 보안 메커니즘 도입

- 교통부 차관은 공항에 새로운 보안 메커니즘을 가능한 빨리 도입할 것이라고 하고, 2016 아시아 태평양 지역 협동 항공 보안 계획 운영 위원회에서 브뤼셀, 벨기에, 이스탄불, 터키의 공격 이후 공항의 보안과 안전을 증가시켜야한다고 말했음
- 정부는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모든 주요 공항에서 항공사 승객만이 터미널에 들어가도록 허락해야 한다는 내각의 제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고했음

(출처 : New Straits Times, 2016.7.21)

□ 여행업계 동향

- ‘사바 투어리즘’ 사바주 관광 촉진 위해 SNS 활용 강화
 - 사바 투어리즘 회장은 사바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SNS 마케팅을 강화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최근 ‘사바 투어리즘’ 페이스북 등 다양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아름다운 사바주 2.0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언급
 - 또한, 현재 짧은 동영상 제작하고 있으며 관광산업에서 사바관광이 온라인으로 강한 존재감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함
(출처 : The star, 2016.7.16)
- 말레이시아 관광공사-말레이시아 항공 관광 촉진을 위해 협력
 - 말레이시아 관광공사와 말레이시아 항공(MAB)은 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상호 협력을 갱신
 - 대형 팸투어 프로그램은 말레이시아를 레저 및 비즈니스의 목적지로서 폭 넓게 홍보하고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 수 있는 말레이시아 관광공사의 가장 효과적인 노력의 하나로 말레이시아 항공은 이 프로그램에서 외국 언론사와 여행사에 항공권을 후원하기로 함
 - 이 공동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은 2016년 7월에 시작해서 12월에 종료되고,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총 50,542명이 이 프로그램에 참석했음
(출처 : Travel Daily News, 2016.7.20)

다. 국내외 여행 동향

- 사바주 중국인 관광객 증가
 - 사바주를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지난 해 비해 55.8% 증가했음
 - 한국은 33.4% 증가했고, 대만 등 다른 아시아 국가도 약 34.8% 증가했음
 - 제주항공 부사장은 빈번한 직항노선이 관광객 증가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언급
(출처 : New Straits Times, 2016.7.21)

라. 경쟁국 동향

- 일본 쇼핑 축제 개최
 - 2016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일본 전국에서 일본 쇼핑 축제가 개최됨
 - 일본 쇼핑 축제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1년에 두 번 개최되는 일본 최대의 쇼핑 캠페인 중 하나임

- 백화점, 쇼핑몰, 아울렛 매장 등 전국 500개 이상 상점은 일본 쇼핑 축제 기간 동안 특별프로모션, 할인과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함
- 세토 우치 등과 같은 일본의 유명한 관광 명소에서는 재미있고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함
(출처 : Japan National Tourism Organization, 2016.7.14)

○ 아나 항공(ANA) 쿠알라룸푸르-하네다 신규 항로 개설

- 아나 항공은 10월 30일부터 하네다-쿠알라룸푸르 사이의 새로운 항공편 운항을 시작함
- 아나 항공은 나리타공항과 쿠알라룸푸르 사이에서 기존의 주간 서비스 외에 새롭게 야간 서비스도 제공함으로써 일본과 말레이시아를 여행할 때 관광객이 더 많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아나 항공은 지속적으로 승객 편의성을 개선하고 비즈니스 및 관광대상으로 일본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적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음
(출처 : Japan National Tourism Organization, 2016.7.14)

마. 관광통계

□ 출입국 동향

(단위 : 명, %)

월	입국		
	2015년	2016년	증감률
1월	2,291,603	2,376,166	3.7
2월	1,949,016	2,091,098	7.3
3월	2,242,077	2,198,716	-1.9
4월	6,482,696	6,665,980	2.8
5월	-	-	-
6월	-	-	-
7월	-	-	-
8월	-	-	-
9월	-	-	-
10월	-	-	-
11월	-	-	-
12월	-	-	-
누계	6,482,696	6,665,980	2.8

□ 국가별 입국 동향

(단위: 명, %)

출발국가 → 말레이시아	2016년 3월 입국자 수			2016년 1월 ~ 3월 입국자 수 누계		
	2015년	2016년	증감률	2015년	2016년	증감률
싱 가 포 르	1,124,697	1,125,822	0.1	3,241,651	3,258,047	0.5
인 도 네 시 아	237,776	218,080	-8.3	671,211	726,143	8.2
브 루 나 이	110,717	123,867	11.9	305,899	321,285	5.0
중 국	123,778	169,575	37.0	379,265	512,943	35.2
태 국	113,472	149,245	31.5	311,064	409,742	31.7
인 도	61,404	52,193	-15.0	177,196	168,922	-4.7
필 리 핀	48,199	29,184	-39.5	138,803	113,119	-18.5
호 주	36,562	28,017	-23.4	121,037	97,599	-19.4
일 본	45,729	38,412	-16.0	125,339	111,952	-10.7
영 국	40,138	40,459	0.8	110,528	113,199	2.4
한 국	29,366	30,563	4.1	121,178	139,845	15.4
방 글 라 데 시	13,954	6,988	-49.9	50,708	36,287	-28.4
네 팔	17,21	10,193	-40.1	47,235	28,764	-39.1
미 국	22,478	19,106	-15.0	63,449	59,991	-5.5
베 트 남	23,442	14,375	-38.7	54,593	46,518	-14.8
대 만	19,268	19,769	2.6	69,436	75,497	8.7
미 안 마	6,904	3,287	-52.4	22,207	14,255	-35.8
독 일	16,231	13,137	-19.1	41,979	38,543	-8.2
프 랑 스	14,501	11,601	-20.0	42,197	38,673	-8.4
파 키 스 탄	9,927	5,469	-44.9	22,801	14,884	-34.7
캐 나 다	8,470	6,794	-19.8	24,029	23,317	-3.0
네 델 란 드	6,988	3,207	-54.1	21,030	15,197	-27.7
러 시 아	5,198	3,639	-30.0	19,798	18,654	-5.8
이 란	10,720	5,424	-49.4	21,278	17,964	-15.6
캄 보 디 아	5,870	4,788	-18.4	16,756	16,132	-3.7
뉴 질 란 드	4,679	3,830	-18.1	14,200	12,810	-9.8
스 리 랑 카	4,275	1,837	-57.0	10,825	8,968	-17.2
스 웨 덴	3,684	3,127	-15.1	14,052	14,157	0.7
이 탈 리 아	4,590	2,196	-52.2	13,644	9,961	-27.0
사우디아라비아	9,936	11,526	16.0	23,665	28,509	20.5
기 타	33,402	19,539	-41.5	100,372	88,094	-12.2

3. 태국

가. 관광정책 및 업계동향

□ 관광정책 및 유치활동

○ TAT, 20개년 새로운 관광 프로젝트 수립

- 태국 관광청, 동북부 칸깐에서 개최된 연례 TAT 총회에서 새로운 관광 전략 발표
- 새로운 관광 전략은 '안정, 번영, 지속 가능성'의 슬로건 하에 정부에 의해 행해지는 '타일랜드 4.0'이라고 불리는 20개년 개선 사업(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설계
- 프로젝트의 목적은 태국 관광 산업의 고급화, 체계화이며, 메인 슬로건은 '안정, 번영, 그리고 지속 가능성'임
- 태국 관광청장, 20개년 관광프로젝트를 통해 태국을 '가성비가 좋은 여행지'에서 '경험의 질이 좋은 여행지'로 바꿀 것이라고 밝힘
- 향후 태국 내 중·소규모 여행사들, 지역 협회들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여 가치있는 여행 상품 개발에 초점을 둘 것임
-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관광지로 '치앙라이'주를 선정하였으며, 그 중 가장 먼저 '치앙쎄'지역을 녹색 성장을 기초로 한 관광지로 개발할 것이라고 밝힘
- 2017년, 국내관광객 10% 증가(9500억 바트), 해외관광객 10% 증가(1조 8900억 바트)
목표 : 아세안 5개국(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 태국)의 대표자들이 TTM(태국관광교역전)에서 국가 간 관광 동맹을 체결함
(출처 : Traveledaily Asia, 2016.7.12)

○ TAT, 중국 포털 '바이두'와 MOU 체결

- TAT, 중국 관광객 적극 유치 정책의 일환으로 일평균 1억명의 사용자가 이용하는 중국 최대 포털사이트 '바이두'와 MOU 체결
-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중국 대중에게 태국 내 유명 관광지와 관광 상품을 폭넓게 홍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향후 바이두 맵을 이용하여 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들이 태국 관광지, 음식점 및 기타 서비스 정보를 제공 받게 될 것임
(출처 : Traveledaily Asia, 2016.7.15)

○ 태국 여성 관광장관, 성매매 관광 근절을 위한 노력

- 태국의 첫 여성 관광장관 께깐 왓타나와랑꾼은 태국의 뿌리 깊은 성매매 관광을 근절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사를 표명
- 목표는 태국이 성 산업 관광지라는 오명을 벗고, 고급스럽고 깨끗한 관광지로 거듭나 부유한 여행객을 보다 많이 유치하는 것임
- 현재 태국 경찰들이 태국 내 주요 유흥지의 성매매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점차 확대될 것으로 추정
- 태국 내 성매매는 1960년대 이후부터 불법이 되었으나, 현재 약 12만명의 노동자가 태국 내 성매매 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알려짐
(출처 : Theweek, 2016.7.18)

나. 국내외 여행 동향

○ 태국인, 관광객들 중 스마트폰 중독 세계 최고

- 호텔의 닷컴에 의하면 여행자들은 일광욕이나 관광을 즐기는 것보다 많은 시간을 스마트폰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태국인들은 여행 중 또는 휴일에 소셜미디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평균 거의 4시간을 사용하며 낮에 2시간 정도를 소모. 또한 응답자의 67%는 모바일폰으로 호텔을 예약함
- 호텔닷컴의 5월 여론조사에서 태국인은 상위 9개국 중 가장 오랜 시간 사용하였고, 다음으로 인디아 3.3시간, 말레이시아 3.2시간, 중국 3.1시간 순으로 나타남
(출처 : 방콕포스트, 2016.7.21)

○ 태국 체육관광부, 라오스 연계 관광 상품 적극 개발

- 태국 관광체육부, 태국을 동남아 지역의 관광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태국-라오스 연계 관광 상품 개발을 추진함
- 6~7일, 태국, 라오스 정상회담에서 각 국 총리는 태국-라오스 연계 관광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의향을 나타냄
- 올 해 말, 브라우트 찬오차 총리의 라오스 방문 시, 해당 연계 관광상품에 대한 정식 협약이 이루어질 예정임
- 이번 정상회담에서 태국, 라오스 양국 총리는 태국 내 라오스 노동자들의 태국 입국 조건을 완화하는 협약을 체결함

(출처 : Bangkok post, 2016.7.6)

○ 2016년 상반기 일본 방문 태국 관광객 15% 증가

- 일본관광청, 올 상반기 방일 태국관광객 수가 전년대비 14.7% 증가한 48만 6천여명으로 집계된 것으로 발표
- 특히, 태국 최대 명절인 송크란 연휴가 있는 4월 한 달의 방일 태국인 관광객 수는 13만여 명임
- 중국, 한국, 대만, 홍콩을 이어 아시아에서 일본을 가장 많이 방문한 국가 5위 기록
- 이외 아세안 국가(필리핀, 미얀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올 한해 방일 관광객 수가 전년대비 30% 증가

(출처 : Bangkok post, 2016.7.20)

○ 5일간의 장기 연휴에 27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태국 국내 여행

- 정부가 18일(월)을 공식 휴일로 제정하면서 5일 간의 장기 연휴(16일~20일) 발생
- 태국관광청은 해당 기간 태국 국내 관광객 수가 270만명 이상이라고 발표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1.9% 증가한 수치임
- 이번 연휴동안의 관광소득은 41,866백만 바트로 전년대비 10% 증가한 수치이며, 특히 태국인 단체 관광객 소비액이 18,911백만 바트로 전년대비 15% 증가함
- 해당기간 내·외국인 여행객의 선호여행지는 방콕, 촌부리, 나컨라차시마, 아유타야, 칸차 나부리의 순으로 나타남

(출처 : Thansettakij, 2016.7.22)

○ 태국관광청, 내국인관광객 코사무이 방문 촉진을 위한 캠페인 실시

- 태국 관광청, 5월 방콕에어웨이와 협력하여 항공, 숙박, 공항리무진을 포함하여 최저 7,500바트에 구매할 수 있는 패키지 출시
- 또한, 10월 '사무이에서의 럭셔리한 경험(Luxperience)' 캠페인을 실시하여 국내 관광객을 적극 유치할 계획임
- 코사무이를 종 전 외국인 관광객을 타겟으로 한 고가의 여행지에서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고급 여행지로 재단장하기 위해 노력
- 내국인 관광객의 코사무이 증가 추세에 힘입어 올 해 코사무이를 방문할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20% 증가한 3백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

(출처 : Bangkok post, 2016.7.22)

다. 관광통계

□ 출입국 동향

(단위 : 명, %)

월	입국		
	2015년	2016년	증감률
1월	2,610,141	3,001,327	15.0
2월	2,663,650	3,088,876	16.0
3월	2,555,362	2,948,690	15.4
4월	2,407,458	2,643,251	9.8
5월	2,301,696	2,476,505	7.6
6월	2,269,561	2,433,255	7.2
7월	2,657,993	2,946,286	10.9
8월	-	-	-
9월	-	-	-
10월	-	-	-
11월	-	-	-
12월	-	-	-
누계	17,465,861	19,538,190	12.0

□ 국가별 입국 동향

(단위 : 명, %)

출발국가 → 태국	2016년 7월 입국자 수			2016년 1월 ~ 7월 입국자 수 누계		
	2015년	2016년	증감률	2015년	2016년	증감률
대 한 민 국	121,499	134,310	10.5	759,795	859,809	13.2
일 본	111,394	117,425	5.4	787,152	806,886	2.5
대 만	54,927	48,891	-11.0	358,713	320,033	-10.8
홍 콩	79,485	84,475	6.3	417,224	445,145	6.7
말 레 이 시 아	288,133	288,877	0.3	1,963,097	2,027,057	3.3
인 도 네 시 아	54,865	64,491	17.5	283,947	315,690	11.2
싱 가 포 르	71,575	73,152	2.2	531,370	545,449	2.7
베 트 남	89,978	106,273	18.1	488,819	521,077	6.6
인 도	90,034	104,761	16.4	616,154	696,673	13.1
중 국	775,829	865,355	11.5	4,782,413	5,764,839	20.5
이 스 라 엘	13,648	14,905	9.2	77,684	82,810	6.6
미 국	70,255	80,957	15.2	497,210	568,351	14.3
캐 나 다	15,991	17,466	9.2	138,865	148,431	6.9
영 국	80,449	86,028	6.9	543,082	588,160	8.3
독 일	42,721	50,621	18.5	431,018	476,210	10.5
프 랑 스	56,832	62,049	9.2	416,365	450,784	8.3
스 페 인	19,315	21,707	12.4	70,542	79,362	12.5
러 시 아	39,614	47,941	21.0	506,071	599,141	18.4
덴 마 크	13,128	13,655	4.0	108,033	114,159	5.7

4. 인도

가. 주요 경제·사회 동향

- 영국, 인도와 포스트 브렉시트 관련으로 무역회담 시작
 - 영국 경제부 장관은 인도를 방문하여, 7월 8일 인도 상공부 장관과 영국과 인도 간의 FTA 체결 가능성에 대하여 논의
 - 영국은 G-20회원국 중 인도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나라이며, 인도 역시 영국의 세 번째로 큰 투자국이며, 인도 상공부 장관은 브렉시트로 인해 현재 협상중인 인도-EU FTA 수정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 (출처 : The Hindu, 2016.7.9)

나. 관광정책 및 업계동향

□ 관광정책 및 유치활동

- 인도정부는 36개국 대상으로 e-비자 시설 확충 계획
 - e-비자 제도의 성공적 운영결과에 따라, 인도관광부는 이란, 이탈리아, 이집트 등 36개국 대상으로 온라인 비자를 확충할 계획임
 - 정부에서 승인이 되면 총 186개국이 온라인 비자로 인도여행이 가능
 - 온라인 비자는 2013년 11월에 시작되었으며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471,909명의 관광객이 e-관광비자로 입국하였으며, 이는 전년 동기 126,214명에 비해 273.9% 성장한 수치임

(출처 : Travel Biz Monitor, 2016.7.13)

- 인도 중앙정부, 고아 관광개발을 위해서 100크로 예산 할당
 - 인도 중앙정부는 고아의 관광 인프라를 개발하기 위하여 100크로 예산을 할당하였으며, 고아관광개발공사는 아구아다 감옥을 재건하고 고아의 관광명소를 만들기 위해 안다만 셀룰러 감옥을 만들 계획임
 - 고아관광개발공사는 아구아다 감옥 재건에 32크로를 집행할 계획

(출처 : Travel Biz Monitor, 2016.7.12)

- 인도 의료관광객 급증에 따른 의료관광 전담기관 설립
 - 인도 정부의 적극적인 의료관광 육성정책에 힘입어 인도 의료관광객수가 급증하고 있음

- 인도 정부가 발급한 의료관광 비자(Medical Visa) 발급건수는 2013년 56,129건에서 2014년 75,671건, 2015년 134,344건으로 매년 폭증하고 있으며, 2016년 상반기 또한 96,856건으로 전년대비 급증함
- 인도 관광부 장관은 인도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근 의료관광 전담 기관인 National Medical and Wellness Tourism Board(NMWTB)를 설립하였음을 발표함
(출처 : Travel Biz Monitor, 2016.7.12)

□ 항공업계 동향

- 제트항공사 기내 반입 가방에 대하여 900루피 부과
 - 제트항공사를 이용하는 모든 승객들은 국내선 항공의 기내 반입 가방에 대하여 900루피를 내야 함
 - 이 규정은 7월 15일부터 시행되며 뭄바이, 델리, 콜카타, 벵갈루루, 첸나이, 하이데라바드에서 출발하는 국내선 항공에 해당
(출처 : Travel Biz Monitor, 2016.7.18)

□ MICE산업 동향

- 인도정부, MICE 참가자들을 위한 e-비자 승인
 - 1년 이상의 검토 끝에 인도 정부는 MICE 행사 참가자들을 위한 e-비자 제도를 곧 도입할 예정임
 - 인도 내무부는 관광부의 MICE 참가자들을 위한 e-비자 도입에 대해 반대하였으나 관광부의 거듭된 요청에 따라 조건부 승인을 할 예정임
 - 인도 관광부는 비즈니스 여행자들이 출장 등을 위해 e-비자를 받을 수 있는데, 컨퍼런스 참가를 위한 e-비자를 못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다만 컨퍼런스 주제가 인도에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닌 것에 한하여 승인될 예정
(출처 : The Indian Express, 2016.7.18)

다. 국내외 여행 동향

- 호주, 2016년 5월에 인도 관광객 17% 증가
 - 호주관광청 2016년 5월 통계에서 인도관광객의 호주 방문이 최고치인 27,400명 기록하여 전년 동기대비 18% 증가. 2015년 6월부터 금년 5월까지 238,000명을 기록하여 전년 동

기대비 8% 증가. 인도는 호주 인바운드 시장에서 9번째로 큰 시장임

- 2016년 3월까지 인도 관광객들은 호주에서 호주달러 약 10억달러를 지출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19% 증가. 인도관광객의 67%는 레저 목적으로 호주를 방문하여, 인도 관광객은 10% 증가된 평균 5,215 호주달러를 지출. 또한 47% 재방문율과 함께 인도로부터 오는 모든 방문객의 평균 체류기간은 65박으로 나타남

(출처 : Travel Biz Monitor, 2016.7.12)

○ 브렉시트 영향으로 영국여행 패키지 10% 가격인하

- 브렉시트 영향으로 영국여행 패키지 가격이 저렴해졌으며 항공료 및 비자를 제외한 비용이 10% 정도 떨어짐
- 7박 패키지는 커플기준으로 INR 1.8렉 정도이었으나, 이제는 INR 1.62렉 정도이며, 브렉시트 전에는 5박 기준으로 호텔 및 투어 비용은 인당 65,510루피였으나 현재는 61,770루피까지 인하
- Cox & Kings 여행사 관계자는 여행요금은 최소 10% 인하될 것이며, 영국은 인도 여행객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목적지이며, 2015년에는 인도인들이 약 45만명 방문하였고, 금년에는 15% 이상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출처 : Travel Biz Monitor, 2016.7.12)

○ 싱가포르항공 및 싱가포르관광청 패키지 런칭

- 싱가포르관광청과 싱가포르항공은 싱가포르 여행 패키지를 런칭하였으며 인도의 뭄바이, 델리, 벵갈루루 등 11개 도시로부터 22,000루피 왕복 항공요금 제시
- 뭄바이 및 델리에서 출발하는 여행자들은 프리미엄 이코노미 좌석을 38,000루피로 구매 가능하며, 이 할인정책은 7월 5일부터 31일까지 운영되고, 여행은 8월 30일 전까지 가능
- 싱가포르관광청은 50,000루피에 상당하는 부가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이는 25개 선택된 아울렛에서 Singapore 241 Passport 앱을 통해서 가능

(출처 : Travel Biz Monitor, 2016.7.7)

○ 네팔 관광청, 뭄바이에서 로드쇼 개최

- 네팔항공과 네팔관광청은 7월 5일 뭄바이에서 로드쇼를 개최하였으며, 8개 네팔 여행사가 참가하여 인도 여행사들과 네트워킹 실시
- 네팔관광청 관계자는 인도는 네팔의 주요 관광시장이며 네팔은 인도관광객에 문화적 측면에서 관광목적지임. 네팔에서는 힌도를 사용하므로 언어적 문제도 없으며 여러모로 여행의 용이성 때문에 인도인들은 네팔 여행을 즐긴다고 밝힘

- 2015년 지진은 네팔 인바운드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작년 통계치에서도 급락을 보였음. 인도인들은 작년에 75,000명이 항공으로 방문하였고 금년에는 큰 폭의 증가세를 기대
- 네팔 항공은 텔리로부터 카트만두까지 주 11회 운항중이며, 뭄바이 및 방갈루루에서는 주 3회 운항중임. 텔리로부터의 로드팩터는 124,000이며 2대의 신규 항공기를 도입할 계획에 있음

(출처 : Travel Biz Monitor, 2016.7.7)

라. 관광통계

□ 출입국 동향

(단위 : 명, %)

월	입국		
	2014년	2015년	증감률
1월	757,786	790,100	4.3
2월	755,678	761,487	0.8
3월	690,441	729,636	5.7
4월	535,321	539,748	0.8
5월	465,043	510,736	9.8
6월	502,028	513,427	2.3
7월	568,871	633,347	11.3
8월	575,750	589,098	2.3
9월	509,142	-	-
10월	668,398	-	-
11월	765,497	-	-
12월	885,144	-	-
누계	7,679,099	5,067,579	4.5

5. 중동

가. 주요 경제·사회 동향

- 두바이 통계청(DSC)의 자료에 의하면, 두바이의 올해 상반기 물가가 전년 동기간 대비 1.8% 상승하였음. 이는 교육비가 5.8% 상승하였고, 장바구니 물가의 43.7%를 차지하는 주

택·수도·전력·가스 및 연료 품목이 3.9% 상승한 결과로 나타남. 또한, 식음료(2.0%), 레스토랑·호텔 품목(0.9%)이 상승하였고, 교통 품목은 4.3% 하락함

- 카타르 계획·통계청(MDPS)의 카타르 경제전망 2016-2018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사상 초유의 저유가 사태에도 카타르의 경제성장률은 2016년 3.9%, 2017년 2.8%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함. 이어 현재 경제 침체기를 겪고 있는 것은 확실하나 비석유부문의 경제 성장이 이를 뒷받침해 카타르의 2016-2018년도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평균 3.6%를 예상함. 반면, 외부경상수지가 저유가의 악영향을 받아 2016년도에 작은 규모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만약 유가가 2017-2018년도에 걸쳐 회복된다면 경상수지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설명함

나. 관광정책 및 업계동향

□ 관광정책 및 유치활동

- 아부다비는 7월부터 아부다비의 공항에서 환승 및 출발하는 승객들에게 35디르함(약 1만1천원)의 공항세를 추가로 부과. 아부다비는 두바이와 샤르자에 유사한 35디르함의 공항세가 도입된 지 2달 만에 새로운 공항세를 발표하였으며, 올해 7월부터 2세 미만 승객, 동일한 항공편으로 환승하는 승객, 항공사 승무원을 제외한 아부다비의 모든 공항에서 환승 및 출발하는 승객에게 적용될 예정임
- 사우디아라비아는 경제개혁안 '사우디비전2030'의 실행 계획을 담은 '국가 개조 계획(National Transformation Plan)'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르면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기존 280억 달러(약 32조 9천억원)에서 66% 증가한 466억 달러(약 54조 7천억 원)를 투자한다고 밝힘. 이는 2012년도까지 움라(비정기) 성지순례객을 현재 600만 명에서 1,500만명으로 2배 이상 유치하고, 하지 성지순례객을 현재 150만명에서 250만명까지 증가시킬 계획임
- 아부다비 크루즈 터미널은 지난해 개항 이후 2015-2016년 기간 동안 2014-2015년 자이드 포트 터미널의 성과대비 크루즈 관광객이 231,660명으로 16% 증가하였고, 입항횟수는 113회로 20% 증가함. 동 터미널의 이번 성과는 10년전 자이드 포트 터미널의 크루즈 승객이 35,366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으며, 주요 관광객으로는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의 국적이 80%를 차지함
- 카타르 관광청(QTA)은 7월6일로 예상하는 이드 첫날부터 5일간 'Capture Joy' 라는 테마

의 이드축제가 개최되고, 8월1일부터 올해 3번째를 맞이하는 여름축제(Summer Festival)를 한 달간 개최한다고 밝힘

- 연구조사기업 BMI사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카타르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전년대비 5.4% 증가한 31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함. 또한, 2020년도까지 관광산업이 꾸준히 성장하여 약 40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수입액은 119억 달러(약 13조 5,351억원)가 될 것으로 전망함

□ 항공업계 동향

- 에미레이트항공은 영국의 항공전문 평가 및 리서치 기관인 스카이트렉스가 선정한 '2016 올해의 항공사' 상을 수상함. 동 항공사는 올해까지 4번째로 '2016 올해의 항공사' 상을 수상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카타르항공이 2위, 싱가포르항공이 3위를 차지하였음
- 두바이에 기반을 둔 저가항공사인 플라이두바이는 올해 11월 29일부터 태국의 수도인 방콕 취항 계획을 발표함. 이는 현재 플라이두바이가 취항하는 목적지 중 가장 긴 노선으로 보잉 737 기종으로 매일 2회 운항할 예정임

□ 여행업계 동향

- UAE의 여행업계 대표 및 분석가들에 의하면, 머물다(stay)와 휴가(vacation)를 합성한 신조어로 멀리 나가지 않고 집이나 집 근방에서 휴가를 즐기는 것을 의미하는 스테이케이션(staycation) 현상이 UAE에서도 매년 증가하고 있음. Sharaf Travel 여행사의 대표는 이번 여름기간 현지의 고급 리조트와 호텔의 다양한 프로모션으로 인해 현지 소비자들이 스테이케이션(staycation)을 가장 선호하는 추세라고 밝힘
- 두바이의 여행사 관계자들에 의하면, 최근 이스탄불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로 인해 UAE의 일부 여행객들이 이드 휴가기간 터키여행을 취소하였다고 밝힘. 국제 컨설팅회사 Euromonitor의 분석가에 의하면, 빈번한 테러 위협으로 인해 터키를 방문하는 여행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6년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10%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UAE의 두바이공항에 따르면, UAE소재 학교의 여름방학 시작과 이드 알피트르 공휴일이 시작되는 7월 1일과 8일이 포함된 주말기간에 두바이 공항을 이용하여 출국하는 여행객 수는 2백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호텔업계 동향

- 국제 자문회사 EY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 5월 UAE 호텔의 평균객실료 하락에 따른 호텔매출이 하락함. 두바이의 5월 호텔점유율은 동기간 전년대비 1.5% 약간 감소하여 84%를 유지했지만, 평균객실료가 5.4% 하락한 812디르함(약 25만 6천원), 객실당 매출은 7% 하락한 682디르함(약 21만 5천원)으로 나타났고, 아부다비의 객실당 매출도 동기간 전년대비 8.9% 하락한 341디르함(약 11만 8천원)으로 나타남
- 연구조사 기업 STR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중동은 새로운 550개의 호텔과 154,576실의 객실을 건설 중이며, 건설이 진행 중인 객실 수는 전년 동월대비 23% 증가 하였음.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건설이 진행 중인 객실 수는 사우디아라비아(81개의 호텔에서 35,770실)가 가장 많았고, 그 외에도 아랍에미리트(93개의 호텔에서 26,989실), 카타르(30개의 호텔에서 7,125실), 이집트(18개의 호텔에서 6,095실) 등으로 나타남

□ MICE산업 동향

- 두바이국제전시장(DWTC)에서 발표한 2015년 연말결산보고서에 의하면, '15년 개최된 전시, 컨벤션 및 컨퍼런스가 두바이 경제에 기여한 보유가치액은 32.6억달러에 이른 것으로 조사됨. 또한 두바이국제전시장 중동지역의 MICE산업의 허브로 15'년 104개의 큰 규모의 이벤트를 개최하여 260만명의 방문객을 모객 하였고, 그 중 119만명이 해외방문객으로 집계됨
- 올해로 19번째 맞이하는 '두바이 섬머 서프라이즈(DSS)' 여름 세일 축제가 7월 9일부터 8월 20일까지 43일간 개최됨. 동 축제기간동안 두바이의 다양한 쇼핑몰에서 세계적인 스타의 공연, 인기 만화캐릭터 쇼, 각종 브랜드 및 레스토랑·호텔 할인, 경품행사 등이 마련될 예정임

6. 인도네시아

가. 주요 경제·사회 동향

- 인도네시아인들 국내여행 급증
 - 개인소득 증가와 중산층 성장으로 국내여행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국내선 항공승객 수가 지난 5월에 690만명을 기록. 월간 국내선 항공승객 수는 사상 최고 수준임

- 인도네시아인들은 북부 수마트라주에 위치한 세계 최대 화산호수 또바, 동부 누사틍가라주에 있는 어촌 라부안바조, 코모도섬 리짜섬 등을 선호함
(출처 : Jakarta Post, 2016.7.12)

나. 관광정책 및 업계동향

□ 관광정책 및 유치활동

○ 외국인 대상 복수사증 유효기간 5년

- 복수 사증의 유효 기간을 발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정부령 ‘2016년 제 26호’(Peraturan Pemerintah Nomor 26 Tahun 2016)가 승인됨
- 금번 정부령은 기존 입국 관리에 관한 법률 ‘2011년 제 6 호’의 실시 규정(시행 세칙)에 해당하는 정령 ‘2013년 제 31 호’를 개정한 것으로 수차 비자의 유효 기간을 5년으로 정한 것 이외에도 공용, 외교관 수차 비자의 유효 기간을 12개월로 규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또한 신 정부령 조항은 그간 체류 기간 연장이 불가능했던 복수 사증은 1회당 최대 60일 동안, 총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명시함
(출처 : Delik, 2016.7.13)

□ 항공업계 동향

○ 라이언에어, 마나도-중국 노선 잇달아 취항

- 인도네시아 최대 민자 항공사 라이언 에어가 북부 술라웨시 마나도와 중국을 잇는 정기편 운항에 나섬. 앞서 4일 마나도~마카오 항공편, 8일에는 마나도~광둥성 심천 항공편을 각각 취항했으며, 12일에는 마나도~상하이 노선을 취항함
- 현지언론에 따르면 라이언 에어는 연말까지 마나도와 충칭시, 호북성 무한시, 호남성 장사시를 각각 연결하는 항공편도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힘
- 라이언 에어 회장은 “중국을 잇는 정기편 운항에 따라 연말까지 3만 명의 중국인 관광객을 마나도로 불러들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2015년도 인도의 인아웃바운드 총량은 4,900만명으로 추산되며, 국제여객 수송 10대 항공사 중 6개가 중동국가 항공사로 Emirates(537만명), Etihad(214만명), Qatar Airways(209만명), Air Arabia(177만명), Saudi Arabian(140만명), Oman Air(138만명) 순
(출처 : Jakarta Globe. 2016.7.5)

다. 관광 통계

□ 출입국 동향

(단위 : 명, %)

월	입국			출국		
	2015년	2016년	증감률	2015년	2016년	증감률
1월	785,523	814,303	3.7	-	-	-
2월	843,928	888,309	5.3	-	-	-
3월	841,071	915,019	8.8	2,040,450	2,070,000	1.4
4월	801,193	901,095	12.5	-	-	-
5월	852,388	915,206	7.4	-	-	-
6월	871,636	857,651	-1.6	2,050,890	-	-
7월	879,815	-	-	-	-	-
8월	911,704	-	-	-	-	-
9월	919,408	-	-	2,228,210	-	-
10월	877,621	-	-	-	-	-
11월	836,133	-	-	-	-	-
12월	986,339	-	-	2,033,530	-	-
누계	10,406,759	5,291,583	5.9	8,353,080	2,070,000	-

□ 국가별 입국 동향

(단위 : 명, %)

출발국가 → 인도네시아	2016년 6월 입국자 수			2016년 1월 ~ 6월 입국자 수 누계		
	2015년	2016년	증감률	2015년	2016년	증감률
대 한 민 국	25,574	26,084	2.0	171,500	174,280	1.6
일 본	37,187	37,104	-0.2	227,957	243,349	6.8
대 만	20,161	18,590	-7.8	102,896	105,299	2.3
홍 콩	4,254	7,390	73.7	42,476	41,922	-1.3
태 국	7,303	6,553	-10.3	46,620	46,712	0.2
말 레 이 시 아	98,239	72,115	-26.6	606,478	601,422	-0.8
필 리 핀	11,181	11,486	2.7	65,853	73,490	11.6
싱 가 포 르	149,492	134,490	-10.0	736,508	746,401	1.3
인 도	27,498	34,863	26.8	135,431	186,911	38.0
중 국	91,038	111,175	22.1	541,551	685,074	26.5
아 랍 에 미 리 트	414	119	-71.3	3,395	3,105	-8.5
미 국	22,944	25,966	13.2	118,367	143,789	21.5
영 국	22,892	26,079	13.9	115,948	148,126	27.8
독 일	14,609	15,318	4.9	77,395	95,454	23.3
프 랑 스	13,660	16,297	19.3	82,825	102,110	23.3
러 시 아	5,437	4,985	-8.3	31,322	37,172	18.7
오 스트 레 일 리 아	101,959	114,677	12.5	518,575	572,362	10.4

7. 베트남

가. 관광통계

□ 출입국 동향

(단위 : 명, %)

월	입국		
	2015년	2016년	증감률
1월	700,692	805,072	14.9
2월	756,600	833,598	10.2
3월	617,895	820,480	32.8
4월	690,440	789,484	14.3
5월	576,868	757,244	31.3
6월	529,445	700,446	32.3
7월	593,566	846,311	42.6
8월	664,985	-	-
9월	626,324	-	-
10월	649,099	-	-
11월	732,740	-	-
12월	760,798	-	-
누계	7,899,452	5,552,635	24.3

□ 국가별 입국 동향

(단위 : 명, %)

출발국가 → 베트남	2016년 7월 입국자 수			2016년 1월 ~ 7월 입국자 수 누계		
	2015년	2016년	증감률	2015년	2016년	증감률
대한민국	73,108	116,960	60.0	665,706	858,029	28.9
일본	50,221	57,389	14.3	373,070	413,275	10.8
대만	46,083	53,703	16.5	241,767	296,074	22.5
홍콩	1,958	2,963	51.3	9,511	19,397	103.9
태국	11,597	17,865	54.0	115,358	153,635	33.2
말레이시아	21,615	26,376	22.0	190,127	226,217	19.0
필리핀	7,563	8,695	15.0	57,011	61,169	7.3
인도네시아	6,535	18,193	178.4	38,860	50,194	29.2
싱가포르	16,177	16,938	4.7	127,760	141,650	10.9
중국	136,589	263,971	93.3	941,523	1,468,531	56.0
미국	45,229	51,520	13.9	302,695	344,480	13.8
캐나다	7,757	8,911	14.9	65,758	75,348	14.6
독일	8,705	10,550	21.2	68,612	97,421	42.0
프랑스	16,618	18,193	9.5	125,733	142,214	13.1
스페인	3,679	4,797	30.4	18,932	22,835	20.6
러시아	21,688	28,883	33.2	190,815	233,247	22.2
오스트레일리아	28,965	30,651	5.8	203,704	195,711	-3.9

8. 필리핀

가. 주요 경제·사회 동향

○ 필리핀 전자여권 8월부터 발급 개시 예정

- 필리핀 외교부와 MOU로 보안이 강화된 통합 전자여권시스템을 발급하는 APO Production Unit Inc.사는 8월부터 새로운 여권이 Batangas주의 Malvar 소재 인쇄공장에서 제작될 것이라고 밝힘
- 이 여권은 조작방지를 위해 내장된 칩에 생체 정보, 사진, 서명과 지문 등을 담게 됨
(출처 : Business Mirror, 2016.7.17)

○ 필리핀 3개 섬 Travel + Leisure 지 세계 최고의 섬으로 선정 발표

- 필리핀의 Palawan, Boracay와 Cebu가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여행잡지인 Travel + Leisure(T+L)가 실시한 2016 세계 최고의 섬으로 선정되었으며 1, 2위를 필리핀이 차지함
- 팔라완섬은 동 매체의 10대 'World's Best Islands'에서 최고 득점을 얻었고, 이 순위는 2013년 이후 두 번째임, 보라카이는 2등, 세부는 6위를 차지함
- T+L지의 작가(Melani Lieberman)와 투표자들은 "세계자연유산인 5마일 길이의 지하강으로 잘 알려져 있을 뿐 아니라 깨끗한 바다, 아름다운 해변은 꿈의 관광지"라고 언급
- 필리핀 외 최고의 섬으로 선정된 곳은 3위 Ischia(이탈리), 4위 Waiheke Island(뉴질랜드), 5위 Santorini(그리스), 7위 Maui(미국 하와이), 8위 Hilton Head(미국 South Carolina), 9위 Kauai(하와이), 10위 Bali(인도네시아) 등임
(출처 : Philippine Star, 2016.7.10)

나. 관광정책 및 업계 동향

□ 관광정책 및 유치활동

○ 필리핀 2017년 관광마케팅 예산 127억원 배정 요청 예정

- 필리핀관광마케팅공사(Tourism Promotions Board)는 판촉활동 개선을 위해 2017년 예산을 올해 115.6억원(4억 7562만페소)에서 내년에 약 127억원(5억 2300만 페소)으로 약 10% 늘려 필리핀예산관리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힘
- 관광마케팅공사는 관광법(2009년 제정)에 의해 정부로부터 매년 적어도 5억 페소의 예산을 받고 있으며, Duty Free Philippines Corp. 수입금의 1% 그리고 필리핀 유흥게임공사

(Philippine Amusement and Gaming Corp.) 및 해공항 수익금에서 나온 주식을 통해 예산 지원이 이뤄지고 있음

- 한편 필리핀관광부 신임장관(Wanda Corazon Teo)은 현재의 “It’s More Fun in the Philippines”관광슬로건을 당분간 계속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힘. 필리핀의 2016년 외래관광객 목표는 650만명이며 2022년까지 1200만명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출처 : Philippine Star, 2016.7.9)

○ 필리핀 관광공사 남중국해 판결에 따른 중국관광객 유치전략 변경

- 필리핀 관광공사(Tourism Promotions Board)는 중국인 유치와 관련하여 그룹투어 대신 안정적이며 고부가 가치 관광객 유치로 전략을 수정. 이는 최근 상설중재재판소의 남중국해(필리핀명: 서필리핀해)에 대한 판결 직후 중국의 반발 가능성에 따른 것임
- 필리핀관광공사는 “현재까지는 중국인관광객 취소 보고를 받은 바 없다”면서도 “관광공사는 이미 취소나 여행금지에 우선 영향을 받는 그룹투어나 전세기 시장보다는 MICE, 고부가 FIT, 중국 1선도시(상해, 광저우, 북경) 거주 외국인 시장에 더 초점을 맞춘 마케팅 전략을 취했다”고 밝힘
- 한편 2012년에 필리핀과 중국의 외교마찰이 있던 영향으로 중국관광객의 극적인 감소에 따라 외래관광객수가 430만명이었음
- 필리핀관광공사는 중국관광객 목표를 2016년 632,947명, 2017년 729,715명으로 잡고 있는 가운데 금년 1-4월간 중국인 방문객은 전년대비 89%가 증가한 238,524명이었음
(출처 : Business Mirror, 2016.7.14)

□ 항공업계 동향

○ 세부와 방콕간 직항편 10월 운항 개시 예정

- 태국 Smile Airways가 세부-방콕간 직항편을 10월부터 운항할 예정임, 태국항공의 자회사인 Smile Airways는 에어버스 320기종(162석)를 이용하여 1주일에 3번은 오전, 4번은 오후 양 도시를 운항할 예정임.
- 필리핀관광부 노선개발팀장(Erwin Balane)은 이번 신규 운항에 따라 세부 방문 국제선에서 연간 58,968 좌석이 추가된다고 밝힘
- 호주의 Center for Asia Pacific Aviation에 의하면 세부 Mactan 공항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성장하는 공항이라고 함. 세부 막탄공항은 연간 승객 이용 능력이 450만명이며 2018년 새 터미널이 완공되면 1250만명으로 늘어나게 됨
(출처 : Philippine Star, 2016.7.5)

□ 여행업계 동향

- 주 프랑스 필리핀 대사관 자국민들에게 여행 주의보 발령
 - 7.14 프랑스 니스 테러에 따라 프랑스 여행 자국민들에게 주의 당부
(출처 : Philippine Star, 2016.7.18)

□ 여행업계 동향

- 필리핀 관광부장관 ASEAN 50주년 계기 관련 행사 개최 적기라고
 - 필리핀 관광부장관은 세부에서 개최된 International Travel Festival 행사에서 “2017년 아세안 설립 50주년을 맞아, 2015년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한 경험이 있는 Cebu가 관련 행사 유치 등을 위해 역할을 할 수 있는 적기”라고 언급
 - 관광부장관은 농업관광, 의료관광과 은퇴자 서비스 부분의 잠재시장을 성장시키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고, 마닐라와 세부와 같은 주요도시가 출발지가 아닌 목적지가 될 수 있도록 부활시킬 계획이라고 밝힘
 - 2015년 필리핀 관광산업은 GDP에서 10.6%의 기여를 하였음. 관광부 통계에 의하면 외래 관광객은 2014년 480만명에서 2015년 530만명으로 증가했으며, 금년 들어 5월까지의 250만명을 돌파하였음. 관광부는 금년말까지 65억달러의 관광수입을 기대하고 있음
(출처 : Cebu Daily News, 2016.7.17)

다. 국내외 여행 동향

- 5개월간 필리핀 외래 방문객 증가세 지속
 - 1-5월간 필리핀 외래관광객은 전년대비 13%가 증가한 252만명(전년 222만명)이었으며, 관광수입은 전년(940억 페소)대비 14%가 증가한 1066억 페소(약 2조 6415억원)를 기록
 - 지난 5개월간 최대 시장 한국에서는 전체의 23%인 576,332명, 2위 시장 미국은 377,595명, 중국은 285,348명, 일본은 233,042명, 호주 108,382명이 필리핀을 방문. 관광수입부분으로는 한국이 75억 페소(약 1860억원), 미국 36억 페소(약 890억원), 일본 11억페소(약 270억원), 호주 8억 5400만 페소, 캐나다 7억 7000만페소를 소비하였음
 - 한편, 5월에는 전년대비 8% 증가한 445,449명이 방문하였으며 관광수입은 전년대비 19% 증가한 200억 페소(약 5천억원)을 기록함
 - 관광부는 2016년 목표로 외래관광객 650만명, 관광수입 65억달러를 발표한 바 있음
(출처 : Philippine Star, 2016.7.6)

라. 관광통계

□ 출입국 동향

(단위 : 명, %)

월	입국		
	2015년	2016년	증감률
1월	479,149	542,258	13.2
2월	456,524	549,725	20.4
3월	456,163	510,270	11.9
4월	423,366	471,598	11.4
5월	413,937	445,449	7.6
6월	390,486	-	-
7월	489,724	-	-
8월	480,689	-	-
9월	393,589	-	-
10월	412,185	-	-
11월	411,868	-	-
12월	553,002	-	-
누계	5,360,682	2,519,300	13.0

□ 국가별 입국 동향

(단위 : 명, %)

출발국가 → 필리핀	2016년 5월 입국자 수			2016년 1월 ~ 5월 입국자 수 누계		
	2015년	2016년	증감률	2015년	2016년	증감률
대한민국	94,086	94,736	0.7	546,031	576,332	5.6
미국	67,199	73,644	9.6	350,776	377,595	7.7
일본	37,102	39,422	6.3	204,704	223,042	9.0
중국	31,537	46,825	48.5	157,830	285,348	80.8
호주	18,750	19,886	6.1	102,323	108,382	5.9
대만	13,790	18,136	31.5	69,362	89,792	29.5
캐나다	13,152	14,052	6.8	73,898	82,340	11.4
싱가포르	17,363	14,723	-15.2	77,395	75,756	-2.1
말레이시아	14,690	12,076	-17.8	65,115	60,911	-6.5
영국	12,294	13,236	7.7	66,410	76,275	14.9
홍콩	10,586	9,355	-11.6	54,129	51,229	-5.4
독일	5,135	5,901	14.9	34,620	41,540	20.0
러시아	1,275	1,426	11.8	12,401	12,924	4.2
기타	76,978	82,031	6.6	414,145	457,834	10.6

9. 터키

가. 관광정책 및 업계 동향

□ 관광정책 및 유치활동

- 터키 군부 쿠데타 발생 후 공무원 여행제한조치 및 완화
 - 터키 군부 쿠데타 발생 후 터키정부는 공무원들의 해외 여행 및 출장을 한시적으로 연기함
 - 녹색과 회색 여권 소지자(특정 직업군, 시장, 운동선수, 국제조직 근무시민들)는 해외여행은 가능하나 특별 공문서를 소지해야 해외여행이 가능함
(출처 : EdeskNews, 2016.7.18)

○ 쿠데타 이후 터키 정세 및 관광 수요 전망

[최근 터키 정세]

- 현 집권당인 정의개발당(AKP)은 2003년 집권, 현 에르도안 대통령은 2003년부터 2014년까지 내각제 하의 총리를 역임
- 연임제한 문제에 직면하자 대통령선거를 직선제로 변경하여 2014년에 대통령으로 당선, 현재 대통령제 개헌 추진 중
 - * 헌법상으로 행정 수반은 여전히 총리지만 직선제 대통령이라는 점을 활용하여 사실상 대통령이 1인자로서 군림
- 이슬람주의를 표방하는 AKP정권은 히잡 착용 허용, 주세 대폭 인상 등 이슬람 친화적인 정책을 지속 추진
- 대통령은 최근 들어 반정부 성향 언론사를 폐간시키는 등 독재적인 모습에 비판이 많으나 터키경제를 성장시킨 점 때문에 여전히 압도적인 지지를 얻고 있음
 - * 집권 기간 동안 1인당 GDP 2배 이상 상승

[향후 전망 : 독재 강화, 이슬람화 지속에 따른 국제사회에서의 고립]

- 대통령제 개헌을 추진하고 있으나 집권당 의석이 개헌선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쿠데타 이후 개헌을 위한 강력한 동력을 확보, 개헌실현 후 독재 강화 전망
-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미 EU 가입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으며 미국 망명 중인 정적을 쿠데타 배후로 지목, 송환을 요구하고 미군이 사용하던 터키군 공군기지도 폐쇄하는 등 미국과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음

[관광 수요 전망 : 지속적 감소 예상]

- (관광산업 전체적 침체) △지속적인 테러 발생과 쿠데타로 올해 1~5월 인바운드 관광객 수 전년 동기 대비 23% 감소, △터키 인바운드 시장은 아웃바운드에 비해 규모가 4배 이상 크며, 대부분의 여행사들이 인바운드를 중심으로 사업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여행산업 전체가 침체될 전망
- (경제 침체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 불안정한 정세에 따라 외국인 투자 자금 유출, 경제 침체 및 터키 리라화 가치 지속 하락으로 수요 급감 예상
 - * 쿠데타 다음 날 달러화 대비 6% 하락, 원화 대비 환율은 2005년 터키 화폐개혁 이후 최저치
- (방한수요) △한-터 항공편은 현재 주16회 운행, 지금까지 90%정도를 한국인이 점유, △'16년 1~5월 터키 방문 한국인관광객 -52%로 급감, 추후 더 큰 폭의 감소 예상에 따라 항공사의 터키인 대상 판촉 확대 전망

(출처 : 관광시장조사팀 자체 수집·정리, 2016.7.19)

나. 국내외 여행 동향

○ 터키-러시아 양국간 관광교류 재개

- 모스크바 Vnukovo공항을 출발한 Rossiya항공사 여객기가 189명의 러시아 관광객을 싣고 7월 9일 오전 약 7시 30분경 안탈리아 공항에 착륙
-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전투기 격추사건 직후 내려진 러시아 내 터키방문 관광 상품 판매금지 조치를 6월 30일 부로 공식 해제한 후 첫 러시아 단체관광객 방문
(출처 : Daily hurriet, 2016.7.11., 13)

다. 관광통계

□ 출입국 동향

(단위 : 명, %)

월	입국			출국		
	2015년	2016년	증감률	2015년	2016년	증감률
1월	1,250,941	1,602	-99.9	1,078,559	13,773	-98.7
2월	1,383,343	1,639	-99.9	902,964	11,399	-98.7
3월	1,865,940	2,098	-99.9	1,004,715	8,830	-99.1
4월	2,437,263	2,242	-99.9	1,081,522	8,438	-99.2
5월	3,804,158	2,570	-99.9	1,156,381	9,516	-99.2
6월	4,123,109	2,377	-99.9	1,093,317	10,441	-99.0
7월	5,480,502	2,782	-99.9	1,195,022	-	-
8월	5,130,967	-	-	1,633,715	-	-
9월	4,251,870	-	-	1,397,692	-	-
10월	3,301,194	-	-	1,164,658	-	-
11월	1,720,554	-	-	1,040,166	-	-
12월	1,464,791	-	-	941,814	-	-
누계	36,244,632	15,310	-99.9	13,690,525	62,397	-99.0

□ 국가별 입국 동향

(단위: 명, %)

출발국가 → 터키	2016년 6월 입국자 수			2016년 1월 ~ 6월 입국자 수 누계		
	2015년	2016년	증감률	2015년	2016년	증감률
대 한 민 국	18,488	-	-	18,488	-	-
일 본	9,243	-	-	9,243	-	-
태 국	2,266	-	-	14,018	-	-
말 레 이 시 아	5,670	-	-	36,738	-	-
필 리 핀	8,860	-	-	35,424	-	-
인 도 네 시 아	3,975	-	-	29,336	-	-
싱 가 포 르	3,254	-	-	12,525	-	-
인 도	15,781	-	-	63,759	-	-
중 국	38,728	-	-	144,798	-	-
아 랍 에 미 리 트	1,600	-	-	21,334	-	-
미 국	114,338	-	-	346,691	-	-
캐 나 다	20,609	-	-	76,187	-	-
영 국	358,167	-	-	950,313	-	-
독 일	556,649	-	-	2,109,763	-	-
프 랑 스	75,300	-	-	327,789	-	-
스 페 인	24,697	-	-	108,924	-	-
러 시 아	652,703	-	-	1,454,618	-	-
오 스트 레 일 리 아	31,046	-	-	109,291	-	-

4

미주시장

1. 미국

가. 주요 경제·사회동향

○ 미국 달러화 강세로 인바운드 관광객 하락 추세

- 미국여행협회(U.S. Travel Association)의 여행 트렌드 지수(Travel Trends Index)에 따르면, 지난 3개월 동안 미국을 방문한 해외여행객수는 하락 추세이고, 이 추세는 올해가 갈 때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함
- 미국여행협회는 미국 달러화 강세가 인바운드 관광객 수 하락에 영향을 미쳤고, 특히 환율에 영향을 많이 받는 캐나다 관광객 수치가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함
- 그러나, 해외여행객 수와 국내 출장 여행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의 미국 여행지수는 증가세를 보였는데, 그 이유는 내국인의 국내 여가 여행이 증가한 것에 기인함
- 실제로 미국여행지수는 지난 77개월간 지속 성장세를 보였는데, 이런 추세는 올 연말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출처 : Travel Weekly, 2016.7.5)

나. 관광정책 및 업계동향

□ 관광정책 및 유치활동

○ 2024년 하계올림픽 유치 경쟁중인 LA시 “경기장 증개축” 계획 발표

- 2024년 하계올림픽 미국 개최를 위한 대표 도시로 유치 경쟁에 나선 LA시가 올림픽 개최를 위한 첨단 경기장 시설 업그레이드 계획을 공개하고 유치 노력을 본격화하고 있음
- LA시 2024년 올림픽 유치위원회는 올림픽 주경기장으로 쓰일 USC 인근 LA 메모리얼 콜로세움 증개축 조감도와 함께 USC 캠퍼스에 들어설 첨단 수영경기장 조감도를 공개
- LA시 올림픽 유치위원회는 현재 메모리얼 콜로세움을 사용하고 있는 USC와 함께 총 2억 7,000만 달러를 투입해 메모리얼 콜로세움을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 할 계획임
- 또한, 이미 올림픽 선수촌을 UCLA에, 그리고 전 세계 취재진들이 모일 미디어 센터는 USC에 설치하기로 하는 등 주요 시설 운용계획을 발표

(출처 : 미주한국일보, 2016.7.30)

□ 항공업계 동향

- ‘브렉시트’ 이후 미국-영국간 항공료 평균 15% 하락
 -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결정 이후 미국-영국 간 항공요금이 평균 1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보스턴의 온라인 항공요금 비교사이트 호퍼닷컴(Hopper.com)이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브렉시트’ 투표 이후 미국에서 스코틀랜드 에든버러나 영국 런던 맨체스터행 항공요금이 7~18%까지 떨어졌다고 LA타임스가 보도함
 - 현재 인터넷상 LA-런던 왕복요금은 평균 1,800-1,900달러, 뉴욕-런던은 1,200-1,300달러 수준임. 호퍼닷컴 측은 낮은 항공요금이 얼마나 오래갈 지는 미국인들의 수요증가에 달렸지만 현재보다 더 낮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함
- (출처 : 미주중앙일보, 2016.7.12)

□ 여행업계 동향

- 미국 라스베이거스 방문객, 지난 해 역대 최고
 - ‘도박의 도시’ 미국 라스베이거스를 지난해 찾은 방문객은 4,230만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평균 1,166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조사됨
 - 라스베이거스 컨벤션관광청(LVCVA)의 보고서에 따르면, 라스베이거스를 찾은 방문객들은 지난해 도박·관광·유흥 등으로 1인 평균 1,166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집계됨
 - 총비용 가운데 도박자금인 전체의 36%인 422달러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식음료비 292달러, 호텔 숙박비 172달러, 쇼핑 122달러, 쇼 관람 61달러, 관광 15달러, 기타 잡비 82달러 순이었음
- (출처 : 미주한국일보, 2016.7.13)

□ 관광시설 등 기타 동향

- 미국 내 가장 혼잡한 공항, 시카고 오헤어 확장
 - 미국에서 항공기 이착륙이 가장 많은 공항으로 손꼽히는 시카고 오헤어국제공항의 국제선 청사가 혼잡 및 운항지연 완화 등을 목적으로 개장 후 첫 확장공사를 추진함. 오헤어 국제공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정기 직항노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미 중서부 관문 역할을 함
 - 시카고시는 지난 15일 오헤어국제공항 신규 확장과 현대화 계획을 발표함. ‘21세기 오헤어

공항 이니셔티브'로 이름 붙은 이 계획의 핵심내용은 국제선 청사(5청사)에 탑승구 9개 이상을 추가 건설하고, 2청사를 오헤어공항의 중앙 터미널로 확대 재개발하는 것 등임
(출처 : 미주한국일보, 2016.7.16)

나. 국내외 여행 동향

○ 미국 여행객, 과거 여행지 재방문을 감소

- 미국 소비자 여행 보고서(U.S. Consumer Travel Report)에 따르면, 작년 한해 미국 여행객 중 26%만이 과거에 방문했던 관광지를 다시 방문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는 전년 대비 4% 감소한 수치임
- 이 같은 재방문을 감소는 여행객들이 새로운 곳을 더 많이 방문하길 원하고, 여행예산, 여행자 나이, 여행 동기를 자극하는 소셜미디어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 리서치 관계자에 따르면, 멕시코, 카리브해와 같은 가까운 지역 해변가의 관광지들은 관광객이 많이 감소한 것에 비해 유럽(10%), 아시아(46%), 중남미(21%) 같은 원거리 관광지 및 자연 관광 명소로 유명한 곳들은 관광 수요가 증가함
- 또한, 여행자들은 3년 전에 비해 작년 한해 여행경비로 23%나 더 지출한 것으로 조사됨. 소비자들의 여행예산 증가로 해외여행 시 장거리 항공편 이용 및 장기간 체류가 가능해졌고, 이와 더불어 소셜미디어의 영향도 여행객들에게 새로운 곳으로의 여행에 대한 자극을 준 것으로 나타남

(출처 : Travel Daily News, 2016.7.18)

○ 미국 국립공원 여행 선호도 과거에 비해 대폭 상승

- 미국자동차협회(The American Automobile Association)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자 중 40% 정도가 2017년에 다른 관광지보다 국립공원을 방문하겠다고 밝힘
- 응답자의 37%가 향후 12개월 동안 국립공원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고 답변했고, 42%는 내년 국립공원 방문계획에 변함이 없고, 나머지 21%는 방문 가능성이 적다고 답변함
-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여행수단으로는 91%가 자가운전, 비행기(18%), 기차(10%), 버스(10%), 그리고 크루즈나 배를 타고 가겠다고 답한 비율은 7%였음(복수응답 결과)
- 또한, 응답자가 뽑은 가장 가고 싶은 국립공원 관광지로는 옐로우스톤, 요세미티, 그리고 그랜드캐년 국립공원이 뽑힘

(출처 : Travel Weekly, 2016.7.28)

다. 경쟁국 동향

○ 버지니아항공 및 싱가포르항공, 최고의 항공사로 선정

- 미국 버지니아항공이 세계적인 여행전문지 '트래블앤레저(Travel+Leisure)' 매거진이 발표한 '2016 월드 베스트 어워드 (World's Best Awards for 2016)'에서 9년 연속 최고 항공사로 선정되었고, 싱가포르항공은 21년 연속 최고 국제 항공사로 선정됨
- 트래블앤레저 어워드는 항공 산업 분야에서 소비자 평점을 기반으로 항공사들을 매년 평가하고 있으며, 버지니아 항공은 2007년 처음 사업을 시작한 이후 2008년부터 매년 트래블앤레저 어워드 평가에서 최고의 미국 항공사로 선정되어 왔음
- 또한, 싱가포르 항공은 트래블앤레저 매거진이 1996년 '월드 베스트 어워드'를 처음 발표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최고의 국제 항공사 자리를 항상 차지해 오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항공사 이외에도 창이 국제공항이 3년 연속 최고의 국제공항으로 선정됨. 뒤를 이어 두바이 국제공항, 홍콩 국제공항, 인천 국제공항 그리고 취리히 공항이 탑 5 국제공항에 선정됨
(출처 : USA TODAY, 2016.7.11)

○ 지난해 미국 방문객 중 중국인 관광객 지출 순위 1위

- 지난해 미국 방문객 가운데 중국인들의 현지 지출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남. 지난해 중국인 방문객의 미국 내 지출은 총 269억 달러를 기록, 1년 전 기록한 219억 달러에 비해 12%의 증가율을 보임
- 지난 2009년 36억 달러 수준이었던 중국인들의 미국 방문 지출액은 2010년 50억 달러로 늘어난데 이어 2011년과 2012년 각각 77억 달러와 88억 달러로 급증. 이후 2013년에는 211억 달러로 두 배 이상 급증한 바 있음
- 한편, 2009년 52만여 명 수준이던 미국 방문 중국인 숫자도 급격한 증가를 기록하며 2011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선 이후 2014년에는 218만 명을 기록함
(출처 : 미주헤럴드경제, 2016.7.20)

라. 관광통계

□ 출입국 동향

(단위 : 명, %)

월	입국			출국		
	2015년	2016년	증감률	2015년	2016년	증감률
1월	5,481,897	5,511,366	0.5	4,861,589	-	-
2월	4,881,351	4,865,293	-0.3	4,696,331	-	-
3월	6,154,941	6,148,538	-0.1	5,797,906	-	-
4월	6,502,575	-	-	5,473,174	-	-
5월	6,850,889	-	-	6,324,384	-	-
6월	6,193,105	-	-	7,700,607	-	-
7월	7,832,770	-	-	8,235,479	-	-
8월	8,130,021	-	-	7,023,668	-	-
9월	6,511,580	-	-	5,750,404	-	-
10월	6,593,625	-	-	5,459,158	-	-
11월	6,045,992	-	-	5,346,432	-	-
12월	6,331,536	-	-	6,783,984	-	-
누계	77,510,282	16,525,197	-	73,453,116	-	-

□ 국가별 입국 동향

(단위 : 명, %)

출발국가 → 미국	2016년 3월 입국자 수			2016년 1월 ~ 3월 입국자 수 누계		
	2015년	2016년	증감률	2015년	2016년	증감률
대한민국	112,599	125,228	11.2	390,006	455,481	16.8
일본	348,405	336,108	-3.5	899,494	903,420	0.4
인도	67,583	74,039	9.6	197,195	220,706	11.9
중국	149,611	161,426	7.9	566,541	661,988	16.8
캐나다	2,077,077	1,798,325	-13.4	5,063,473	4,385,631	-13.4
영국	377,854	407,236	7.8	832,548	917,076	10.2
독일	204,295	182,513	-10.7	423,124	408,695	-3.4
프랑스	106,757	100,756	-5.6	289,933	287,056	-1.0
스페인	62,996	71,920	14.2	134,768	151,100	12.1
오스트레일리아	93,624	89,108	-4.8	259,889	268,876	3.5

2. 캐나다

가. 주요 경제·사회 동향

- 16년 2분기 알버타주를 제외한 캐나다 전역 소비지출액 크게 증가
 - 캐나다 대표 직불/신용 카드결제사인 Moneris Solutions Corp. 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6년 2분기 캐나다 내 소비지출액(카드결제금액)이 알버타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전년 동기대비 평균 5.53% 증가하였으며, 7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음. 반면, 알버타주는 에너지 산업 의존도가 높은데다 지난 5월 발생한 포트 맥머레이 대형 산불의 영향으로 유일하게 소비지출액이 전년 동기대비 2.9% 하락함
 - 가장 강한 소비 증가세를 보인 지역은 온타리오주와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주로, 각각 8.35%, 8.11%를 기록. 또한, 캐나다 달러 약세로 인바운드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2분기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동기대비 9.49%나 증가
 - 3분기에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인데다 유로존, 브라질 올림픽 등이 개최되므로, 특히 식음료 부문을 중심으로 소비지출액이 매우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출처 : CBC News, 2016.7.19)

나. 관광정책 및 업계동향

□ 관광정책 및 유치활동

- 에너지산업 중심지 알버타주, 관광산업을 통한 경제 회복에 총력 다해
 - 대표적인 원유생산 지역인 알버타주는 국제 원유가격 하락으로 지역경제 전반이 크게 침체되어 있지만, 관광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 활황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알버타주 내 지역 간 관광산업 성장의 불균형이 심각한 것이 문제로, 록키산맥 주변의 Banff, Jasper 등 유명 국립공원을 찾은 관광객 수는 전년대비 5~16%의 높은 성장세를 보인 반면, 그 외 지역은 오히려 호텔 객실당 평균수입이 25% 가량 크게 감소한 것으로 드러남
 - 이에 알버타주는 역내 관광객 지역 분산을 위해 록키산맥 주변 국립공원 외 아름다운 해안가를 따라 달리는 로드 트립 등을 새로운 관광명소로 집중 홍보하고, Fort Edmonton 유적지 확장에 3,350만 달러(약 295억 원)의 기금을 투입하는 등 자연경관 외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다양하게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임
 - 전 세계가 저성장 시대의 탈출구로서 관광산업의 가치를 높게 보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에너지산업의 중심지인 캐나다 알버타주 역시 관광산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 내고, 궁극적으로 에너지 산업 의존도를 점차 낮추는 등 경제구조를 다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출처: Travel Industry Today, 2016.7.10)

□ 항공업계 동향

○ 캐나다 민간 항공 관세료 평균 7.6% 인하 예정(9.1~)

- Nav Canada(캐나다 민간 항공 관제소), 오는 9월 1일부터 캐나다 이착륙 또는 캐나다 영공을 통과하는 항공기에 부과하는 관세료를 평균 7.6% 인하할 계획임을 발표. 이에 내년 회계연도부터 항공사들은 최대 1억달러까지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Nav Canada는 그 동안 항공 교통량 증가에 따른 수익성 개선, 경영 효율성 제고 등으로 오는 8월말 기준 사내 비상기금이 1.5억불 이상 축적된 것을 활용할 목적으로 이번 관세료 인하를 결정함

* Nav Canada는 1996년 연방정부로부터 '비영리 운영'을 조건으로 민영화된 바 있음

- Air Canada, WestJet 등 주요 항공사들은 세계 무대에서 더욱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며 자축하지만, 관세료 인하가 소비자가 체감하는 항공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임. Nav Canada가 부과하는 관세료는 탑승객 수와 관계없이 항공기의 무게, 운항 거리 등을 기초로 책정되고 있는데다, 보통 항공 가격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 시장 경쟁구조, 지역별 제세금, 환율 등 여러 가변적인 요소에 두루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

(출처 : Financial Post, Toronto Star, 2016.7.18)

다. 국내외 여행 동향

○ 2016년 4월 캐나다 아웃바운드 관광 통계

- '16년 4월 6캐나다인의 해외 여행객 수는 전년 동월대비 8.9% 감소한 2,750,486명으로, 이 중 58.5%인 1,610,310명이 미국을 여행한 것으로 파악됨
- '16년 1~4월 누적 캐나다인의 해외여행객 수는 총 10,913,706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6.3% 감소하는 등 캐나다 자국 화폐가치 약세 장기화 및 최근 알버타주 대형 화재 등으로 해외여행 수요가 위축되고 있음
- '16년 1~4월 누적 미국을 방문한 캐나다인은 총 5,995,024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14.2% 감소하고, 미국 외 지역을 여행한 캐나다인은 총 4,918,682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5.6% 증가하는 등 캐나다인의 해외여행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에도 관광목적지는 점차 다양해지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인접국 미국을 여행하는 경우가 전체 아웃바운드 시장의 54.9%에 달함
(출처 : Tourism Snapshot, Destination Canada, 2016.7.15)

○ 2016년 4월 캐나다 인바운드 관광 통계

- '16년 4월 캐나다 인바운드 관광객은 전년 동기대비 10% 증가한 1,134,495명 기록, 1~4월 누적 인바운드 관광객 수는 3,847,834명으로 전년대비 14.7%로 크게 증가함
- '16년 4월 미국인 관광객 수는 801,425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1% 증가, 1~4월 누적 미국인 관광객 수는 2,696,522명으로 전년대비 17.1% 증가함
- '16년 4월 항공좌석수의 감소 영향으로 영국인 관광객(39,529명)은 전년 동기대비 2.3% 감소하였으며, 독일인 관광객(17,562명)은 유로화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어 전년 동기대비 10.9% 증가함. 또, 프랑스인 관광객(29,800명) 역시 4월 항공좌석 수가 다소 줄어든 만큼 전년 동기대비 1.6% 증가하는 데 그침
- '16년 4월 중국인 관광객은 32,575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24% 증가, 한국인 관광객은 13,855명으로 32.3% 증가. 이는 양국 간 직항노선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항공좌석-중국 20.4%↑, 한국 21.7%↑)이며, 호주 관광객은 14,576명으로 전년대비 16.5% 증가, 일본 관광객 역시 15,802명으로 전년대비 5.1% 증가
- 남미지역 대표시장 멕시코와 브라질 1~4월 누적 입국자 수는 전년 동기대비 16.5% 증가 (멕시코 약 6.1만명, 25.7% / 브라질 약 2.7만명, 0.1%↑)
(출처 : Tourism Snapshot, Destination Canada, 2016.7.15)

라. 경쟁국 동향

○ 도쿄관광청, 소매여행사 대상 'Discover Tokyo and Beyond' 프로모션 실시

- 도쿄관광청은 캐나다 현지 도매여행사 Goway 및 JAL 항공사와 손잡고 소매여행사 직원을 대상으로 방일상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프로모션 이벤트(7.1~10.31)를 진행 중임. 즉, 해당기간 중 Goway Travel의 일본 상품을 예약하는 에이전트는 매 예약시마다 1매의 경품응모권을 얻게 되며, JAL 항공권으로 예약할 경우 경품응모권 1매가 추가로 지급. 이벤트 종료 후 응모권 추첨을 통해 당첨자는 Goway社の 'A taste of Japan' 여행상품권과 왕복 항공권(JAL)을 경품으로 지급받게 됨
- 또한, 현지 여행업계 대상 7월 온라인 교육(Webinar) 및 10월 로드쇼(토론토, 알버타, 밴쿠버) 행사를 본 프로모션 이벤트와 연계하여 해당 행사 참가자에게도 경품응모권을 1매씩 지급하는 등 방일상품 판매 촉진을 위한 B2B 마케팅을 활발하게 전개 중임
(출처 : PAX News West, 2016.7.19)

마. 관광통계

□ 출입국 동향

(단위 : 명, %)

월	입국			출국		
	2015년	2016년	증감률	2015년	2016년	증감률
1월	739,462	786,533	6.4	2,778,735	2,690,524	-3.2
2월	754,842	881,682	16.8	2,448,266	2,346,927	-4.1
3월	851,385	1,042,478	22.4	3,392,094	3,126,686	-7.8
4월	1,010,406	1,134,495	12.3	3,019,346	2,750,486	-8.9
5월	1,554,373	1,663,583	7.0	2,747,025	2,622,861	-4.5
6월	2,210,267	-	-	2,220,277	-	-
7월	2,859,347	-	-	3,016,748	-	-
8월	2,606,613	-	-	3,535,961	-	-
9월	1,874,385	-	-	2,394,150	-	-
10월	1,303,132	-	-	2,272,112	-	-
11월	854,303	-	-	2,230,678	-	-
12월	1,186,408	-	-	2,167,252	-	-
누계	17,804,923	5,508,771	12.2	32,222,644	13,537,484	-5.8

□ 국가별 입국 동향

(단위 : 명, %)

출발국가 → 캐나다	2016년 6월 입국자 수			2016년 1월 ~ 6월 입국자 수 누계		
	2015년	2016년	증감률	2015년	2016년	증감률
대한민국	19,841	21,143	6.6	61,373	70,530	14.9
일본	25,140	22,482	-10.6	86,198	87,849	1.9
대만	7,161	8,896	24.2	21,154	26,634	25.9
홍콩	14,138	14,138	-	48,666	48,162	-1.0
인도	27,330	29,314	7.3	67,316	71,263	5.9
중국	41,364	50,295	21.6	150,581	173,542	15.2
미국	1,096,166	1,154,078	5.3	3,398,777	3,850,600	13.3
영국	68,051	73,890	8.6	205,187	218,516	6.5
독일	34,813	36,011	3.4	89,906	96,818	7.7
프랑스	40,878	40,529	-0.9	141,909	145,521	2.5
스페인	5,441	6,383	17.3	15,281	18,156	18.8
오스트레일리아	36,705	35,203	-4.1	91,802	94,140	2.5

5

유럽시장

1. 영국

가. 주요 경제·사회 동향

○ 영국 브렉시트 이후 인종 차별성 범죄 증가

- 최근 통계에 따르면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한 후 인종 차별성 범죄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영국 경찰이 만든 증오 범죄(hate-crime) 신고용 온라인 웹사이트 ‘트루비전(True Vision)’에는 국민투표 결과 발표 후 지난주까지 증오범죄 신고가 평소의 다섯 배 이상으로 증가하여 주당 평균 63건에 달하는 총 331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트루비전은 증오 범죄를 ‘어느 사람의 장애, 인종, 민족, 종교, 믿음, 성적 지향, 트랜스젠더 정체성 때문에 적개심 혹은 편견을 갖고 표적으로 삼아 이루어진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인종차별성 범죄 증가는 영국 유럽연합 탈퇴 결정이 도화선이 되었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이슬람 혐오와 유럽 이민자 혐오 공격이 주로 발생하고 있음
(출처 : Guardian, 2016.7.1)

나. 관광정책 및 업계동향

□ 관광정책 및 유치활동

○ 영국관광공사 국제 여행상품 트레이드 웹사이트 개설

- 영국관광공사에서는 지난 주 새로운 영국관광공사의 국제 트레이드 및 업체 디렉토리 웹사이트를 론칭함
- 공급업체 디렉토리는 해외 여행업자들에게 영국 패키지 상품과 일정을 구성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업체들은 무료로 등록이 가능함
- 영국의 여행관련 업체들은 해당 사이트에서 판매 관련 정보, 추가 이미지와 소셜미디어 링크를 추가할 수 있음

(출처 : VisitBritain, 2016.7.19)

□ MICE 산업동향

○ 영국 이벤트 예산 지출 상승세

- 분기별 마케팅 전조 조사 보고서인 IPA 동향 지표 보고서(Bellwether report)에 따르면, 이벤트 지출의 올해 2분기의 순지불잔액(net balance)이 1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이벤트 지출이 1분기보다 6.3% 가파른 상승을 보였으며, 총 10.7%의 회사들이 예산을 확대 수정할 것으로 조사되면서 따라서 마케팅 예산 역시 증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한편 이번 보고서는 브렉시트 투표 전에 조사된 것으로 성장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마케팅 담당자들 사이에서 시장의 불확실성 역시 보여주고 있음
- 68%의 기업들이 지난 분기 동안 예산을 동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며, 이는 지출 증가로 이어졌음. 또한 현장 이벤트, 인터넷 그리고 주요 미디어 광고 부분 예산 증가를 보임
- 한편 브렉시트를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인해 광고 지출 예산을 2016년 -0.2%에서 2017년 -1.3%로 하락 조정함
(출처 : citmagazine, 2016.7.13)

다. 국내외 여행 동향

○ 브렉시트 이후 영국인 500만명 해외 휴가 보류

- 영국인 10명 중 한 명 꼴로 브렉시트 이후 불확실성으로 인해 2016년 해외 휴가를 보류할 것으로 나타남
- 영국 최대 할인 코드 웹사이트 바우처코드스(VoucherCodes.co.uk)가 실시한 조사에서 유럽연합 탈퇴 투표 결과 후 인구의 5%가량이 정국이 안정될 때까지 휴가 예약을 연기하겠다고 밝혔으며, 또 다른 5%의 응답자들은 해외여행 대신 국내 여행(Staycation)으로 일정을 변경했다고 답함
-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2,500만명의 영국인들이 국내에서 휴가를 보낼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브렉시트 투표 당일 조사 결과보다 250만명이 증가한 수치임
- 바우처코드스는 전년보다 7%(450만명)가 증가한 51%의 영국인들이 국내 휴가를 즐길 것으로 분석함
- 국내 여행자들의 평균 지출은 686파운드로 전년 442파운드보다 55% 증가한 반면 15%는 브렉시트 이후 여름 휴가비용을 더 적게 쓸 것이라고 밝힘
(출처 : Travelmole, 2016.7.7)

라. 경쟁국 동향

○ 두바이 새로운 테마 파크 커미션 티켓 판매

- 올해 10월 두바이에 개장하는 새로운 대규모 테마파크의 커미션 티켓판매가 시작될 것임
- 바헤드 트레블(Barrhead Trave), 골드 메달(Gold Medal), 트레블 2(Travel 2) 그리고 토마스 쿡(Thomas Cook)은 두바이 파크 앤 리조트(Dubai Parks and Resorts)와 패키지상품 및 티켓 판매를 위해 공동 마케팅 계약을 체결함
- 두바이 테마파크는 레고랜드(Legoland), 레고랜드 워터 파크(Legoland Water Park), 모션게이트 두바이(Motiongate Dubai) 그리고 발리우드 공원(Bollywood parks)의 총 4가지 테마공원으로 이루어지며 모든 공원은 쇼핑, 식사 그리고 엔터테인먼트가 가능한 리버랜드 두바이(River Dubai)로 연결이 됨
- 세계 각 관광지 티켓 판매 전문 웹사이트 dosomethingdifferent.com과 Attraction World 역시 두바이 테마 파크 티켓을 판매할 것임. 이번 두바이 테마 파크 개장이 근본적으로 두바이와 아부다비 상품 판매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출처 : Travel weekly, 2016.7.11)

○ 베트남 정부 영국인 관광객 대상 무비자 시행 연장

- 베트남 정부는 영국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2017년 6월 30일까지 단일 입국 최대 15일까지 무비자 허용 정책을 연장하기로 함
- 2015년 7월 1일 처음으로 시행된 이번 정책은 프랑스, 독일, 스페인 그리고 이탈리아 국적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됨
- 베트남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상반기 동안 470만명 입국으로 전년대비 21.3% 증가율을 보였고, 또한 연간 관광수입이 22% 증가하여 68억 파운드(VND200조)를 기록하였음
- 베트남 항공은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베트남을 오가는 주 6회 직항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 6월부터 하노이 직항 노선을 추가함에 따라 주 7회 서비스 운영을 하게 되고, 이에 맞추어 무비자 프로그램 역시 연장됨
(출처 : Travel weekly, 2016.7.11)

마. 관광통계

□ 출입국 동향

(단위 : 명, %)

월	입국			출국		
	2015년	2016년	증감률	2015년	2016년	증감률
1월	2,391,646	2,540,000	6.2	3,902,990	3,660,000	6.2
2월	2,077,378	2,250,000	8.3	3,435,670	4,170,000	21.4
3월	2,406,121	2,570,000	6.8	4,184,937	4,320,000	3.2
4월	3,140,281	3,060,000	-2.6	5,491,644	5,970,000	8.7
5월	3,562,560	-	-	6,009,472	-	-
6월	3,236,643	-	-	6,482,809	-	-
7월	3,709,580	-	-	6,798,682	-	-
8월	3,707,619	-	-	8,584,458	-	-
9월	3,080,520	-	-	7,012,389	-	-
10월	3,370,000	-	-	5,800,000	-	-
11월	2,580,000	-	-	3,950,000	-	-
12월	2,520,000	-	-	3,660,000	-	-
누계	35,782,348	10,420,000	4.0	65,313,051	18,120,000	6.5

2. 프랑스

가. 주요 경제·사회 동향

○ 파리 시내 노후화 된 차량 통행금지 시행

- 휘발유차, 경유차를 막론하고 1997년 이전에 등록한 자동차는 7월1일부터 파리시내 주행이 엄격하게 금지, 파리 외곽에서만 주행이 가능함. 1997년 10월 이전 등록된 모든 화물차 및 1999년 6월 이전에 등록된 오토바이 역시 파리 시내 주행이 금지됨
- 이 제도 시행의 계도기간은 3개월로, 10월부터는 규정 위반 시 35유로의 벌금이 부과되며, 벌금을 내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운전자는 차량등록증을 반드시 제시해 보여야 함. 1년 후인 내년 7월부터는 2001년 이전에 등록된 모든 디젤차, 2006년 이전에 등록된 모든 화물차를 대상으로 파리 출입이 제한될 예정이어서 대상 차량은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출처 : Le figaro, Déplacement pros 등 다수 매체, 2016.7.1)

나. 관광정책 및 업계동향

□ 관광정책 및 유치활동

○ 2015년 프랑스 관광공사 국가 홍보 보조금 증가

- 2015년 예산 및 재정법령에 따라 프랑스 관광공사(Atout France)가 최초 국가로부터 보조 받은 금액은 3천4십만유로(약 410억원)이었지만, 최종적으로는 3천3백2십만유로(448억원)를 수령하여 2백8십만유로를 추가로 교부받은 것으로 밝혀짐
- 프랑스 관광공사는 절반정도의 예산이 공적기금을 통해 충당되는 국가 기관으로 인바운드 관광 진흥 예산은 사증 발급과 관계된 수익이 증가함에 따라 2016년도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힘
- 프랑스 관광은 국내 총생산의 7%, 직접 및 간접 고용 2백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작년 11월 테러 이후 정부의 특별한 관심 대상임

(출처 : Tour Hebdo, Quotidien du Tourisme 등 다수 매체, 2016.7.8)

□ 항공업계 동향

○ voyages-sncf 사이트와 리옹시, 3D 체험 프로그램 테스트

- 프랑스 철도공사는 홈페이지(voyages-sncf.com)를 통해 리옹(Lyon) 시 관광공사 컨벤션 뷰로와 공동으로 3D 헤드셋을 통해 도시 체험부터 승차권 구매에 이르기까지의 VR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힘
- 동 사이트는 현행 승차권 구매 패턴 확장을 원함. 현재 대부분 인터넷 승차권 구매에서 태블릿이나 모바일로 구매되어지고 있으나, 10년 후에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웹사이트나 어플이 더 이상 운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voyage-sncf 사이트의 운영자는 밝힘
- 미래 지향적인 방법으로, 철도공사의 자회사가 선택한 것은 삼성의 3D 헤드셋 기술로, 목적지의 관광지 소개, 여행선택(날짜, 객실, 요금제 등), 자리선택 등을 포함한 것임. 이 기술은 전통적인 클릭 대신에 1초간 시선을 고정하면 선택이 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 VR 서비스는 7월 중순부터 voyages-sncf 사이트에서 테스트 될 것이며, 첫 번째 목적지가 되는 도시는 리옹 시가 될 예정임

(출처 : Tour Hebdo, 2016.7.8)

○ 프랑스 철도공사, 파리-스트라스부르 구간 신규 고속철도 (LGV) 서비스 시행

- 지난 3일 첫 선을 보인 동부 엘제베(LGV) 노선, 파리(Paris)-스트라스부르(Strasbourg) 구

간은 기존 보다 34분 단축된 1시간 46분이 소요됨. 이는 프랑스에서 가장 빠른 테제베(TGV)임

- 지난 11월 스트라스부르 인근 탈선 사고로, 스트라스부르 시 인근에서는 테제베가 1개 선로로만 임시 운행함에 따라 파리-스트라스부르 구간이 1시간 46분 소요되는 것과 달리, 반대 방향인 스트라스부르-파리 구간은 당분간 1시간 49분 소요됨
- 매일 32개의 열차가 파리-스트라스부르 구간에 운영될 예정이며, 프랑스철도공사(SNCF)에 따르면 승차권의 가격은 합리적인 인상이 될 예정이라고 밝힘
- SNCF는 LGV 연간 이용객 수가 1210만명에서 매년 70만명 수준으로 증가하여 2020년에는 2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출처 : L'Echo Touristique, 2016.7.4)

□ MICE산업 동향

○ 유로 2016의 경제 효과, 긍정적

- 유로 2016의 경제 효과는 올 가을이 되어야 최종 확인될 예정이지만, 경기 초반의 예측을 보면 기대 이상일 것으로 보임. 스포츠 경제 연구소(CDES)는 이번 유로 2016 축구대회의 경제효과는 12억6천만유로로 추산한 바 있음
- 전 평균 40% 수준의 외국인 서포터즈들이 경기장에 입장할 것으로 예측했던 것과는 달리, 첫 주간 입장객 중 60% 이상이 외래객으로 매우 긍정적인 현상을 보임
- 또 다른 긍정적인 지표는 축구대회 기간 중 외래 관광객의 평균 체재 기간이 예측보다 길었던 점임. 이들은 최대 한달까지도 머무를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호텔요식업연합체(UMIH)는, 특히 경기가 진행되었던 도시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다고 확인함
- 다만, 툴루즈(Toulouse)와 파리(Paris) 두 곳의 도시만이 유로의 수혜를 입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파리의 경우 테러, 파업, 홍수, 날씨 등이 종합적으로 관광객들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었을 것으로 보임. 또한 파리에서 큰 폭으로 성장한 에어비앤비(Airbnb)와 같은 공유형 플랫폼 역시 기존 호텔의 점유율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임
(출처 : L'Obs, 2016.7.9)

다. 국내외 여행 동향

○ 프랑스 박물관, 문화유적지 방문 시 가이드 동행 의무화 법규정 공포

- 프랑스의 가이드(해설사)들은 지난 2016년 7월7일 공포된 법령 No 2016-925의 109조에

서 창작의 자유, 건축, 문화유산 관련법이 프랑스 내의 모든 박물관이나 역사 유적의 방문에 있어서 가이드(해설사)를 의무화한 것에 대해 만족을 표시함

- 가이드해설사 국가연맹(FNGIC)은 2016년 7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령 통과에 환호한 바 있음. 연맹은 문화홍보부(ministè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의 지원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기도 함. 연맹은 가이드(해설사)의 직업의 선택과 확산에도 정부가 나서줄 것을 요구하기도 함

(출처 : Tourmag, 2016.7.11)

3. 독일

가. 주요 경제·사회 동향

○ 독일, 잇따르는 테러 사건 소비행태에 영향 미쳐

- GfK 소비자 연구원은 최근 바이에른에서 벌어진 테러사건으로 인해 대다수의 독일인들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이 당분간 독일 내 소비의향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평가함
- GfK 관계자는 당분간 상점이 밀집한 시내 등 군중 밀집 지역을 회피할 수 있으며 온라인 거래가 이를 대체할 것이나 일반 매장의 매출손실이 얼마나 보상되어질지는 평가하기 어렵다고 전함
- 특히 휴가 여행도 비슷한 양상으로, 많은 독일인들이 전통적 인기 여행지인 터키 및 이집트를 여행을 피하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반사이익을 얻는 지역은 스페인임
- 한편, 독일인들의 일자리가 이러한 외부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한 소비경향 또한 일정수준이 유지될 것임. 독일인에 있어 일자리가 위협을 받을 때 소비가 위축되고 일자리의 안정성이 확인되면 소비심리가 되살아나는 경향이 여러 조사를 통해 입증됨

(출처 : FVW, 2016.7.27)

나. 관광정책 및 업계동향

□ 관광정책 및 유치활동

○ 관광세 제도, 독일인의 인기관광지 마요르카서 시행

- 독일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스페인의 휴양지 마요르카와 이비자를 포함한 발레아레스 제도에서 올해 7월1일자로 관광세가 시행됨. 숙박시설 종류에 따라 성인 한 명당 하루 50센

트에서 2유로까지이고 비성수기에는 50%만 부과되며 어린이와 17세 이하 청소년은 해당하지 않으나 크루즈 관광객과 별장 임대자에는 해당됨

- 이에 대해 마요르카 호텔업협회는 발레아레스 제도의 관광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며 유감을 표명한 반면, 관광장관 등은 관련 조직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알렸으며 이 제도가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한 것이라고 주 정부 웹사이트에 홍보함
- 독일 또한, 관광객들에게 요양세, 숙박세, 문화지원세 등을 부과하는 지역과 시가 존재하며 요양 및 휴양지는 이를 인상할 수 있음. 이러한 세수는 요양공원, 해변 및 기타 공공시설 등 관광지에 투자됨
- 독일 내 가장 높은 관광세는 성인 한 명당 하루 3.5유로로 바덴-바덴(바덴-뷔르템베르크 주), 바트키싱엔(바이에른 주), 북해 섬이 이에 해당하고, 최저로 카셀-바트빌헬름스회헤(헤센 주)의 50센트임
- 또한 쾰른 시에서 관광객들은 세금포함 숙박비의 5%, 베를린에서는 세금불포함 숙박비의 5%가 부과되고 드레스덴과 함부르크에서는 차등적으로 부과됨
(출처 : 슈피겔온라인, 2016.7.1)

□ 여행업계 동향

○ 독일 크루즈 시장 현황

- 2016년 2백만명이 넘는 독일인들이 크루즈관광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며 유례없는 활황기를 맞음. 따라서 관련 여행사 뿐 아니라 연관된 타 업종에까지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파악됨
- 독일 최대인 금속노동조합 IGM(Industriegewerkschaft Metall)조사에 따르면 2016년 주문된 55척의 대양 크루즈선박 중 54척이 유럽에서, 그 중 16척이 독일에서 완성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산업구조가 약한 지역에 약 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냄. 또한 루트를 따라 레스토랑, 쇼핑, 교통 등 정박지에서의 관광객의 소비를 유도함. 독일 내에서는 라인강과 도나우강을 따라 운영하는 크루즈가 가장 인기, 독일 남부 바이에른 주 레겐스부르크에만 매년 1000척의 크루즈가 정박하면서 12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효과가 있음
- 다만, 이러한 호황은 적절한 정책적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고 독일여행업협회는 밝힘
(출처 : 독일여행업협회 발행 2016 하계 DRV-Politikthemen, 2016.7.7)

다. 국내외 여행 동향

○ 독일국민, 여행지로 독일 1순위, 원거리는 미국 선호

- 미래사회 연구 재단인 Stiftung für Zukunftsfragen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독일이 자국민들의 가장 인기 있는 휴가지로 꼽힘
- 응답자의 약 20%가량이 독일을 우선1순위로 꼽았으며 바이에른, 북동부에 위치한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및 쉘레스비히홀슈타인 주가 가장 인기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국외여행지로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상위권을 차지했으며, 터키와 이집트도 이름을 올림. 원거리 지역에서는 미국이 1순위로 선호됨. 미국 관광협회 Visit USA와 미국 마케팅 The Brand USA에 따르면, 2015년 한 해만 2014년 대비 10.5%의 성장을 보이며 27만명의 독일인들이 미국을 방문하였고, 이중 76.1%가 관광 목적임
- 휴가 시 심신의 회복을 가장 많이 기대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독일 및 오스트리아를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됨

(출처 : Travel One, 2016.7.6, FVW, 2016.7.12)

○ 독일 여행객, 니스 테러 이후 현재까지 예약에 큰 변동 없어

- 독일 최대 여행사 DER Touristik는 지난 7월 15일 프랑스 니스에서 일어난 트럭 테러 이후, 니스로의 여행 취소 건이 소수에 달한다고 밝힘. 주로 프랑스 그룹 패키지 상품을 취급하는 La Cordée Reisen 여행사 또한 별다른 반응이 없다고 밝힘
- 니스와 프랑스 여행업에 테러가 미치는 중장기적 영향에 대한 판단이 어려우나 단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고, 니스를 대체할 만한 코트디아주르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관계자는 전함
- 이번 테러로 인해 당분간 니스 관광에는 타격을 입을 것이지만, 엘자스, 노르망디, 알프스 등 여행객을 끌어들이는 자산은 충분하므로 프랑스 전 지역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
- 한편, 앞으로 몇 개월간 프랑스 여행객이 약 30% 감소할 것이라는 좀 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옴

(출처 : FVW, 2016.7.19)

라. 경쟁국 동향

○ 베트남, 비자 없는 입국 1년 더 허용해

- 베트남 정부는 작년 1년 동안 운영한 비자 면제기간을 2017년 6월 30일까지로 1년 더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힘

- 이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국적의 상용 및 여가 수요에 해당되며 최대 체류기간은 15일까지임. 이 조건을 충족한 사람은 비자 없이 베트남 여행이 가능하나 도착 기준 여권이 최소 6개월 유효해야 함. 다만, 공식적으로 지정된 바가 아직 없어 현재는 비자 신청할 것을 권고함

(출처 : Travel One, Touristik Aktuell, 2016.7.14)

마. 관광통계

□ 출입국 동향

(단위 : 명, %)

월	입국		
	2015년	2016년	증감률
1월	1,780,635	1,869,842	5.0
2월	2,107,305	2,223,719	5.5
3월	2,267,851	2,431,153	7.2
4월	2,660,525	2,834,824	6.6
5월	3,187,121	3,105,250	-2.6
6월	3,316,209	-	-
7월	4,417,499	-	-
8월	4,014,760	-	-
9월	3,344,624	-	-
10월	3,072,480	-	-
11월	2,357,430	-	-
12월	2,460,444	-	-
누계	34,986,883	12,464,788	3.8

□ 국가별 입국 동향

(단위 : 명, %)

출발국가 → 독일	2016년 6월 입국자 수			2016년 1월 ~ 6월 입국자 수 누계		
	2015년	2016년	증감률	2015년	2016년	증감률
대한민국	28,923	-	-	137,392	121,804	-11.3
일본	62,207	-	-	291,587	195,102	-33.1
대만	21,952	-	-	82,585	63,181	-23.5

출발국가 → 독일	2016년 6월 입국자 수			2016년 1월 ~ 6월 입국자 수 누계		
	2015년	2016년	증감률	2015년	2016년	증감률
인 도	27,045	-	-	116,601	92,073	-21.0
중 국	148,691	-	-	579,964	448,863	-22.6
터 키	26,756	-	-	161,112	147,769	-8.3
아 랍 에 미 리 트	46,934	-	-	239,821	206,860	-13.7
미 국	304,477	-	-	1,126,199	865,413	-23.2
캐 나 다	32,007	-	-	126,992	91,843	-27.7
영 국	257,778	-	-	1,138,911	904,270	-20.6
프 랑 스	141,983	-	-	762,047	641,195	-15.9
스 페 인	112,039	-	-	457,375	426,645	-6.7
러 시 아	60,751	-	-	350,150	239,366	-31.6
오 스트 레 일 리 아	37,173	-	-	124,341	115,310	-7.3

4. 러시아

가. 주요 경제 사회동향

○ 러시아 축구 국가대표 해산 서명 운동 참가자 35만명 돌파

- 유로 2016 대회 초반 탈락이라는 저조한 성적표를 받은 러시아 축구 국가대표에 대한 팀해산 서명 운동에 35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가함. change.org 사이트에 개제된 운동 내용은 “우리에게 실망을 준 현 러시아 국가대표팀을 해산하고, 새 구성원을 선정해라”, “국가대표 자리를 다음 세대에게 주어라” 등임
- 서명운동은 2주전 시작되었으나, 7월 5일 몬테-카를로 파티사건(러시아 축구팀 국가대표가 술집에서 파티를 연 스캔들)의 동영상의 대중에 유포되며 서명수가 급속도로 늘어났음
- 서명운동의 집계는 러시아 정부에 전달된 상황이지만, 이는 법적 효력을 갖지 않은 사회적 의견일 뿐이나 다른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심리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러시아 체육부장관은 전함

(출처 : rg.ru, 2016.7.8)

나. 관광정책 및 업계동향

□ 관광정책 및 유치활동

- 러시아, 몽골, 중국, 합동관광브랜드 'Great Tea Road' 개발 예정
 - 중국 후허하오터에서 열린 러시아, 몽골, 중국 관광담당 부처 수장 회의에서 관광분야에 대한 3개국 협력 MOU를 체결함
 - MOU에는 'Great Tea Road' 국제관광브랜드의 제작, 개발, 홍보 협력이 포함되어 있음
 - Great Tea Road프로젝트에는 현재 러시아 부랴찌야 공화국, 자바이칼스크주, 이르쿠츠크주, 중국의 푸젠, 장시, 후난, 후베이, 허난, 허베이, 산시, 내몽골 자치구, 몽골의 대도시 지역이 참가하고 있음

(출처 : russiatourism.ru, 2016.7.25)
- 동방경제포럼 참가자 러시아 무비자 입국 가능
 - 블라디보스톡에서 9월에 개최되는 동방경제 포럼에 외국인 대표단에게 7일간 무비자 입국을 지원할 예정임
 - 포럼은 9.2-3일간 개최될 예정이며, 8.30일 부터 9.5일까지 7일간 무비자 입국 가능
 - 동방경제 포럼을 통하여, 111개의 잠재적 프로젝트 발굴 및 2조 2천억 루블의 투자 유치계획
 - 잠재적 프로젝트 투자는 1순위 극동지역(약 37개), 2순위 사하공화국(약 22개), 3순위 하바롭스크(약 21개)로 투자 계획을 갖고 있음

(출처 : newsvl.ru, 2016.7.25)

□ 항공업계 동향

- 러시아 울란우데-서울 직항 큰 인기
 - 지난 6.24일 러시아 부랴찌야공화국 울란우데에서 한국으로의 직항이 재개
 - 야쿠찌야 항공사 SuKhoi Superjet 100이 주2회 운항을 하며, 이코노미 85석 비즈니스 89석으로 1만5천루블(한화 약 30만원)에 팔림
 - 야쿠찌야 항공은 울란우데-서울 노선이 현재 탑승률 100%로 운영되고 있고, 이는 의료관광과 일반 관광객의 수의 증가뿐만 아니라 최근 불법노동자의 수가 증가된 것을 반영된 것이라고 밝힘
 - 하지만 한국 출입국관리소의 울란우데발 항공기 탑승자에 대한 입국 심사 강화에 따라 불

라디보스톡, 노보시비르스크, 이르쿠츠크, 북경을 통해 한국 입국을 하는 경우가 늘어남
(출처 : respnews.ru, 2016.7.4)

○ 블라디보스톡-중국 12개 항공편 추가 개설

- 제6회 러중 국경지역발전 및 관광분야 지역간 협력을 위한 포럼에서 8월에 블라디보스톡-중국간 12개 항공편 추가 계획이 발표됨
- 2016년 상반기 외국인관광객의 연해주 방문은 전년 동기간 대비 85%가 증가되었음
- 2015년의 경우 중국 6개 도시와 주 16회 항공편이 운항되었지만 2016년 상반기의 경우 7개 도시, 주 22회 항공이 운항했고, 8월에는 신규도시 취항을 포함하여 12개 항공편이 추가 개설될 계획임
- 블라디보스톡에서 다롄 3회, 무단장 2회, 홍콩 4회 운항하고 있고, 상하이와 톈진은 올해 처음으로 운항을 시작함
- 하얼빈까지 주2회에서 주5회까지 증편했음에도 8월부터 추가 2회 증편 계획. 베이징도 주 3회 운항을 8월부터 주4회로 늘릴 예정이고 장춘도 8월에 재취항할 예정임
(출처 : deita.ru, 2016.7.20)

□ 여행업계 동향

○ 중국 입국 비자 수수료 2배 이상 인상

- 주러중국대사관은 러시아인들의 중국 방문 비자가 7.8일부터 2배이상 인상된다고 밝힘
- 기존 단수비자 1,500루블에서 3,300루블로 복수비자는 4,500루블에서 9,900루블로 2배 이상씩 인상
- 신청비자 금액의 은행 수수료 2.5%는 별도로 추가되며, 러시아 전역의 총영사관에서 시행될 예정임
(출처 : newsvl.ru, 2016.7.8)

□ 관광시설 등 기타 동향

○ 연해주정부 하얏트 건물 85억루블에 매각

- 연해주정부는 하얏트 건물을 85억루블에 매각한다고 밝혔고, 현재 하얏트 건물은 호텔부분은 약 70%, 스파 부분은 5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음
- 매각 준비에는 약 2달 정도 소요예상하고 있으며, 매각에 앞서 올해 9월까지 하얏트 호텔 주변정리 및 가을, 겨울 대비를 위한 난방 시스템 등의 사전 점검에 들어갈 예정임

- 현재 관심 있어 하는 기업은 Lotte Holding, Marriot International, Carson Rezidor Hotel Group, Berjaya Corporation Behard, 중국계 기업 'Hunchen' 등의 외국계 기업임
- 하얏트 호텔은 2017년 5월을 완공일로 예정하고 있으며, 9월 극동포럼 전에 일부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음. 호텔 오픈시 약 600명의 신규 고용 인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 하얏트 호텔은 2012년 건설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건설 중에 있으며, 건설 중 러시아의 경제 위기 및 각종 스캔들로 인하여 수차례 중단 및 재개가 진행되어오고 있음
(출처 : newsvl.ru, 2016.7.12)

다. 국내외 여행 동향

○ 연해주 방문 중국관광객 상반기 약 85% 증가

- 연해주 방문 중국관광객이 상반기 전년대비 약 85% 증가함
- 중국 상반기 약 58천명 방문하였으며, 지난해 약 31천명 방문대비 다소 상회하는 수치임
- 반기 연해주 방문 전체 중국인은 총 168천명으로 1위를 차지, 2위는 한국이며 독일 등 기타 국가에서도 다소 증가
- 전체 외국인 관광객은 총 232천명으로 추정되고, 하절기 성수기 이후 관광객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출처 : tass.ru, 2016.7.11)

○ 블라디보스톡-북극 간 쇄빙선 관광재개

- 블라디보스톡-북극간 쇄빙선 관광이 7.8일 재개되어 관광객들은 그린란드와 시베리아 지역, 북극을 관광할 수 있음
- 쇄빙선은 선원 5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블라디보스톡에서 4명, 아나드리(극동지역 베링해)섬에서 약 100명의 관광객을 태운 후 여행할 예정임(아나드리에서 탑승하는 관광객들은 미국,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독일, 아르헨티나, 영국, 캐나다 등 다양한 외국인 관광객 들임)
- 아나드리를 출발한 배는 시베리아해를 통해 브란젤라, 그린란드와 캐나다 북극 지역까지 여행을 하게 되며, 그린란드와 시베리아 지역, 캐나다 북극지역까지 방문할 수 있음
(출처 : newsvl.ru, 2016.7.11)

○ Sun Princess 크루즈 블라디보스톡 입항

- Sun Princess 크루즈는 7.17일 블라디보스톡에 입항.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으로 총 2,200명 이상이며, 승무원은 약 1,000여명임

- 크루즈는 인천에서 출발하여 블라디에서 하루 체류를 하며, 관광객들에게는 각종 기념 공연 및 선물, 관광정보 등을 제공
- 블라디 방문 후 일본으로 출항 예정이며, 블라디보스톡에는 이미 Atlanta, Costa Victoria (롯데관광개발 기획)호가 방문하였으며 8월에는 Chinese Taisan호, 10월에는 Pacific Venus호가 방문 예정임

* Sun Princess 크루즈는 호주 시드니를 출발하여, 48일간 전세계를 일주하고 샌프란시스코로 돌아가는 일정으로 구성되어 있음
(출처 : newsvl.ru, 2016.7.14)

6

대양주시장

1. 관광정책 및 업계 동향

□ 관광정책 및 유치활동

○ 호주관광청, 중국 관광객 유치 확대 노력

- 호주관광청, 중국관광객 유치 캠페인 'Knowing the Customer'를 통해 2020년까지 중국 관광객 소비액 연간 130억 호주달러(한화 약 11조 8백억) 달성 추진

* 중국 관광객 지출액은 '16년 3월 기준, 1년간 총 89억 호주 달러 지출(전년 동기대비 40% 증가)

* 'Knowing the Customer' 캠페인

- 호주관광청이 '11년 6월 발표한 'China 2020 플랜'의 주요 전략 중 하나로, 호주 방문 중국관광객의 연령, 목적, 거주도시 등을 파악하여 맞춤형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캠페인

- 중국 관광객 재방문을 제고 위해 호텔, 식당, 상점 내 중국어 메뉴 및 중국어 안내서비스 제공 확대 추진

· 성수기(2,7,8월) 숙박시설 확충, 유니온페이 도입 등 인프라 개선 등

◆ 'China 2020 플랜' 주요내용

- Knowing the Customer
 - 관광객의 방문 목적(관광, 비즈니스), 거주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연령, 성별 등 파악 → 맞춤형 상품 개발 및 서비스 제공
- Geographic Strategy
 - 2020년까지 3단계에 걸쳐 마케팅 영역 확장(13개 → 30개 도시)
 - (1단계) 허브도시(북경, 상하이 등) (2단계) 2차도시(청두, 선양 등) (3단계) 개발도시
- Quality Australian Experiences
 - 문화상품 개발, 고품질의 여행 경험 제공
- Aviation Development
 - 중국-호주 주요 도시간 항공노선 신설 및 직항노선 추가 확보
- Strong Partnerships between Government and industry
 - 정부-기업간 연대 강화

(출처 : 호주관광청 2020 China Strategic Plan, The ABC News, 2016.7.18)

2. 국내외 여행 동향

○ NSW주 지방관광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관광 네트워크 신설

- NSW 주정부는 앞으로 4년동안 약 4천3백만 달러(호주화)를 지방관광 기반 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
- 호주 무역, 관광 이벤트부의 장관은 이번 새로운 네트워크 산업은 지역 정부와 관련 관광부서들, 각종 관광협회, 기관들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진행할 것이며 NSW 주정부 관광부서인 Destination NSW의 캠페인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힘
- Destination NSW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이며 이들의 관광 캠페인, 마케팅과 각종 프로그램들은 새로운 지방 네트워크 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함
- 이번 사업의 목표는 지방관광 환경개선과 활성화로 더 많은 관광객들을 NSW 지방으로 유치하기 위함이며 2020년까지 주정부의 관광객 수를 현재 대비 2배로 증가시킬 계획임
- 이번 새로운 네트워크 사업은 NSW주의 지방 관광활성화를 위해 98개의 주요 산업 관련 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해 만들어질 계획임

(출처 : ETB Travel News, 2016.7.6)

○ 호주 관광시장 긍정적인 예측과 더불어 높은 성장 지속

- 호주 인바운드 관광시장은 현재 모든 부분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최근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관광산업은 이미 긍정적인 미래로 향하기 위한 궤도에 올라왔다고 평가되며 인바운드 시장은 성공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Tourism Research Australia(TRA)의 호주관광시장전망 2016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는 관광산업분야의 관점에서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경제적 성장의 최대 수혜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발표
- Australian Tourism Export Council(ATEC)에 따르면 중국의 경우 여유가 있는 중산층의 증가로 수요 확대에 대한 이익을 받고 있다고 말함
- 또한 중국관광객은 매년 두 자릿수의 성장세를 보이고, 특히 중산층의 급격한 성장과 여행을 인생의 일부분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맞물려 항공 수요가 증가하고, 호주는 새로운 관광목적지로서 각광 받게 됨
- 해외 관광객이 2025년까지 약 520만명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호주 관광산업분야는 빠르게 호주의 주요 수출 산업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고 평가함

(출처 : ETB Travel News, 2016.7.14)

2. 관광통계

□ 출입국 동향

(단위 : 명, %)

월	입국			출국		
	2015년	2016년	증감률	2015년	2016년	증감률
1월	546,200	620,500	13.6	692,200	744,500	7.6
2월	722,200	796,700	10.3	554,500	577,600	4.2
3월	674,500	754,600	11.9	720,700	773,400	7.3
4월	551,400	610,800	10.8	762,000	791,400	3.9
5월	483,000	542,000	12.2	744,200	764,600	2.7
6월	488,300	-	-	899,100	-	-
7월	627,100	-	-	822,200	-	-
8월	573,800	-	-	768,000	-	-
9월	571,500	-	-	921,100	-	-
10월	624,000	-	-	750,400	-	-
11월	668,900	-	-	703,000	-	-
12월	897,700	-	-	1,088,600	-	-
누계	7,428,600	3,324,600	11.7	9,426,000	3,651,500	5.1

□ 국가별 입국동향

(단위 : 명, %)

출발국가 → 호주	2016년 5월 입국자 수			2016년 1월 ~ 5월 입국자 수 누계		
	2015년	2016년	증감률	2015년	2016년	증감률
대 한 민 국	15,900	19,200	20.8	97,300	122,000	25.4
일 본	18,900	23,000	21.7	122,100	158,900	30.1
대 만	10,000	13,200	32.0	51,600	66,900	29.7
홍 콩	13,500	14,100	4.4	87,600	102,800	17.4
태 국	6,400	8,000	25.0	32,500	38,800	19.4
말 레 이 시 아	32,000	37,900	18.4	123,900	141,600	14.3
필 리 핀	7,900	9,600	21.5	37,400	43,800	17.1
인 도 네 시 아	9,200	10,500	14.1	53,100	53,700	1.1
싱 가 포 르	28,700	36,300	26.5	128,700	153,900	19.6
베 트 남	3,600	4,500	25.0	23,000	26,900	17.0

출발국가 → 호주	2016년 5월 입국자 수			2016년 1월 ~ 5월 입국자 수 누계		
	2015년	2016년	증감률	2015년	2016년	증감률
인 도	23,100	27,400	18.6	105,000	109,700	4.5
중 국	62,300	71,400	14.6	456,300	558,100	22.3
아 랍 에 미 리 트	2,200	1,900	-13.6	14,300	12,800	-10.5
미 국	38,500	46,300	20.3	249,400	291,600	16.9
캐 나 다	7,600	8,200	7.9	66,900	68,100	1.8
영 국	29,400	29,800	1.4	303,000	317,700	4.9
독 일	9,100	9,200	1.1	77,900	82,500	5.9
프 랑 스	6,600	6,300	-4.5	46,300	47,200	1.9
스 페 인	1,700	2,000	17.6	12,500	13,100	4.8
러 시 아	700	600	-14.3	6,000	5,300	-11.7



관 광 시 장 동 향

제2장 한국 관광시장 동향

I. 외래객 입국, 국민해외여행객 및 관광수입·지출 동향(2016. 7월)

■ 외래객 입국·국민해외여행객 및 관광수입·지출 현황

(단위 : 명, %, US\$백만)

구 분	외래객 입국		국민 해외여행객		관광수입		관광지출	
	인원수	증감	인원수	증감	관광수입	증감	관광지출	증감
2004	5,818,138	22.4	8,825,585	24.5	6,053.1	13.3	9,856.4	19.5
2005	6,022,752	3.5	10,080,143	14.2	5,793.0	-4.3	12,025.0	22.0
2006	6,155,046	2.2	11,609,879	15.2	5,697.4	-1.7	14,294.5	18.9
2007	6,448,240	4.8	13,324,977	14.8	6,071.4	6.6	16,931.5	18.4
2008	6,890,841	6.9	11,996,094	-10.0	9,696.1	59.7	14,571.7	-13.9
2009	7,817,533	13.4	9,494,111	-20.9	9,767.2	0.7	11,035.7	-24.3
2010	8,797,658	12.5	12,488,364	31.5	10,290.5	5.4	14,277.7	29.4
2011	9,794,796	11.3	12,693,733	1.6	12,347.2	20.0	15,530.8	8.8
2012	11,140,028	13.7	13,736,976	8.2	13,356.7	8.2	16,494.5	6.2
2013	12,175,550	9.3	14,846,485	8.1	14,524.8	8.7	17,340.7	5.1
2014	14,201,516	16.6	16,080,684	8.3	17,711.8	21.9	19,469.9	12.3
2015	13,231,651	-6.8	19,310,430	20.1	15,176.7	-14.3	21,271.7	9.3
1월	917,054	8.8	1,834,538	24.9	1,270.8	7.6	1,852.5	13.4
2월	1,050,706	18.6	1,445,609	10.1	1,240.4	4.2	1,524.2	6.1
3월	1,238,144	9.4	1,416,683	23.1	1,562.6	9.8	1,654.6	14.6
4월	1,384,567	10.6	1,495,460	26.7	1,519.0	4.3	1,840.7	8.5
5월	1,334,212	7.6	1,579,265	29.1	1,515.8	5.8	1,710.4	5.7
6월	750,925	-41.0	1,373,551	8.1	944.9	-35.5	1,747.4	2.6
7월	629,737	-53.5	1,675,332	15.2	826.5	-48.9	1,933.9	6.0
8월	1,069,314	-26.5	1,835,249	18.6	1,166.2	-24.5	1,771.2	-2.1
9월	1,206,764	-3.1	1,511,657	14.4	1,212.1	-31.3	1,613.7	-4.4
10월	1,383,704	5.0	1,735,308	21.2	1,342.1	-24.3	1,949.2	14.9
11월	1,150,074	2.9	1,626,063	26.2	1,260.5	-27.5	1,752.6	20.6
12월	1,116,450	2.8	1,781,715	24.5	1,315.8	-19.5	1,921.3	10.0
2016	9,813,342	34.3	12,716,137	17.5	10,068.0	13.4	12,969.4	5.8
1월	1,077,431	17.5	2,112,337	15.1	1,300.9	2.4	1,824.0	-1.5
2월	1,126,250	7.2	1,876,928	29.8	1,388.3	11.9	1,697.7	11.4
3월	1,389,399	12.2	1,569,162	10.8	1,503.6	-3.8	1,818.6	9.9
4월	1,469,674	6.1	1,636,597	9.4	1,376.1	-9.4	1,675.3	-9.0
5월	1,492,680	11.9	1,656,728	4.9	1,711.4	12.9	1,758.1	2.8
6월	1,554,413	107.0	1,778,317	29.5	1,500.1	58.8	1,986.2	13.7
7월	1,703,495	170.5	2,086,068	24.5	1,287.6	55.8	2,209.5	14.3

※ 외래객 입국 및 국민해외여행객 통계는 법무부 출입국통계(원자료)를 가공하였고,

관광수입 및 지출은 한국은행 국제수지 자료에서 인용

* 2015, 2016년 관광수입·지출은 잠정치

□ 방한 외래객

- 7월은 전년 동월 대비 170.5% 증가한 1,703,495명이 방한
 - 전년도 메르스 영향에 대한 기저효과로 7월은 큰 폭의 증가를 나타냄
 - * '15년 7월 방한외래객은 63만여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3.5% 감소
 - 중국은 경쟁 목적지인 동남아 시장의 비수기 진입, 한중간 전세기 및 크루즈 취항 증가와 더불어 여행 성수기인 방학 시즌을 맞아 FIT, 가족 단위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258.9% 증가
 - 일본은 엔화 강세 및 여름휴가 시즌 진입에 따라 FIT, 젊은 여성층을 중심으로 방한 관광 수요가 증가해 전년 동월 대비 127.8% 증가
 - 대만은 엔화 강세, 유럽 테러 등 경쟁 목적지 수요 위축과 더불어 항공좌석 및 신규 노선 증편, 항공사 공동 캠페인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724.6% 증가
 - 홍콩은 방학 시즌 진입으로 가족 단위 관광객이 증가하였으며, 항공사 공동 캠페인 및 현지 언론 대상 방한관광 홍보 강화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656.0% 증가

□ 국민 해외여행객

- 7월은 전년 동월 대비 24.5% 증가한 2,086,068명이 출국
 - 7월 국민 해외여행객은 해외여행 열기 지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24.5% 늘어난 2,086,068명이 출국

□ 관광수입 및 지출

- 7월 관광수입은 12.9억불로 전년 동월 대비 55.8% 증가
 - 외래객 1인당 지출금액은 756불로 전년 동월 대비 42.4% 감소
- 7월 관광지출은 22.1억불로 전년 동월 대비 14.3% 증가
 - 국민해외여행객 1인당 지출금액은 1,059불로 전년 동월 대비 8.2% 감소
- 7월 관광수지는 9.2억불 적자

□ 방한 주요국별 입국자수

(단위 : 명, %)

국가	7월	증감	1~7월	증감	국가	7월	증감	1~7월	증감
중 국	917,519	258.9	4,734,275	45.4	미 국	78,526	25.4	503,893	13.9
일 본	186,194	127.8	1,226,109	19.4	캐 나 다	15,886	67.3	96,772	15.3
대 만	81,459	724.6	476,924	58.8	미 주	101,861	32.5	640,952	14.3
홍 콩	58,674	656.0	371,607	32.0	러 시 아	19,559	44.6	132,683	25.2
싱 가 포 르	11,414	157.1	105,579	31.8	영 국	11,923	50.5	77,553	8.8
말레이시아	16,208	175.0	153,817	37.2	독 일	9,210	31.4	62,960	15.4
태 국	27,271	124.8	275,668	19.7	프 랑 스	8,424	30.3	51,840	9.5
필 리 핀	53,411	127.0	305,983	36.9	유 럽	84,081	42.1	530,431	17.5
인도네시아	29,404	182.2	161,428	51.7	호 주	15,117	67.6	85,734	13.6
베 트 남	24,540	167.6	137,079	53.3	대 양 주	18,921	61.3	107,068	13.1
인 도	20,286	137.2	107,798	49.7	아 프 리 카	5,587	67.5	24,124	35.8
터 키	2,782	56.0	15,682	21.8	기 타	21,979	16.1	157,257	4.2
중 동 *	13,700	44.2	77,769	20.4	전 체	1,703,495	170.5	9,813,342	34.3
아 시 아	1,471,066	219.9	8,346,258	38.5					

* 중동 :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란 및 GCC 6개국(UAE,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바레인)

□ 주요 목적지별 국민해외여행객수

(단위 : 명, %)

방문국가	2014		2015		2016. 7월		2016. 1~7월*	
	한국인입국	증감	한국인입국	증감	한국인입국	증감	한국인입국	증감
국 민 해외여행객	16,080,684	8.3	19,310,430	20.1	2,086,068	24.5	12,716,137	17.5
중 국	4,181,800	5.4	4,444,400	6.3	-	-	698,100	7.7
일 본	2,755,313	12.2	4,002,052	45.2	447,000	30.0	2,830,000	30.8
대 만	527,684	50.2	658,757	24.8	69,274	52.8	476,136	29.0
홍 콩	1,251,047	15.5	1,243,293	-0.6	-	-	687,236	6.0
마 카 오	554,521	16.9	554,177	-0.1	51,992	40.3	364,640	10.3
싱 가 포 르	536,975	13.8	577,082	7.5	-	-	302,357	4.7
말레이시아	385,769	40.5	421,161	9.2	-	-	139,845	15.4
태 국	1,117,449	-13.7	1,376,925	23.3	134,310	10.5	859,809	13.2
필 리 핀	1,175,472	0.8	1,339,678	14.0	-	-	576,332	5.5
인도네시아	328,122	1.1	145,926	5.2	-	-	-	-
베 트 남	832,969	11.3	1,152,349	38.3	116,960	60.0	858,029	28.9
터 키	248,654	32.9	222,580	-10.5	-	-	62,397	-48.1
미 국	1,449,538	6.6	814,596	20.2	-	-	-	-
캐 나 다	162,536	12.4	188,585	16.0	-	-	95,673	21.0
러 시 아	135,676	25.7	129,160	13.2	-	-	-	-
영 국	201,778	-1.1	237,166	17.5	-	-	39,180	-15.5
독 일	254,332	11.1	296,900	16.7	-	-	121,804	12.3
호 주	201,310	3.5	230,100	14.3	-	-	124,378	-8.4
뉴 질 랜드	55,488	8.8	64,992	17.1	5,504	39.8	46,720	25.2

※ 출처 : 각국 NTO 홈페이지

* 2015년 자료에서 인도네시아는 5월, 미국은 6월, 러시아는 9월까지임

* 2016년 자료에서 중국 2월까지, 영국, 말레이시아 3월까지, 필리핀, 독일 5월까지, 홍콩, 싱가포르, 터키, 캐나다, 호주는 6월까지임

* 자세한 자료는 <http://kto.visitkorea.or.kr/kor/notice/data/statis/profit.kto> 의 국민해외관광객 주요 행선지 통계에서 확인 가능

□ 관광수입 및 관광지출

(US\$백만, %)

	관광수입		관광지출		1인당 지출액(US\$)				월평균환율	
	US\$백만	증감 (%)	US\$백만	증감 (%)	관광수입	증감 (%)	관광지출	증감 (%)	US\$1=원	1위안=원
1월	1,300.9	2.4	1,824.0	-1.5	1,207	-12.9	864	-14.5	1,201.7	181.6
2월	1,388.3	11.9	1,697.4	11.4	1,233	4.4	905	-14.2	1,217.4	185.7
3월	1,503.6	-3.8	1,818.6	9.9	1,082	-14.3	1,159	-0.8	1,188.2	182.6
4월	1,376.1	-9.4	1,675.3	-9.0	936	-14.7	1,024	-16.8	1,147.5	176.9
5월	1,711.4	12.9	1,758.1	2.8	1,147	0.9	1,061	-2.0	1,171.5	179.1
6월	1,500.1	58.8	1,986.2	13.7	965	-23.3	1,117	-12.2	1,170.5	177.3
7월	1,287.6	55.8	2,209.5	14.3	756	-42.4	1,059	-8.2	1,144.1	171.1
누계	10,068.0	13.4	12,969.4	5.8	1,026	-15.6	1,020	-10.0	1,176.6	179.1

* 2016년 관광수입, 관광지출은 잠정치

□ 7월 주요 시장별 관광객 입국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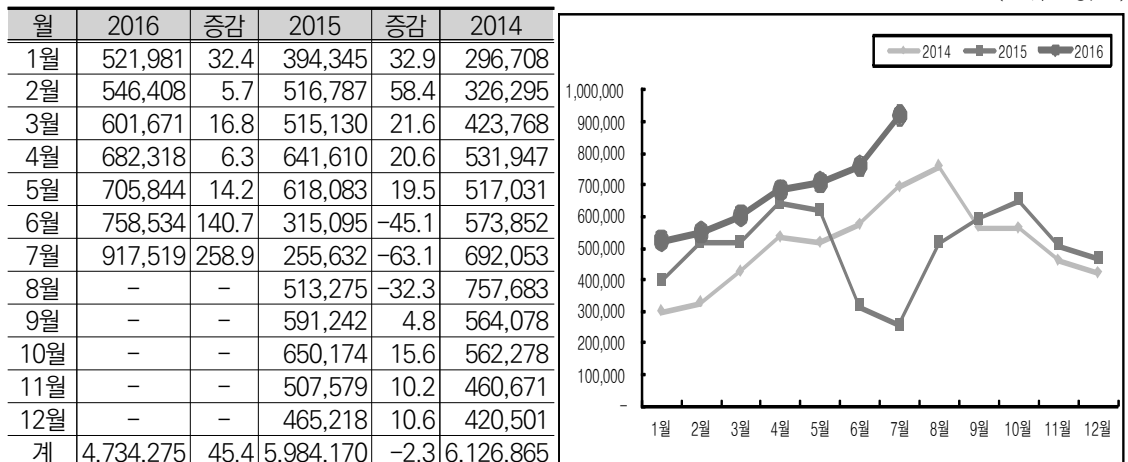
- 전년도 메르스 영향에 대한 기저효과로 7월은 큰 폭의 증가를 나타냄

* '15년 7월 방한외래객은 63만여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3.5% 감소

1. 중국

○ 방한 중국관광객 현황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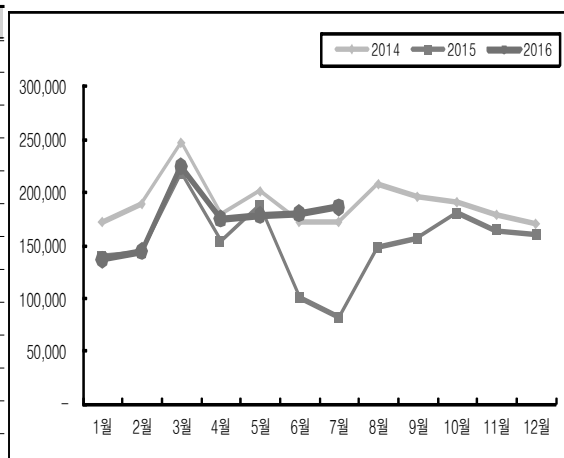
- 중국은 경쟁 목적지인 동남아 시장의 비수기 진입, 한중간 전세기 및 크루즈 취향 증가와 더불어 여행 성수기인 방학 시즌을 맞아 FIT, 가족 단위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258.9% 증가
- 공항 및 항구로 입국한 중국인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309.0%, 179.4% 증가하였으며, 특히 제주공항 및 부산항으로 입국한 중국인은 각각 약 7.5배, 57.9배로 크게 증가
-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를 보인 가운데, 20세 이하가 +589.1%로 가장 많이 늘어남
- 여성(+361.1%)이 남성(+199.9%)보다 더 많이 증가

2. 일본

○ 방한 일본관광객 현황

(단위 : 명, %)

월	2016	증감	2015	증감	2014
1월	136,884	-2.0	139,632	-18.9	172,077
2월	144,493	1.3	142,587	-24.8	189,722
3월	224,328	2.5	218,932	-11.5	247,262
4월	175,283	13.5	154,402	-14.0	179,593
5월	178,735	-5.1	188,420	-6.5	201,489
6월	180,192	78.0	101,206	-41.5	173,056
7월	186,194	127.8	81,748	-52.6	172,427
8월	-	-	148,632	-28.6	208,147
9월	-	-	157,313	-19.9	196,306
10월	-	-	180,348	-5.2	190,335
11월	-	-	164,685	-8.3	179,533
12월	-	-	159,877	-6.2	170,487
계	1,226,109	19.4	1,837,782	-19.4	2,280,4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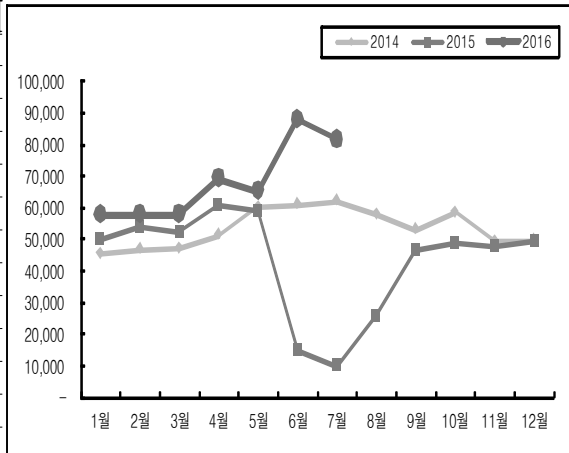
- 일본은 엔화 강세 및 여름휴가 시즌 진입에 따라 FIT, 젊은 여성층을 중심으로 방한 관광 수요가 증가해 전년 동월 대비 127.8% 증가
- 공항 및 항구로 입국한 일본인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32.7%, 68.0% 증가하였으며, 특히 김해공항 및 부산항으로 입국한 일본인은 각각 +174.4%, +68.4%로 크게 증가
-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를 보인 가운데, 20세 이하, 20대 젊은 연령층이 각각 245.7%, 183.2% 증가로 가장 많이 늘어남
- 여성(+188.9%)이 남성(+86.3%)보다 더 많이 증가

3. 대만

○ 방한 대만관광객 현황

(단위 : 명, %)

월	2016	증감	2015	증감	2014
1월	57,700	15.9	49,798	10.0	45,282
2월	57,876	7.7	53,719	15.0	46,705
3월	57,848	10.6	52,304	11.1	47,097
4월	69,151	13.8	60,752	18.3	51,360
5월	65,168	10.3	59,061	-1.7	60,105
6월	87,722	492.1	14,816	-75.7	60,849
7월	81,459	724.6	9,879	-84.1	62,042
8월	-	-	25,622	-57.2	59,902
9월	-	-	46,353	-12.4	52,942
10월	-	-	48,929	-16.4	58,542
11월	-	-	47,463	-3.7	49,286
12월	-	-	49,494	-0.2	49,571
계	476,924	58.8	518,190	-19.5	643,6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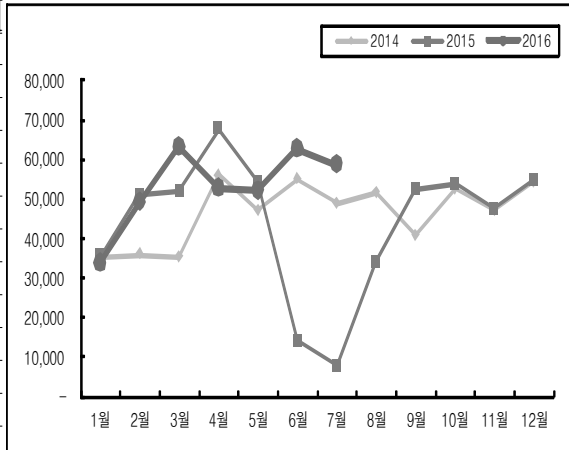
- 대만은 엔화 강세, 유럽 테러 등 경쟁 목적지 수요 위축과 더불어 항공좌석 및 신규 노선 증편, 항공사 공동 캠페인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724.6% 증가
- 공항으로 입국한 대만인은 전년 동월 대비 719.7% 증가하였으며, 특히 김해공항 및 제주공항으로 입국한 대만인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약 16.4배, 53.5배 늘어남
-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를 보인 가운데, 20세 이하 연령층이 전년 동월 대비 20배 이상 증가로 가장 많이 늘어남
- 여성(+901.0%)이 남성(+542.4%)보다 더 많이 증가

4. 홍콩

○ 방한 홍콩관광객 현황

(단위 : 명, %)

월	2016	증감	2015	증감	2014
1월	33,627	-5.0	35,407	0.9	35,077
2월	49,160	-3.6	50,992	42.1	35,881
3월	62,949	21.3	51,876	47.3	35,208
4월	52,699	-21.9	67,465	20.9	55,796
5월	52,006	-3.9	54,095	14.9	47,064
6월	62,492	348.0	13,949	-74.6	54,884
7월	58,674	656.0	7,761	-84.1	48,766
8월	-	-	33,752	-34.5	51,502
9월	-	-	52,400	29.0	40,614
10월	-	-	53,648	2.4	52,371
11월	-	-	47,329	0.6	47,062
12월	-	-	54,753	1.1	54,153
계	371,607	32.0	523,427	-6.3	558,3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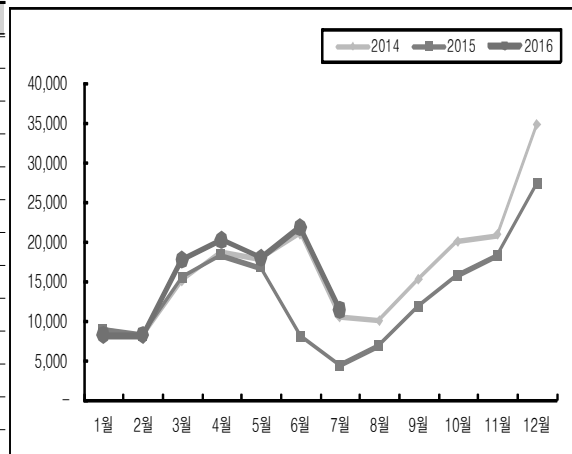
- 홍콩은 방학 시즌 진입으로 가족 단위 관광객이 증가하였으며, 항공사 공동 캠페인 및 현지 언론 대상 방한관광 홍보 강화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656.0% 증가
- 공항으로 입국한 홍콩인은 전년 동월 대비 668.2% 증가하였으며, 특히 김해공항 및 제주공항으로 입국한 홍콩인은 각각 전년 동월 대비 약 11.7배, 23.5배 늘어남
-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를 보인 가운데, 20세 이하, 61세 이상 연령층이 각각 전년 동월 대비 약 12.7배, 13.5배 증가로 가장 많이 늘어남
- 여성(+707.0%)이 남성(+659.9%)보다 더 많이 증가

5. 싱가포르

○ 방한 싱가포르관광객 현황

(단위: 명, %)

월	2016	증감	2015	증감	2014
1월	8,261	-7.5	8,934	-0.8	9,005
2월	8,255	1.1	8,166	1.1	8,080
3월	17,649	13.6	15,541	3.6	14,996
4월	20,216	10.3	18,331	-1.4	18,592
5월	17,957	7.2	16,747	-5.6	17,748
6월	21,827	175.4	7,926	-62.3	21,010
7월	11,414	157.1	4,439	-57.9	10,550
8월	-	-	6,972	-31.3	10,147
9월	-	-	11,867	-22.1	15,228
10월	-	-	15,672	-22.0	20,084
11월	-	-	18,224	-12.7	20,883
12월	-	-	27,334	-21.4	34,782
계	105,579	31.8	160,153	-20.4	201,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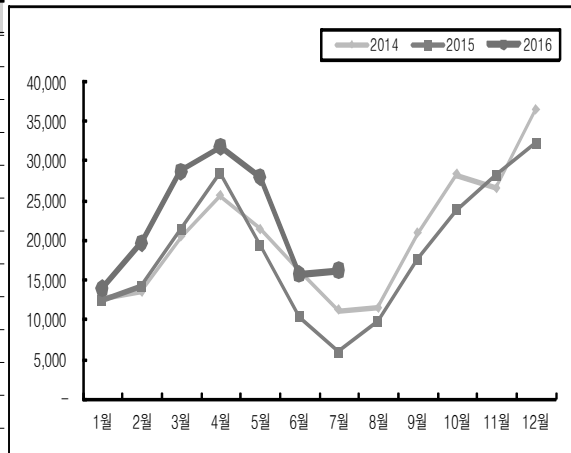
- 싱가포르는 하계 방학 시즌 종료로 전월 대비 감소하였지만, 작년 메르스 기저 효과로 전년 동월 대비 157.1% 증가
- 공항으로 입국한 방한 싱가포르인이 전년 동월 대비 157.0% 증가하였으며, 이중 인천공항이 161.5% 증가로 크게 늘어남
- 모든 연령층에서 전년 동월 대비 증가를 보인 가운데 61세 이상이 425.0% 증가로 가장 많이 늘어남

6. 말레이시아

○ 방한 말레이시아관광객 현황

(단위 : 명, %)

월	2016	증감	2015	증감	2014
1월	13,907	12.2	12,396	-2.9	12,768
2월	19,657	38.3	14,213	4.7	13,570
3월	28,672	33.4	21,493	5.3	20,411
4월	31,762	12.1	28,330	10.9	25,550
5월	27,926	43.5	19,463	-8.9	21,358
6월	15,685	52.5	10,283		15,978
7월	16,208	175.0	5,893	-47.4	11,201
8월	-	-	9,709	-15.4	11,483
9월	-	-	17,570	-15.7	20,846
10월	-	-	23,767	-16.0	28,279
11월	-	-	28,090	5.6	26,603
12월	-	-	32,143	-11.9	36,473
계	153,817	37.2	223,350	-8.7	244,5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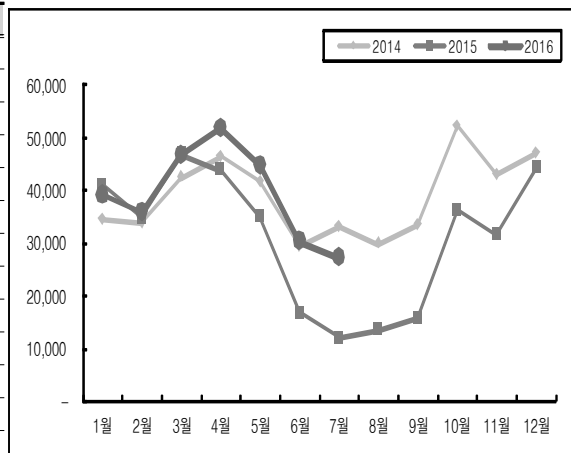
- 말레이시아는 경기가 안정되어 FIT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175.0% 증가
- 공항으로 입국한 말레이시아인은 전년 동월 대비 169.0% 증가하였으며, 이중 김해공항이 +172.7%로 크게 늘어남
- 모든 연령층에서 전년 동월 대비 증가를 나타냈으며, 이중 50대가 225.7% 증가로 가장 많이 늘어남
- 여성(+247.5%)이 남성(+152.4%)보다 더 많이 증가

7. 태국

○ 방한 태국관광객 현황

(단위 : 명, %)

월	2016	증감	2015	증감	2014
1월	39,032	-4.5	40,880	18.7	34,427
2월	35,833	2.8	34,861	3.2	33,786
3월	46,657	-0.5	46,868	10.3	42,507
4월	51,733	18.0	43,851	-5.4	46,365
5월	44,706	27.7	35,020	-15.8	41,569
6월	30,436	81.7	16,749	-43.0	29,404
7월	27,271	124.8	12,130	-63.3	33,084
8월	-	-	13,634	-54.4	29,909
9월	-	-	15,907	-52.6	33,552
10월	-	-	36,102	-30.8	52,149
11월	-	-	31,627	-26.4	42,985
12월	-	-	44,140	-6.2	47,046
계	275,668	19.7	371,769	-20.4	466,7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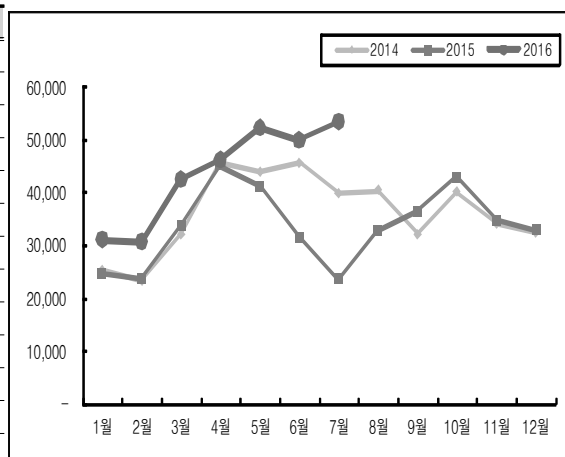
- 태국은 본격적인 방한 관광 비수기 진입으로 전월 대비 감소하였지만, 작년 메르스 기저 효과로 전년 동월 대비 124.8% 증가
- 공항 및 항구로 입국한 태국인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23.7%, 146.9% 증가하였으며, 특히 김해공항으로 입국한 태국인은 +264.4%로 가장 많이 늘어남
- 모든 연령층에서 전년 동월 대비 증가를 나타냈으며, 이중 50대, 61세 이상이 각각 369.0%, 563.3% 증가로 크게 늘어남

8. 필리핀

○ 방한 필리핀관광객 현황

(단위: 명, %)

월	2016	증감	2015	증감	2014
1월	31,098	25.8	24,716	-2.6	25,366
2월	30,729	29.4	23,740	2.2	23,240
3월	42,494	25.9	33,763	4.7	32,234
4월	46,187	2.3	45,128	-0.9	45,529
5월	52,229	27.0	41,141	-6.3	43,917
6월	49,835	58.6	31,427	-31.2	45,683
7월	53,411	127.0	23,529	-41.2	40,005
8월	-	-	32,801	-18.8	40,402
9월	-	-	36,605	14.1	32,082
10월	-	-	43,018	7.5	40,015
11월	-	-	34,745	2.0	34,048
12월	-	-	33,009	1.8	32,430
계	305,983	36.9	403,622	-7.2	434,9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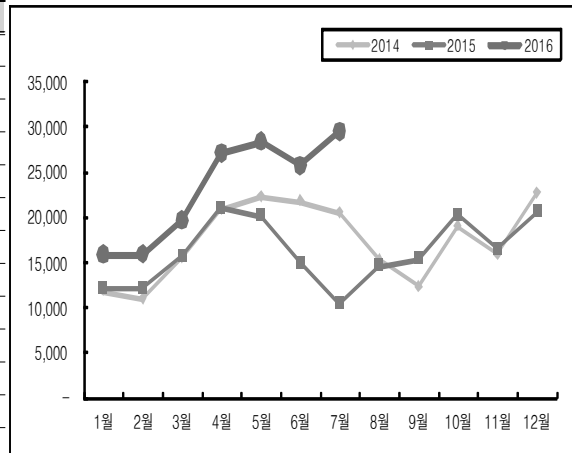
- 필리핀은 엔화 강세로 인한 대체 효과, 한류 확산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7.0% 증가
- 공항 및 항구로 입국한 필리핀인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59.4%, 162.4% 증가하였으며, 특히 제주항으로 입국한 필리핀인은 +253.8%로 크게 증가
- 여성(+125.1%)이 남성(+37.0%)보다 더 많이 증가하였으며, 선원 및 승무원은 전년 동월 대비 161.8% 증가

9. 인도네시아

○ 방한 인도네시아관광객 현황

(단위 : 명, %)

월	2016	증감	2015	증감	2014
1월	15,757	30.0	12,120	3.0	11,771
2월	15,849	31.1	12,092	11.1	10,880
3월	19,515	24.6	15,667	1.4	15,445
4월	27,029	28.1	21,092	1.2	20,835
5월	28,240	40.2	20,136	-9.6	22,278
6월	25,634	72.3	14,881	-31.6	21,748
7월	29,404	182.2	10,418	-49.2	20,498
8월	-	-	14,555	-4.5	15,233
9월	-	-	15,393	25.9	12,230
10월	-	-	20,166	6.6	18,915
11월	-	-	16,513	4.4	15,818
12월	-	-	20,557	-9.4	22,678
계	161,428	51.7	193,590	-7.1	208,3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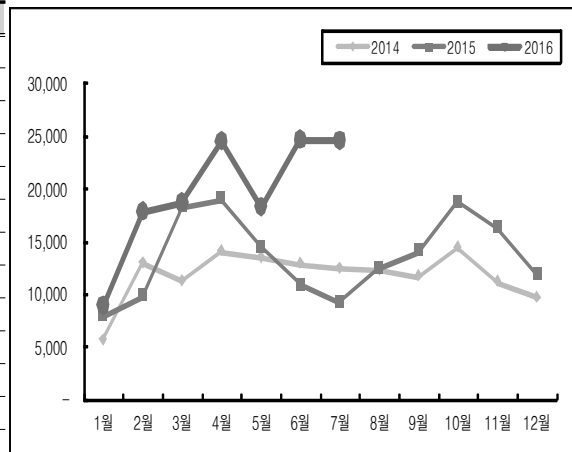
- 인도네시아는 7월 초 르바란 연휴를 맞아 방한 관광 수요가 증가해 전년 동월 대비 182.2% 증가
- 공항 및 항구로 입국한 인도네시아인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52.6%, 229.7% 증가하였으며, 특히 인천항으로 입국한 인도네시아인은 약 11배 증가
- 모든 연령층에서 전년 동월 대비 증가를 보인 가운데 50대, 61세 이상이 각각 242.3%, 282.9% 증가로 크게 늘어남
- 여성(+190.3%)이 남성(+134.5%)보다 더 많이 증가하였으며, 선원 및 승무원은 전년 동월 대비 216.8% 증가

10. 베트남

○ 방한 베트남관광객 현황

(단위 : 명, %)

월	2016	증감	2015	증감	2014
1월	8,843	12.0	7,895	39.5	5,661
2월	17,804	81.5	9,809	-24.2	12,942
3월	18,654	1.9	18,309	63.4	11,202
4월	24,455	29.1	18,937	35.2	14,006
5월	18,190	25.6	14,485	7.6	13,464
6월	24,593	126.9	10,840	-15.4	12,820
7월	24,540	167.6	9,172	-26.0	12,393
8월	-	-	12,453	2.0	12,214
9월	-	-	14,052	20.5	11,663
10월	-	-	18,740	30.7	14,339
11월	-	-	16,257	45.9	11,143
12월	-	-	11,816	22.4	9,657
계	137,079	53.3	162,765	15.0	141,5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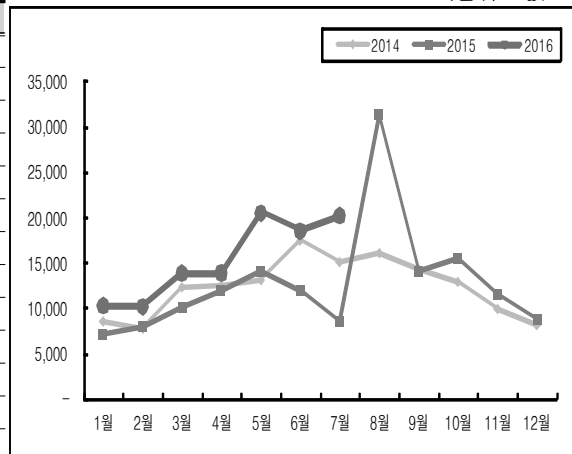
- 베트남은 방학 시즌으로 여행 성수기 지속, 방한 관광 상품 다양화, 신규 항공사 출범 및 항공편 증대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167.6% 증가
- 공항 및 항구로 입국한 베트남인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72.7%, 85.4% 증가
- 모든 연령층에서 전년 동월 대비 증가를 보인 가운데 20세 이하가 전년 동월 대비 약 8배 증가해 가장 많이 늘어남
- 여성(+351.5%)이 남성(+132.2%)보다 더 많이 증가

11. 인도

○ 방한 인도관광객 현황

월	2016	증감	2015	증감	2014
1월	10,312	42.7	7,228	-15.3	8,532
2월	10,230	28.1	7,983	1.4	7,869
3월	13,859	35.8	10,206	-9.6	11,289
4월	13,954	16.5	11,977	-5.2	12,632
5월	20,562	45.2	14,160	7.2	13,204
6월	18,595	56.2	11,903		17,470
7월	20,286	137.2	8,551	-43.2	15,054
8월	-	-	31,461	94.4	16,181
9월	-	-	14,150	-1.1	14,305
10월	-	-	15,476	19.4	12,964
11월	-	-	11,644	15.7	10,066
12월	-	-	8,863	8.5	8,170
계	107,798	49.7	153,602	4.0	147,736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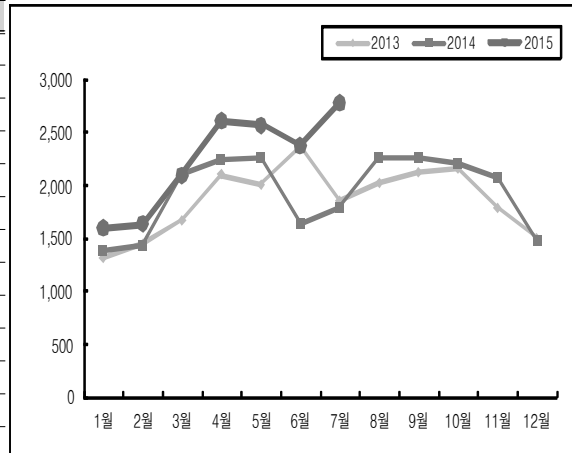
- 인도는 크루즈 입항증대로 선원 및 승무원이 전년 동월 대비 +259.8%로 크게 늘었으며, 항공편이 증대됨에 따라 전년 동월 대비 137.2% 증가
- 항만으로 입국한 인도인이 전년 동월 대비 251.2% 증가하였으며, 이중 인천항이 657.1% 증가로 가장 많이 늘어남
- 여성(+53.8%)이 남성(+24.7%)보다 더 많이 증가

12. 터키

○ 방한 터키관광객 현황

(단위 : 명, %)

월	2016	증감	2015	증감	2014
1월	1,602	15.1	1,392	5.9	1,315
2월	1,639	13.9	1,439	-0.6	1,447
3월	2,098	-0.5	2,109	26.4	1,669
4월	2,614	16.6	2,242	6.7	2,102
5월	2,570	13.3	2,269	13.3	2,003
6월	2,377	44.8	1,642	-30.8	2,373
7월	2,782	56.0	1,783	-4.3	1,863
8월	-	-	2,262	11.4	2,031
9월	-	-	2,265	6.2	2,133
10월	-	-	2,215	2.8	2,154
11월	-	-	2,070	16.0	1,784
12월	-	-	1,478	-2.0	1,508
계	15,682	21.8	23,166	3.5	22,382



○ 터키는 전년 동월 대비 56.0% 증가

○ 공항으로 입국한 터키인은 전년 동월 대비 48.1% 증가하였으며, 특히 인천공항은 +49.9%로 가장 크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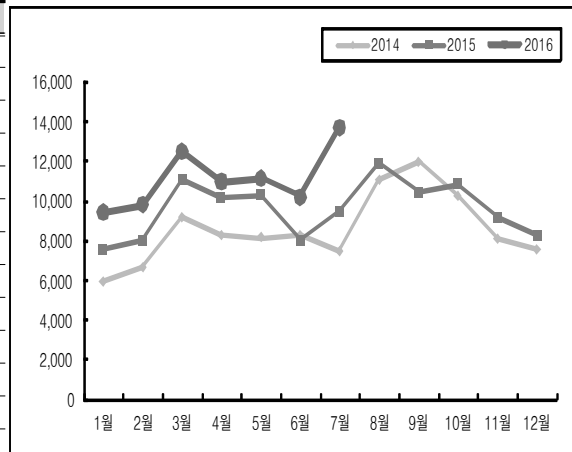
○ 여성(+85.8%)이 남성(+37.0%)보다 더 많이 증가하였으며, 선원 및 승무원은 전년 동월 대비 60.9% 증가

13. 중동

○ 방한 중동관광객 현황

(단위 : 명, %)

월	2016	증감	2015	증감	2014
1월	9,417	24.1	7,590	26.9	5,979
2월	9,823	23.0	7,985	19.2	6,698
3월	12,490	13.0	11,055	20.5	9,178
4월	10,987	8.1	10,167	22.9	8,274
5월	11,153	8.1	10,318	26.5	8,159
6월	10,199	27.6	7,991	-3.4	8,276
7월	13,700	44.2	9,498	26.4	7,517
8월	-	-	11,857	7.1	11,075
9월	-	-	10,459	-12.5	11,959
10월	-	-	10,862	5.8	10,264
11월	-	-	9,224	13.7	8,114
12월	-	-	8,314	9.7	7,582
계	77,769	20.4	115,320	11.9	103,075



* 중동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란 및 GCC 6개국 등 9개국임 (GCC 6개국 : UAE,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바레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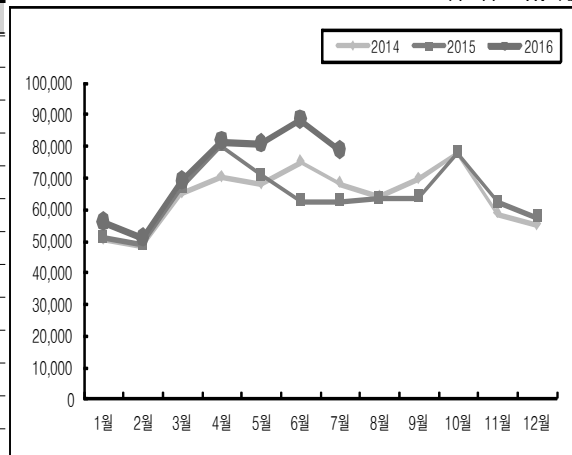
- 중등은 비즈니스 및 의료관광 수요 증가와 한류 확산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44.2% 늘어남
- 공항으로 입국한 중등인이 전년 동월 대비 42.4% 증가하였으며, 이중 인천공항이 +41.6%로 많이 늘어남
-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를 보인 가운데 20세 이하, 61세 이상이 각각 +55.2%, +57.0%로 가장 많이 늘어남
- 여성(+58.0%)이 남성(+31.8%)보다 더 많이 증가

14. 미국

○ 방한 미국관광객 현황

월	2016	증감	2015	증감	2014
1월	55,739	9.5	50,896	1.1	50,347
2월	50,705	4.1	48,728	0.4	48,546
3월	68,719	2.9	66,755	2.7	65,001
4월	81,439	1.6	80,120	14.1	70,195
5월	80,489	13.5	70,891	4.4	67,928
6월	88,276	41.1	62,550	-16.5	74,925
7월	78,526	25.4	62,627	-8.1	68,180
8월	-	-	63,522	-0.7	63,982
9월	-	-	63,793	-8.4	69,655
10월	-	-	77,878	0.1	77,836
11월	-	-	62,273	6.1	58,709
12월	-	-	57,580	4.7	55,001
계	503,893	13.9	767,613	-0.3	770,305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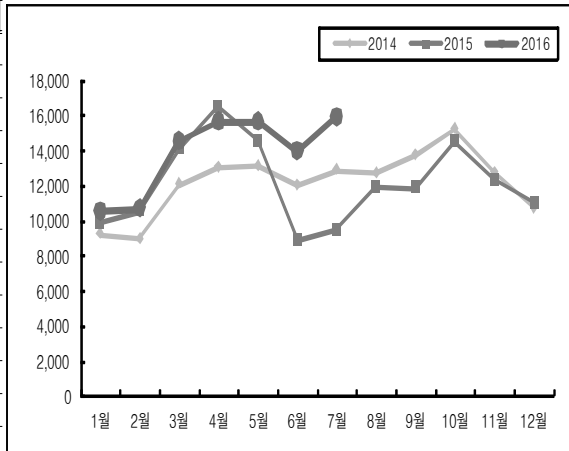
- 미국은 지속적인 경기 호조세, 장거리 여행지에 대한 관심 증가가 방한 관광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전년 동월 대비 25.4% 증가
- 공항 및 항구로 입국한 미국인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24.4%, 54.2% 증가
- 모든 연령층에서 전년 동월 대비 증가를 보인 가운데 20세 이하가 전년 동월 대비 38.0% 증가로 가장 많이 늘어남
- 여성(+32.0%)이 남성(+20.9%)보다 더 많이 증가

15. 캐나다

○ 방한 캐나다관광객 현황

월	2016	증감	2015	증감	2014
1월	10,518	6.3	9,898	7.2	9,233
2월	10,695	1.5	10,537	17.7	8,950
3월	14,492	2.9	14,085	16.7	12,072
4월	15,614	-5.1	16,447	26.3	13,027
5월	15,617	7.4	14,541	11.0	13,103
6월	13,950	56.6	8,909	-25.9	12,028
7월	15,886	67.3	9,496	-26.2	12,865
8월	-	-	11,881	-6.4	12,696
9월	-	-	11,870	-13.8	13,765
10월	-	-	14,505	-4.6	15,203
11월	-	-	12,345	-3.2	12,754
12월	-	-	11,033	2.8	10,733
계	96,772	15.3	145,547	-0.6	146,429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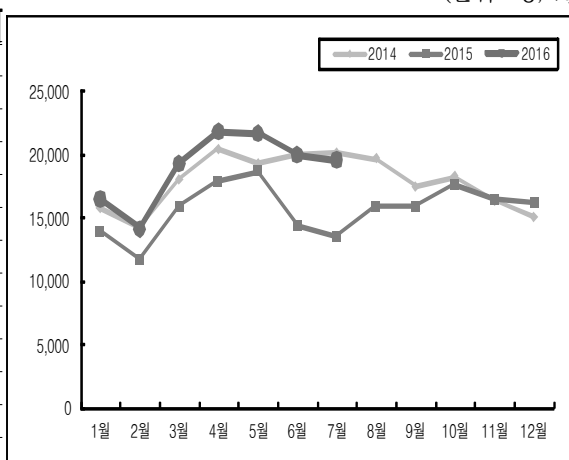
- 캐나다는 직항노선 대형기종 교체, 항공사 신규 취항 등 항공좌석 공급량이 월등히 증가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67.3% 증가
- 공항 및 항구로 입국한 캐나다인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65.4%, 105.9% 증가
-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를 보인 가운데, 20세 이하가 101.0% 증가로 가장 많이 늘어남
- 여성(+79.2%)이 남성(+49.5%)보다 더 많이 증가

16. 러시아

○ 방한 러시아관광객 현황

월	2016	증감	2015	증감	2014
1월	16,462	17.9	13,957	-11.5	15,763
2월	14,122	20.4	11,734	-17.2	14,173
3월	19,244	20.9	15,915	-11.6	17,994
4월	21,734	21.9	17,831	-12.4	20,358
5월	21,651	16.0	18,663	-3.2	19,286
6월	19,911	38.6	14,368	-28.3	20,047
7월	19,559	44.6	13,524	-32.6	20,080
8월	-	-	15,936	-18.9	19,647
9월	-	-	15,904	-8.7	17,418
10월	-	-	17,638	-3.2	18,218
11월	-	-	16,472	1.2	16,279
12월	-	-	16,164	7.0	15,103
계	132,683	25.2	188,106	-12.3	214,366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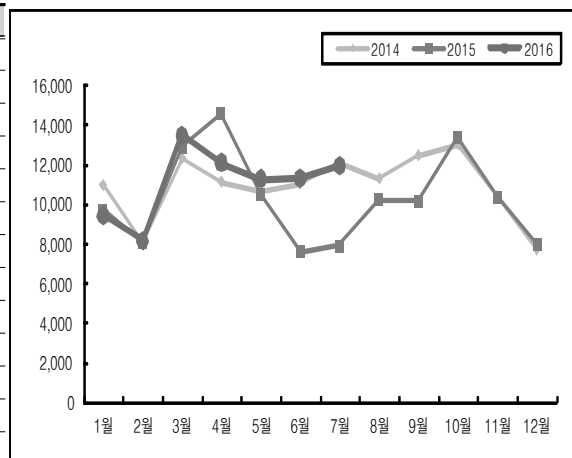
- 러시아는 전년 동월 대비 44.6% 증가
- 공항 및 항구로 입국한 러시아인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46.5%, 39.2% 증가하였으며, 특히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러시아인은 +49.1%로 크게 증가
-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를 보인 가운데, 20세 이하, 20대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67.8%, 56.6% 증가로 크게 늘어남
- 여성(+51.5%)이 남성(+43.8%)보다 더 많이 증가

17. 영국

○ 방한 영국관광객 현황

(단위 : 명, %)

월	2016	증감	2015	증감	2014
1월	9,401	-3.2	9,715	-11.4	10,970
2월	8,141	1.1	8,051	0.5	8,010
3월	13,449	4.5	12,866	4.7	12,292
4월	12,079	-17.0	14,556	30.7	11,141
5월	11,262	7.1	10,512	-1.0	10,617
6월	11,298	48.0	7,632	-30.8	11,029
7월	11,923	50.5	7,921	-34.6	12,116
8월	-	-	10,223	-9.5	11,291
9월	-	-	10,163	-18.2	12,428
10월	-	-	13,345	2.6	13,012
11월	-	-	10,346	-0.6	10,407
12월	-	-	7,944	2.3	7,767
계	77,553	8.8	123,274	-6.0	131,0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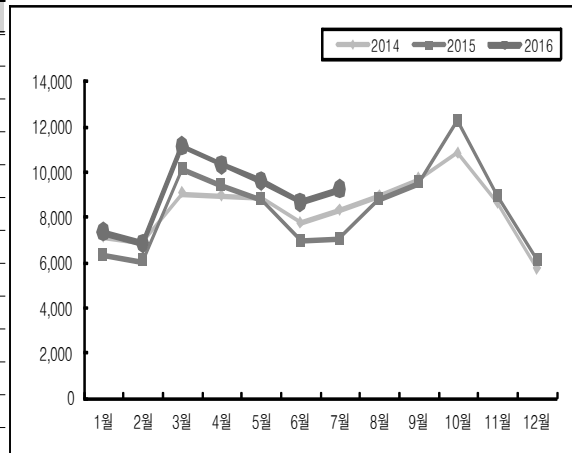
- 영국은 전년 동월 대비 50.5% 증가
- 공항 및 항구로 입국한 영국인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36.7%, 206.2% 증가
-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를 보인 가운데, 20세 이하가 70.0% 증가로 가장 많이 늘어남
- 여성(+82.5%)이 남성(+24.8%)보다 더 많이 증가하였으며, 선원 및 승무원이 전년 동월 대비 116.3% 증가

18. 독일

○ 방한 독일관광객 현황

(단위: 명, %)

월	2016	증감	2015	증감	2014
1월	7,313	15.8	6,316	-11.5	7,140
2월	6,815	12.7	6,046	-12.3	6,897
3월	11,116	9.8	10,123	11.9	9,044
4월	10,292	9.8	9,371	4.6	8,958
5월	9,578	9.2	8,770	-0.7	8,832
6월	8,636	24.8	6,922		7,720
7월	9,210	31.4	7,008	-15.6	8,306
8월	-	-	8,787	-1.7	8,943
9월	-	-	9,525	-1.6	9,682
10월	-	-	12,248	13.5	10,790
11월	-	-	8,953	4.0	8,607
12월	-	-	6,113	7.2	5,705
계	62,960	15.4	100,182	-0.4	100,6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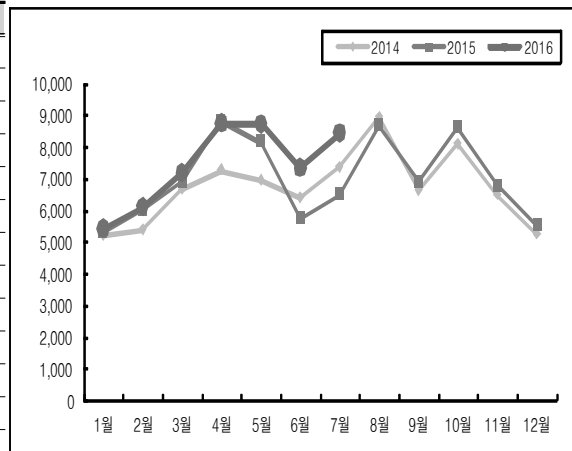
- 독일은 방학 시즌 진입 및 항공사 및 여행사의 FIT 대상 환승관광 프로모션 전개가 방한관광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해 전년 동월 대비 31.4% 증가
- 공항으로 입국한 독일인이 전년 동월 대비 33.1% 증가하였으며, 이중 인천공항이 +33.4%로 많이 늘어남
- 여성(+43.4%)이 남성(+27.4%)보다 더 많이 증가

19. 프랑스

○ 방한 프랑스관광객 현황

(단위: 명, %)

월	2016	증감	2015	증감	2014
1월	5,400	2.2	5,282	1.4	5,210
2월	6,100	2.0	5,978	11.1	5,383
3월	7,160	3.8	6,898	3.6	6,656
4월	8,724	-1.0	8,816	21.3	7,265
5월	8,713	6.6	8,171	17.8	6,939
6월	7,319	27.4	5,744	-10.1	6,390
7월	8,424	30.3	6,467	-12.1	7,358
8월	-	-	8,678	-2.9	8,935
9월	-	-	6,889	4.3	6,604
10월	-	-	8,620	6.7	8,075
11월	-	-	6,784	4.9	8,607
12월	-	-	5,505	5.2	5,234
계	51,840	9.5	83,832	4.1	80,5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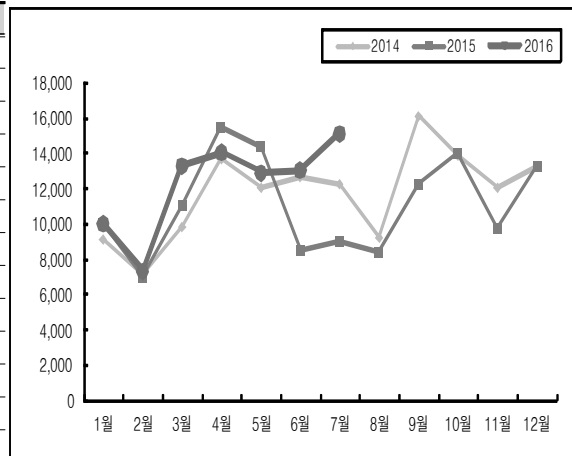
- 프랑스는 전년 동월 대비 30.3% 증가
- 공항으로 입국한 프랑스인이 전년 동월 대비 29.2% 증가하였으며, 이중 인천공항은 29.3% 증가로 많이 늘어남
-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를 보인 가운데, 20세 이하, 61세 이상이 각각 전년 동월 대비 45.4%, 66.4% 증가로 가장 많이 늘어남
- 여성(+33.7%)이 남성(+29.5%)보다 더 많이 증가

20. 호주

○ 방한 호주관광객 현황

월	2016	증감	2015	증감	2014
1월	9,980	-0.2	9,997	10.2	9,073
2월	7,338	4.7	7,010	-1.4	7,106
3월	13,319	21.0	11,005	12.4	9,787
4월	14,065	-9.4	15,526	13.4	13,689
5월	12,895	-10.5	14,409	19.1	12,103
6월	13,020	53.1	8,504		12,662
7월	15,117	67.6	9,017	-26.5	12,261
8월	-	-	8,458	-7.8	9,172
9월	-	-	12,273	-23.9	16,121
10월	-	-	14,002	0.6	13,925
11월	-	-	9,759	-19.2	12,071
12월	-	-	13,306	0.5	13,238
계	85,734	13.6	133,266	-5.6	141,208

(단위 : 명, %)



- 호주는 전년 동월 대비 67.6% 증가
- 공항 및 항구로 입국한 호주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44.8%, 189.8% 증가
-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를 보인 가운데, 방한 주 연령층인 61세 이상이 232.3% 증가로 가장 많이 늘어남
- 여성(+100.3%)이 남성(+65.1%)보다 더 많이 증가

II. 통계월보

성별 국적별 입국 (2016년 7월)

대륙	국적	계				남성		여성		승무원	
		인원 (명)	전년동기 (명)	성장률 (%)	구성비 (%)	인원 (명)	성장률 (%)	인원 (명)	성장률 (%)	인원 (명)	성장률 (%)
총 계		1,703,495	629,737	170.5	100.0	614,834	117.5	930,311	257.1	158,350	83.0
아시아주	중국	917,519	255,632	258.9	53.9	304,229	199.9	579,659	361.1	33,631	18.2
	일본	186,194	81,748	127.8	10.9	79,579	86.3	104,195	188.9	2,420	-18.8
	대만	81,459	9,879	724.6	4.8	28,033	542.4	52,414	901.0	1,012	262.7
	홍콩	58,674	7,761	656.0	3.4	20,775	659.9	37,180	707.0	719	71.2
	필리핀	53,411	23,529	127.0	3.1	8,121	37.0	4,885	125.1	40,405	161.8
	인도네시아	29,404	10,418	182.2	1.7	8,340	134.5	7,355	190.3	13,709	216.8
	태국	27,271	12,130	124.8	1.6	7,846	138.6	14,724	200.2	4,701	19.4
	베트남	24,540	9,172	167.6	1.4	10,504	132.2	11,022	351.5	3,014	36.5
	인도	20,286	8,551	137.2	1.2	4,845	24.7	1,004	53.8	14,437	259.8
	말레이시아	16,208	5,893	175.0	1.0	6,031	152.4	7,867	247.5	2,310	86.3
	싱가포르	11,414	4,439	157.1	0.7	4,395	141.9	5,432	246.4	1,587	50.6
	몽골	6,808	5,746	18.5	0.4	3,006	7.3	3,781	29.9	21	-36.4
	우즈베키스탄	5,772	4,988	15.7	0.3	3,679	11.6	1,744	18.1	349	62.3
	미얀마	5,461	4,204	29.9	0.3	1,847	-3.8	292	83.6	3,322	56.3
	GCC	4,203	2,091	101.0	0.2	2,160	85.7	2,005	122.5	38	40.7
	카자흐스탄	2,829	2,006	41.0	0.2	1,142	28.0	1,528	52.3	159	43.2
	터키	2,782	1,783	56.0	0.2	996	37.0	652	85.8	1,134	60.9
	스리랑카	2,145	1,448	48.1	0.1	1,678	36.3	72	-8.9	395	186.2
	캄보디아	1,758	1,711	2.7	0.1	1,183	-8.5	569	37.4	6	50.0
	이스라엘	992	928	6.9	0.1	687	7.8	257	-1.2	48	54.8
	방글라데시	932	827	12.7	0.1	724	13.5	107	44.6	101	-12.2
이란	896	413	116.9	0.1	485	55.4	203	130.7	208	1500.0	
파키스탄	875	601	45.6	0.1	740	49.5	108	33.3	27	8.0	
아시아 기타	9,233	3,932	134.8	0.5	4,536	68.9	4,160	313.5	537	123.8	
아시아주 소계	1,471,066	459,830	219.9	86.4	505,561	159.6	841,215	327.1	124,290	82.4	
미주	미국	78,526	62,627	25.4	4.6	40,130	20.9	33,446	32.0	4,950	20.9
	캐나다	15,886	9,496	67.3	0.9	7,073	49.5	7,252	79.2	1,561	117.4
	멕시코	1,713	1,466	16.8	0.1	654	-22.0	498	3.3	561	284.2
	브라질	1,578	1,296	21.8	0.1	637	-12.7	407	2.3	534	217.9
	미주 기타	4,158	1,993	108.6	0.2	1,120	31.1	800	27.0	2,238	339.7
미주 소계		101,861	76,878	32.5	6.0	49,614	22.9	42,403	37.3	9,844	74.7

* GCC 6개국(UAE,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바레인)

대륙	국적	계				남성		여성		승무원	
		인원 (명)	전년동기 (명)	성장률 (%)	구성비 (%)	인원 (명)	성장률 (%)	인원 (명)	성장률 (%)	인원 (명)	성장률 (%)
구주	러 시 아	19,559	13,524	44.6	1.1	7,369	43.8	7,775	51.5	4,415	35.2
	영 국	11,923	7,921	50.5	0.7	6,173	24.8	3,702	82.5	2,048	116.3
	독 일	9,210	7,008	31.4	0.5	5,889	27.4	2,133	43.3	1,188	32.7
	프 랑 스	8,424	6,467	30.3	0.5	4,845	29.5	2,957	33.7	622	21.2
	이 탈 리 아	6,229	3,500	78.0	0.4	2,071	13.2	626	8.7	3,532	222.6
	네 덜 란 드	3,495	2,417	44.6	0.2	1,850	30.8	1,041	56.1	604	79.8
	우 크 라 이 나	2,778	2,017	37.7	0.2	591	-4.8	204	0.5	1,983	66.2
	스 페 인	2,247	1,706	31.7	0.1	1,268	29.9	703	32.6	276	38.0
	루 마 니 아	1,748	793	120.4	0.1	309	14.4	138	7.8	1,301	229.4
	스 웨 덴	1,548	1,148	34.8	0.1	910	19.7	565	60.1	73	108.6
	스 위 스	1,538	1,290	19.2	0.1	936	16.1	561	26.9	41	-2.4
	노 르 웨 이	1,347	1,556	-13.4	0.1	836	-19.9	434	-6.5	77	60.4
	폴 란 드	1,334	1,183	12.8	0.1	576	-1.5	349	14.4	409	39.6
	포 르 투 갈	1,258	359	250.4	0.1	341	84.3	451	406.7	466	448.2
	덴 마 크	1,096	952	15.1	0.1	629	10.9	368	39.9	99	-18.9
	벨 기 에	1,095	854	28.2	0.1	608	20.2	372	34.8	115	59.7
	오 스트 리 아	1,074	817	31.5	0.1	628	29.0	300	38.9	146	28.1
	불 가 리 아	956	443	115.8	0.1	165	31.0	96	41.2	695	179.1
	그 리 스	910	692	31.5	0.1	398	-2.7	120	114.3	392	72.7
	크 로 아 티 아	902	448	101.3	0.1	203	-12.9	37	27.6	662	255.9
대양주	핀 란 드	874	684	27.8	0.1	353	9.3	193	25.3	328	58.5
	아 일 랜 드	649	462	40.5	0.0	388	20.9	198	81.7	63	96.9
	구 주 기 타	3,887	2,947	31.9	0.2	1,145	-17.6	829	-4.9	1,913	179.3
	구 주 소 계	84,081	59,188	42.1	4.9	38,481	23.0	24,152	45.0	21,448	90.9
대양주	오스트레일리아	15,117	9,017	67.6	0.9	7,736	65.1	6,933	100.3	448	-48.4
	뉴 질 랜 드	3,147	2,189	43.8	0.2	1,534	34.3	1,415	51.5	198	75.2
	대 양 주 기 타	657	527	24.7	0.0	300	26.1	173	58.7	184	2.2
	대 양 주 소 계	18,921	11,733	61.3	1.1	9,570	57.7	8,521	89.2	830	-28.6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1,377	657	109.6	0.1	409	22.5	318	56.7	650	441.7
	아프리카 기타	4,210	2,514	67.5	0.2	2,071	21.5	870	54.5	1,269	413.8
	아프리카 소계	5,587	3,171	76.2	0.3	2,480	21.7	1,188	55.1	1,919	422.9
기타	국 적 미 상	62	38	63.2	0.0	36	63.6	7	0.0	19	111.1
	기 타 소 계	62	38	63.2	0.0	36	63.6	7	0.0	19	111.1
교포	교 포	21,917	18,899	16.0	1.3	9,092	11.3	12,825	19.5	0	-
	교 포 소 계	21,917	18,899	16.0	1.3	9,092	11.3	12,825	19.5	0	-

성별 국적별 입국 (2016년 1월~7월)

대륙	국적	계				남성		여성		승무원	
		인원 (명)	전년동기 (명)	성장률 (%)	구성비 (%)	인원 (명)	성장률 (%)	인원 (명)	성장률 (%)	인원 (명)	성장률 (%)
	총 계	9,813,342	7,305,345	34.3	100.0	3,716,242	27.2	5,271,811	44.3	825,289	13.1
아시아주	중 국	4,734,275	3,256,682	45.4	48.2	1,625,894	43.0	2,938,276	57.4	170,105	-32.8
	일 본	1,226,109	1,026,927	19.4	12.5	525,564	13.3	685,249	27.0	15,296	-34.3
	대 만	476,924	300,329	58.8	4.9	156,407	56.4	314,789	61.3	5,728	10.3
	홍 콩	371,607	281,545	32.0	3.8	124,707	28.7	242,521	34.8	4,379	-6.4
	필 리 핀	305,983	223,444	36.9	3.1	63,481	11.8	47,158	20.1	195,344	53.3
	태 국	275,668	230,359	19.7	2.8	84,749	16.4	160,989	24.9	29,930	4.3
	인 도 네 시 아	161,428	106,406	51.7	1.6	46,701	25.0	44,840	43.2	69,887	85.2
	말 레 이 시 아	153,817	112,071	37.2	1.6	56,659	30.3	83,292	41.0	13,866	45.3
	베 트 남	137,079	89,447	53.3	1.4	60,377	46.6	57,107	88.7	19,595	8.9
	인 도	107,798	72,008	49.7	1.1	34,413	10.2	7,352	27.2	66,033	88.7
	싱 가 포 르	105,579	80,084	31.8	1.1	41,081	27.9	54,048	33.9	10,450	37.5
	몽 골	44,567	44,102	1.1	0.5	21,384	-3.4	23,006	5.9	177	-30.3
	미 안 마	39,741	33,828	17.5	0.4	16,157	6.4	2,471	24.0	21,113	26.8
	우즈베키스탄	39,166	32,021	22.3	0.4	26,185	20.1	10,834	22.9	2,147	52.5
	카자흐스탄	19,800	16,724	18.4	0.2	8,825	26.8	9,884	9.5	1,091	48.2
	캄보디아	19,777	16,775	17.9	0.2	13,293	7.1	5,740	33.9	744	962.9
	터 키	15,682	12,876	21.8	0.2	6,374	9.0	2,705	28.8	6,603	33.9
	G C C	14,672	13,027	12.6	0.1	8,753	3.5	5,691	29.4	228	35.7
	스 리 랑 카	13,850	10,757	28.8	0.1	10,982	23.9	660	21.1	2,208	64.2
	방글라데시	7,631	6,299	21.1	0.1	6,029	25.5	656	43.2	946	-8.9
	이 스 라 엘	7,317	7,234	1.1	0.1	4,947	3.1	2,198	5.7	172	-52.0
	파 키 스 탄	7,133	6,079	17.3	0.1	6,113	18.2	777	15.6	243	3.4
	이 란	4,131	2,832	45.9	0.0	2,689	21.6	809	42.2	633	1141.2
	아시아 기타	56,524	42,613	32.6	0.6	28,863	21.4	24,829	48.6	2,832	33.1
	아시아주소계	8,346,258	6,024,469	38.5	85.1	2,980,627	32.2	4,725,881	48.2	639,750	10.4
미주	미 국	503,893	442,567	13.9	5.1	264,552	10.9	207,323	18.8	32,018	8.0
	캐 나 다	96,772	83,913	15.3	1.0	45,799	12.3	44,238	20.2	6,735	6.4
	브 라 질	9,985	9,025	10.6	0.1	4,664	-4.9	2,719	3.0	2,602	75.8
	멕 시 코	8,738	8,017	9.0	0.1	4,041	-8.9	2,661	5.7	2,036	91.0
	미 주 기타	21,564	17,029	26.6	0.2	7,601	3.1	5,063	13.2	8,900	71.5
	미 주소계	640,952	560,551	14.3	6.5	326,657	10.4	262,004	18.6	52,291	19.6

* GCC 6개국(UAE,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바레인)

대륙	국적	계				남성		여성		승무원	
		인원 (명)	전년동기 (명)	성장률 (%)	구성비 (%)	인원 (명)	성장률 (%)	인원 (명)	성장률 (%)	인원 (명)	성장률 (%)
구주	러 시 아	132,683	105,992	25.2	1.4	54,561	31.9	45,776	27.7	32,346	12.4
	영 국	77,553	71,253	8.8	0.8	44,295	5.0	23,424	21.3	9,834	0.8
	독 일	62,960	54,556	15.4	0.6	41,546	12.2	14,351	25.6	7,063	16.0
	프 랑 스	51,840	47,356	9.5	0.5	31,428	9.5	16,129	16.5	4,283	-11.0
	이 탈 리 아	34,828	24,232	43.7	0.4	14,814	13.3	3,924	22.7	16,090	102.1
	네 덜 란 드	18,563	16,092	15.4	0.2	10,714	7.3	4,189	25.5	3,660	31.9
	우 크 라 이 나	17,094	13,914	22.9	0.2	4,406	10.6	1,411	19.8	11,277	28.8
	스 페 인	12,519	10,778	16.2	0.1	7,298	12.5	3,506	23.1	1,715	18.9
	노 르 웨 이	10,678	11,459	-6.8	0.1	7,490	-11.8	2,849	9.1	339	-4.8
	스 웨 덴	10,197	9,314	9.5	0.1	6,315	5.4	3,316	20.4	566	-0.7
	루 마 니 아	9,711	7,027	38.2	0.1	2,407	9.9	960	31.3	6,344	54.5
	폴 란 드	8,465	7,898	7.2	0.1	4,075	6.4	1,848	22.5	2,542	-0.7
	스 위 스	8,254	7,355	12.2	0.1	5,545	14.1	2,453	14.1	256	-26.0
	핀 란 드	7,234	6,223	16.2	0.1	3,324	4.1	1,834	18.7	2,076	39.8
	덴 마 크	6,569	6,731	-2.4	0.1	4,252	-2.7	1,533	5.9	784	-14.4
	오 스트 리 아	6,384	5,349	19.3	0.1	4,006	18.1	1,367	18.9	1,011	25.3
	벨 기 에	6,268	6,102	2.7	0.1	3,956	7.5	1,648	9.9	664	-28.1
	그 리 스	6,234	5,342	16.7	0.1	3,021	11.1	587	22.8	2,626	22.5
	포 르 투 갈	6,182	4,608	34.2	0.1	2,220	14.5	2,552	32.7	1,410	89.0
	불 가 리 아	5,768	3,745	54.0	0.1	1,269	28.3	590	54.0	3,909	64.7
	크 로 아 티 아	4,463	3,236	37.9	0.0	1,364	-6.3	235	16.9	2,864	81.4
	아 일 랜 드	4,401	4,049	8.7	0.0	2,754	2.5	1,276	22.9	371	14.2
	구 주 기 타	21,583	18,674	15.6	0.2	8,524	-3.7	4,879	4.5	8,180	58.7
	구 주 소 계	530,431	451,285	17.5	5.4	269,584	11.6	140,637	22.2	120,210	26.9
대양주	오스트레일리아	85,734	75,468	13.6	0.9	45,448	17.8	37,726	23.4	2,560	-59.5
	뉴 질 랜 드	17,462	15,694	11.3	0.2	9,063	9.3	7,250	11.7	1,149	26.1
	대 양 주 기 타	3,872	3,490	10.9	0.0	1,778	6.0	1,032	14.5	1,062	16.4
	대 양 주 소 계	107,068	94,652	13.1	1.1	56,289	16.0	46,008	21.2	4,771	-41.5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7,252	5,634	28.7	0.1	2,761	7.1	2,235	16.6	2,256	98.1
	아프리카 기타	24,124	17,765	35.8	0.2	13,965	13.3	4,298	24.6	5,861	194.2
	아프리카 소계	31,376	23,399	34.1	0.3	16,726	12.2	6,533	21.8	8,117	159.2
기타	국 적 미 상	426	325	31.1	0.0	188	31.5	88	60.0	150	18.1
	기 타 소 계	426	325	31.1	0.0	188	31.5	88	60.0	150	18.1
교포	교 포	156,831	150,664	4.1	1.6	66,171	1.0	90,660	6.5	0	-
	교 포 소 계	156,831	150,664	4.1	1.6	66,171	1.0	90,660	6.5	0	-

연령별 국적별 입국 (2016년 7월)

대륙	국적	계				0~20		21~30		31~40		41~50		51~60		61세이상		승무원	
		인원 (명)	전년 동기 (명)	성장 률 (%)	구성 비 (%)	인원 (명)	성장 률 (%)	인원 (명)	성장 률 (%)	인원 (명)	성장 률 (%)	인원 (명)	성장 률 (%)	인원 (명)	성장 률 (%)	인원 (명)	성장 률 (%)	인원 (명)	성장 률 (%)
총 계		1,703,495	629,737	170.5	100.0	325,778	359.0	308,476	152.0	314,846	174.3	270,018	157.0	179,826	118.9	146,201	205.9	158,350	83.0
아시아주	중 국	917,519	255,632	258.9	53.9	214,101	589.1	174,415	235.9	188,557	284.3	139,337	241.9	84,207	146.6	83,271	311.5	33,631	18.2
	일 본	186,194	81,748	127.8	10.9	16,983	245.7	35,361	183.2	33,248	107.5	39,425	95.3	32,989	124.5	25,768	146.3	2,420	-18.8
	대 만	81,459	9,879	724.6	4.8	22,614	1976.6	12,095	427.9	15,936	417.9	17,650	856.1	7,403	685.9	4,749	1237.7	1,012	262.7
	홍 콩	58,674	7,761	656.0	3.4	15,784	1169.8	9,553	438.5	9,059	453.1	12,379	703.3	7,458	759.2	3,722	1243.7	719	71.2
	필 리 핀	53,411	23,529	127.0	3.1	897	83.1	3,629	57.0	3,764	43.1	2,581	75.6	1,500	63.4	635	129.2	40,405	161.8
	인도네시아	29,404	10,418	182.2	1.7	3,305	192.2	4,057	134.6	2,965	105.5	2,465	153.1	1,804	242.3	1,099	282.9	13,709	216.8
	태 국	27,271	12,130	124.8	1.6	2,205	234.1	7,159	110.2	6,099	148.1	3,398	255.1	2,462	369.0	1,247	563.3	4,701	19.4
	베 트 남	24,540	9,172	167.6	1.4	3,706	700.4	4,797	64.5	4,844	189.9	3,945	331.6	3,123	328.4	1,111	310.0	3,014	36.5
	인 도	20,286	8,551	137.2	1.2	321	-0.3	1,497	25.2	2,120	34.3	1,210	32.1	506	40.2	195	18.2	14,437	259.8
	말레이시아	16,208	5,893	175.0	1.0	2,135	223.5	3,943	182.0	3,011	176.7	2,328	189.6	1,736	225.7	745	338.2	2,310	86.3
	싱 가 포 르	11,414	4,439	157.1	0.7	720	364.5	3,065	141.3	1,956	182.3	1,912	182.4	1,544	228.5	630	425.0	1,587	50.6
	몽 골	6,808	5,746	18.5	0.4	1,235	41.6	1,830	1.7	1,904	19.6	1,187	19.4	485	41.0	146	31.5	21	-36.4
	우즈베키스탄	5,772	4,988	15.7	0.3	482	0.8	1,793	9.9	1,689	15.2	816	20.4	436	15.3	207	46.8	349	62.3
	미 얀 마	5,461	4,204	29.9	0.3	63	1.6	897	-14.0	689	15.0	323	24.7	147	40.0	20	100.0	3,322	56.3
	G C C	4,203	2,091	101.0	0.2	1,521	100.9	1,129	86.9	641	94.2	497	128.0	298	122.4	79	276.2	38	40.7
	카자흐스탄	2,829	2,006	41.0	0.2	539	33.4	736	31.9	565	74.9	388	49.2	263	23.5	179	30.7	159	43.2
	터 키	2,782	1,783	56.0	0.2	194	60.3	502	31.4	446	59.3	285	57.5	158	92.7	63	96.9	1,134	60.9
스 리 랑 카	2,145	1,448	48.1	0.1	51	410.0	839	50.4	681	7.9	117	56.0	50	72.4	12	71.4	395	186.2	
캄 보 디 아	1,758	1,711	2.7	0.1	186	36.8	976	-8.7	374	6.9	97	31.1	81	68.8	38	26.7	6	50.0	
이 스 라 엘	992	928	6.9	0.1	89	-13.6	115	-10.2	209	4.5	217	27.6	177	12.0	137	-0.7	48	54.8	
방글라데시	932	827	12.7	0.1	59	78.8	255	-7.6	297	19.3	132	36.1	72	53.2	16	60.0	101	-12.2	
이 란	896	413	116.9	0.1	54	58.8	113	85.2	221	70.0	162	48.6	107	118.4	31	82.4	208	1500.0	
파 키 스 탄	875	601	45.6	0.1	64	33.3	215	25.7	340	70.9	164	57.7	52	18.2	13	30.0	27	8.0	
아시아 기타	9,233	3,932	134.8	0.5	1,759	290.0	2,889	79.2	1,844	98.3	1,227	212.2	645	172.2	332	381.2	537	123.8	
아시아주소계	1,471,066	459,830	219.9	86.4	289,067	532.5	271,860	193.6	281,459	217.5	232,242	211.1	147,703	161.1	124,445	271.1	124,290	82.4	
미주	미 국	78,526	62,627	25.4	4.6	18,303	38.0	12,552	22.9	10,769	23.3	13,395	21.3	11,619	21.6	6,938	21.2	4,950	20.9
	캐 나 다	15,886	9,496	67.3	0.9	3,407	101.0	2,997	48.5	2,085	42.1	2,660	65.4	2,235	56.4	941	67.7	1,561	117.4
	멕 시 코	1,713	1,466	16.8	0.1	154	0.7	415	-25.1	245	-14.3	174	-4.4	122	10.9	42	20.0	561	284.2
	브 라 질	1,578	1,296	21.8	0.1	161	15.0	298	-23.6	267	4.3	162	-10.5	106	1.9	50	-12.3	534	217.9
	미주 기타	4,158	1,993	108.6	0.2	228	45.2	588	22.2	491	30.6	299	32.3	205	18.5	109	53.5	2,238	339.7
미주 소계		101,861	76,878	32.5	6.0	22,253	44.4	16,850	23.4	13,857	24.6	16,690	26.1	14,287	25.7	8,080	25.3	9,844	74.7
구주	러 시 아	19,559	13,524	44.6	1.1	3,237	67.8	3,830	56.6	3,271	44.7	2,490	42.1	1,571	16.4	745	43.3	4,415	35.2
	영 국	11,923	7,921	50.5	0.7	1,703	70.0	1,991	55.2	1,678	27.3	1,805	17.6	1,772	37.5	926	69.3	2,048	116.3
	독 일	9,210	7,008	31.4	0.5	1,103	63.4	1,490	20.2	1,706	34.9	1,820	24.5	1,391	27.4	512	35.1	1,188	32.7

* GCC 6개국(UAE,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바레인)

대 륙	국 적	계				0~20		21~30		31~40		41~50		51~60		61세이상		승무원	
		인원 (명)	전년 동기 (명)	성장 률 (%)	구성 비 (%)	인원 (명)	성장 률 (%)	인원 (명)	성장 률 (%)	인원 (명)	성장 률 (%)	인원 (명)	성장 률 (%)	인원 (명)	성장 률 (%)	인원 (명)	성장 률 (%)	인원 (명)	성장 률 (%)
구 주	프 랑 스	8,424	6,467	30.3	0.5	1,368	45.4	1,908	14.9	1,672	32.6	1,504	31.4	974	35.3	376	66.4	622	21.2
	이 탈 리 아	6,229	3,500	78.0	0.4	211	38.8	483	5.0	690	17.5	755	19.7	410	-0.2	148	-9.8	3,532	222.6
	네 델 란 드	3,495	2,417	44.6	0.2	493	40.1	734	46.8	442	48.3	591	34.0	470	34.7	161	14.2	604	79.8
	우크라이나	2,778	2,017	37.7	0.2	90	-10.9	260	-4.4	215	17.5	131	3.1	77	-30.6	22	-26.7	1,983	66.2
	스 페 인	2,247	1,706	31.7	0.1	223	57.0	425	11.3	562	27.7	420	41.9	254	53.9	87	7.4	276	38.0
	루 마 니 아	1,748	793	120.4	0.1	27	-3.6	123	-6.8	149	44.7	96	20.0	39	-2.5	13	-13.3	1,301	229.4
	스 웨 덴	1,548	1,148	34.8	0.1	252	81.3	408	13.6	294	33.6	264	49.2	174	11.5	83	33.9	73	108.6
	스 위 스	1,538	1,290	19.2	0.1	290	38.1	385	4.3	229	15.7	265	18.3	229	27.2	99	47.8	41	-2.4
	노 르 웨 이	1,347	1,556	-13.4	0.1	204	-13.2	280	-26.1	257	-11.7	219	-22.6	234	-0.4	76	-10.6	77	60.4
	폴 란 드	1,334	1,183	12.8	0.1	92	27.8	250	-12.0	290	22.4	136	0.7	87	-18.7	70	27.3	409	39.6
	포 르 투 갈	1,258	359	250.4	0.1	155	675.0	153	128.4	154	97.4	153	168.4	126	231.6	51	264.3	466	448.2
	덴 마 크	1,096	952	15.1	0.1	151	18.0	271	27.2	158	19.7	210	15.4	146	9.0	61	48.8	99	-18.9
	벨 기 에	1,095	854	28.2	0.1	174	51.3	249	13.7	162	15.7	192	27.2	153	30.8	50	25.0	115	59.7
	오스트리아	1,074	817	31.5	0.1	126	100.0	221	11.6	211	41.6	187	23.8	142	44.9	41	-6.8	146	28.1
	불 가 리 아	956	443	115.8	0.1	12	200.0	66	57.1	61	10.9	71	61.4	42	2.4	9	12.5	695	179.1
	그 리 스	910	692	31.5	0.1	56	80.6	95	14.5	131	-0.8	96	9.1	93	19.2	47	-11.3	392	72.7
	크로아티아	902	448	101.3	0.1	7	-36.4	47	-24.2	72	-1.4	60	-6.3	42	-2.3	12	33.3	662	255.9
	핀 란 드	874	684	27.8	0.1	60	76.5	131	-20.1	122	22.0	110	19.6	84	25.4	39	95.0	328	58.5
	아 일 랜 드	649	462	40.5	0.0	66	144.4	157	15.4	161	40.0	107	35.4	69	35.3	26	18.2	63	96.9
	구 주 기타	3,887	2,947	31.9	0.2	227	-11.0	671	-29.9	520	0.4	273	-1.4	181	4.6	102	24.4	1,913	179.3
	구 주 소 계	84,081	59,188	42.1	4.9	10,327	54.9	14,628	22.8	13,207	30.1	11,955	26.2	8,760	24.3	3,756	38.9	21,448	90.9
대 양 주	오스트레일리아	15,117	9,017	67.6	0.9	1,799	49.5	1,941	38.6	2,120	49.1	2,235	54.1	2,101	58.3	4,473	232.3	448	-48.4
	뉴 질 란 드	3,147	2,189	43.8	0.2	479	32.0	405	-1.5	463	29.0	354	25.5	429	14.7	819	185.4	198	75.2
	대양주 기타	657	527	24.7	0.0	46	17.9	124	34.8	114	23.9	89	45.9	77	97.4	23	-4.2	184	2.2
	대양주소계	18,921	11,733	61.3	1.1	2,324	44.8	2,470	29.8	2,697	44.0	2,678	49.4	2,607	49.8	5,315	220.8	830	-28.6
아 프 리 카	남아프리카공화국	1,377	657	109.6	0.1	31	24.0	206	6.7	189	50.0	130	62.5	125	43.7	46	76.9	650	441.7
	아프리카 기타	4,210	2,514	67.5	0.2	273	46.8	736	2.6	821	28.9	609	39.7	379	65.5	123	98.4	1,269	413.8
	아프리카소계	5,587	3,171	76.2	0.3	304	44.1	942	3.5	1,010	32.4	739	43.2	504	59.5	169	92.0	1,919	422.9
기 타	국 적 미 상	62	38	63.2	0.0	5	150.0	9	0.0	10	66.7	8	60.0	8	33.3	3	200.0	19	111.1
	기 타 소 계	62	38	63.2	0.0	5	150.0	9	0.0	10	66.7	8	60.0	8	33.3	3	200.0	19	111.1
교 포	교 포	21,917	18,899	16.0	1.3	1,498	8.7	1,717	18.7	2,606	17.2	5,706	5.9	5,957	16.7	4,433	32.0	0	-
	교 포 소 계	21,917	18,899	16.0	1.3	1,498	8.7	1,717	18.7	2,606	17.2	5,706	5.9	5,957	16.7	4,433	32.0	0	-

연령별 국적별 입국 (2016년 1월~7월)

대 륙	국 적	계				0~20		21~30		31~40		41~50		51~60		61세이상		승무원	
		인원 (명)	전년 동기 (명)	성장 률 (%)	구성 비 (%)	인원 (명)	성장 률 (%)	인원 (명)	성장 률 (%)	인원 (명)	성장 률 (%)	인원 (명)	성장 률 (%)	인원 (명)	성장 률 (%)	인원 (명)	성장 률 (%)	인원 (명)	성장 률 (%)
총 계		9,813,342	7,305,345	34.3	100.0	989,717	75.0	2,193,721	37.0	1,955,439	33.0	1,513,431	27.0	1,317,370	27.9	1,018,375	41.9	825,289	13.1
아 시 아 주	중 국	4,734,275	3,256,682	45.4	48.2	507,347	117.1	1,216,968	47.5	1,023,144	48.0	673,693	37.4	620,585	37.7	522,433	67.3	170,105	-32.8
	일 본	1,226,109	1,026,927	19.4	12.5	97,699	37.5	247,759	26.5	210,756	15.5	252,360	15.0	220,249	21.4	181,990	18.7	15,296	-34.3
	대 만	476,924	300,329	58.8	4.9	71,037	113.1	105,662	48.5	122,252	43.6	87,504	68.0	51,807	58.7	32,934	58.6	5,728	10.3
	홍 콩	371,607	281,545	32.0	3.8	56,868	66.0	85,672	30.7	73,485	19.2	69,943	26.7	54,666	32.9	26,594	39.2	4,379	-6.4
	필 리 핀	305,983	223,444	36.9	3.1	10,607	11.7	27,942	19.6	31,372	11.3	20,554	14.6	13,475	16.3	6,689	22.4	195,344	53.3
	태 국	275,668	230,359	19.7	2.8	25,325	19.7	66,989	28.5	69,080	16.9	40,578	18.2	28,171	21.9	15,595	31.9	29,930	4.3
	인도네시아	161,428	106,406	51.7	1.6	12,098	78.8	24,727	25.1	21,221	15.9	16,206	30.8	10,825	45.3	6,464	61.6	69,887	85.2
	말레이시아	153,817	112,071	37.2	1.6	17,635	52.1	40,553	43.9	32,683	31.1	21,342	30.4	17,978	28.5	9,760	30.7	13,866	45.3
	베 트 남	137,079	89,447	53.3	1.4	13,872	174.7	31,156	41.1	29,446	61.1	19,794	66.7	16,422	59.8	6,794	74.5	19,595	8.9
	인 도	107,798	72,008	49.7	1.1	2,424	18.0	9,847	2.7	14,736	11.5	8,751	18.7	4,004	20.8	2,003	36.9	66,033	88.7
	싱 가 포 르	105,579	80,084	31.8	1.1	11,234	48.9	25,393	33.5	19,085	24.1	17,643	27.4	14,205	27.4	7,569	36.6	10,450	37.5
	몽 골	44,567	44,102	1.1	0.5	5,565	15.6	11,316	-3.9	13,129	-1.9	8,914	2.0	4,008	9.6	1,458	-0.8	177	-30.3
	미 얀 마	39,741	33,828	17.5	0.4	599	12.0	8,649	8.5	5,656	7.3	2,413	6.6	1,068	15.1	253	15.0	21,113	26.8
	우즈베키스탄	39,166	32,021	22.3	0.4	2,108	21.4	12,224	18.1	11,947	22.1	6,114	22.0	3,231	16.3	1,395	46.8	2,147	52.5
	카자흐스탄	19,800	16,724	18.4	0.2	2,613	10.9	5,320	42.1	4,502	34.2	2,911	2.2	2,044	-7.2	1,319	-11.0	1,091	48.2
	캄 보 디 아	19,777	16,775	17.9	0.2	1,193	7.7	11,517	9.0	4,048	18.1	1,015	32.2	793	51.9	467	47.3	744	962.9
	터 키	15,682	12,876	21.8	0.2	496	28.2	2,195	15.6	2,925	15.0	1,877	9.0	1,076	26.9	510	-6.9	6,603	33.9
G C C	14,672	13,027	12.6	0.1	3,432	32.5	4,374	9.5	3,100	4.4	1,950	7.3	1,204	5.1	384	11.3	228	35.7	
스 리 랑 카	13,850	10,757	28.8	0.1	263	92.0	5,369	27.6	4,501	13.7	867	23.3	458	50.2	184	80.4	2,208	64.2	
방글라데시	7,631	6,299	21.1	0.1	313	60.5	2,063	8.6	2,501	31.5	1,012	37.5	594	42.4	202	80.4	946	-8.9	
이 스 라 엘	7,317	7,234	1.1	0.1	296	-4.2	721	-0.6	1,373	-2.3	1,442	12.2	1,254	-0.3	2,069	8.8	172	-52.0	
파 키 스 탄	7,133	6,079	17.3	0.1	439	12.6	1,945	13.2	2,697	27.4	1,171	13.6	483	8.8	155	7.6	243	3.4	
이 란	4,131	2,832	45.9	0.0	200	22.0	542	9.9	1,288	26.0	865	30.1	444	37.0	159	40.7	633	1141.2	
아시아 기타	56,524	42,613	32.6	0.6	5,229	65.1	20,673	24.2	12,863	25.6	7,320	35.0	5,236	45.6	2,371	67.2	2,832	33.1	
아시아주소계	8,346,258	6,024,469	38.5	85.1	848,892	87.0	1,969,576	39.9	1,717,790	36.4	1,266,239	31.3	1,074,270	33.4	829,741	49.7	639,750	10.4	
미 주	미 국	503,893	442,567	13.9	5.1	71,473	29.0	77,421	15.4	74,998	14.1	83,151	10.3	89,008	8.4	75,824	12.9	32,018	8.0
	캐 나 다	96,772	83,913	15.3	1.0	10,902	38.4	18,929	13.2	15,620	14.1	15,123	16.2	17,148	11.9	12,315	12.4	6,735	6.4
	브 라 질	9,985	9,025	10.6	0.1	659	18.5	1,975	-11.5	2,084	7.5	1,147	-10.6	891	2.1	627	-5.4	2,602	75.8
	멕 시 코	8,738	8,017	9.0	0.1	525	6.3	2,136	-5.9	1,769	-2.0	1,136	-0.2	718	-9.6	418	-6.9	2,036	91.0
	미주 기타	21,564	17,029	26.6	0.2	903	0.4	3,430	3.1	3,393	8.4	2,219	6.0	1,647	7.2	1,072	25.4	8,900	71.5
미주 소계		640,952	560,551	14.3	6.5	84,462	29.5	103,891	13.4	97,864	13.4	102,776	10.6	109,412	8.7	90,256	12.7	52,291	19.6
구 주	러 시 아	132,683	105,992	25.2	1.4	12,521	28.2	23,921	54.3	25,819	35.6	18,750	24.8	13,435	8.9	5,891	6.1	32,346	12.4
	영 국	77,553	71,253	8.8	0.8	5,510	31.9	12,711	20.2	12,910	4.1	12,498	0.7	13,440	5.0	10,650	16.6	9,834	0.8
	독 일	62,960	54,556	15.4	0.6	3,965	38.3	9,717	18.8	12,498	13.8	13,184	4.8	10,839	15.6	5,694	26.9	7,063	16.0

* GCC 6개국(UAE,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바레인)

대 륙	국적	계				0~20		21~30		31~40		41~50		51~60		61세이상		승무원	
		인원 (명)	전년 동기 (명)	성장 률 (%)	구성 비 (%)	인원 (명)	성장 률 (%)	인원 (명)	성장 률 (%)	인원 (명)	성장 률 (%)	인원 (명)	성장 률 (%)	인원 (명)	성장 률 (%)	인원 (명)	성장 률 (%)	인원 (명)	성장 률 (%)
구 주	프 랑 스	51,840	47,366	9.5	0.5	4,762	22.7	11,133	12.5	11,376	13.2	9,863	7.1	6,778	8.6	3,645	11.7	4,283	-11.0
	이 탈 리 아	34,828	24,232	43.7	0.4	694	18.2	2,955	18.9	4,990	8.9	5,449	17.8	3,250	12.1	1,400	28.3	16,090	102.1
	네 델 란 드	18,563	16,092	15.4	0.2	1,184	26.2	3,021	20.8	2,895	10.0	3,523	3.6	2,940	15.8	1,340	2.3	3,660	31.9
	우크라이나	17,094	13,914	22.9	0.2	373	10.4	1,934	14.0	1,563	12.8	1,039	13.8	718	7.8	190	18.0	11,277	28.8
	스 페 인	12,519	10,778	16.2	0.1	609	38.1	2,293	10.8	3,459	14.6	2,517	17.1	1,300	17.4	626	13.8	1,715	18.9
	노 르 웨 이	10,678	11,459	-6.8	0.1	1,040	6.2	1,878	-6.0	1,955	-12.3	2,209	-15.8	2,267	-1.6	990	2.0	339	-4.8
	스 웨 덴	10,197	9,314	9.5	0.1	872	15.0	2,224	12.9	1,932	6.6	2,109	9.6	1,605	6.8	889	14.6	566	-0.7
	루 마 니 아	9,711	7,027	38.2	0.1	126	24.8	762	3.8	1,154	20.5	762	12.6	417	25.6	146	21.7	6,344	54.5
	폴 란 드	8,465	7,898	7.2	0.1	278	31.8	1,458	-2.5	1,943	10.3	1,090	18.6	716	15.3	438	32.7	2,542	-0.7
	스 위 스	8,254	7,355	12.2	0.1	712	24.9	1,780	11.0	1,463	10.3	1,553	9.7	1,483	11.2	1,007	32.5	256	-26.0
	핀 란 드	7,234	6,223	16.2	0.1	347	57.7	1,289	17.6	1,123	1.6	1,128	-1.0	866	2.2	405	22.4	2,076	39.8
	덴 마 크	6,569	6,731	-2.4	0.1	504	13.5	1,096	17.3	970	-4.6	1,535	-10.5	1,164	-4.1	516	5.3	784	-14.4
	오스트리아	6,384	5,349	19.3	0.1	298	52.8	1,070	5.5	1,311	19.4	1,288	22.1	915	15.8	491	25.9	1,011	25.3
	벨 기 에	6,268	6,102	2.7	0.1	455	25.3	1,131	12.5	1,092	6.7	1,335	3.5	1,013	9.3	578	1.4	664	-28.1
	그 리 스	6,234	5,342	16.7	0.1	172	45.8	586	8.9	1,155	13.7	751	13.6	591	4.8	353	17.3	2,626	22.5
	포 르 투 갈	6,182	4,608	34.2	0.1	450	101.8	998	18.0	1,207	11.4	965	18.8	802	27.5	350	30.1	1,410	89.0
	불 가 리 아	5,768	3,745	54.0	0.1	72	94.6	371	25.8	458	8.5	465	63.7	371	36.9	122	93.7	3,909	64.7
	크로아티아	4,463	3,236	37.9	0.0	40	-9.1	276	-3.8	473	2.2	393	-5.3	309	-7.8	108	-4.4	2,864	81.4
	아 일 랜 드	4,401	4,049	8.7	0.0	239	47.5	991	3.0	1,139	7.3	796	1.7	551	16.0	314	12.1	371	14.2
	구 주 기 타	21,583	18,674	15.6	0.2	887	3.6	3,794	-8.4	4,074	3.0	2,269	0.9	1,527	3.3	852	1.2	8,180	58.7
	구 주 소 계	530,431	451,285	17.5	5.4	36,110	27.7	87,389	21.7	96,959	14.8	85,471	9.2	67,297	9.3	36,995	15.1	120,210	26.9
대 양 주	오스트레일리아	85,734	75,468	13.6	0.9	10,168	18.2	11,962	12.4	14,656	14.6	14,721	15.8	13,597	17.8	18,070	40.7	2,560	-59.5
	뉴 질 란 드	17,462	15,694	11.3	0.2	1,992	8.1	2,957	9.1	3,304	6.9	2,399	5.8	2,913	7.3	2,748	27.4	1,149	26.1
	대양주 기타	3,872	3,490	10.9	0.0	281	40.5	682	18.0	841	4.2	476	-7.4	383	16.4	147	-2.0	1,062	16.4
	대양주소계	107,068	94,652	13.1	1.1	12,441	16.8	15,601	12.0	18,801	12.6	17,596	13.5	16,893	15.8	20,965	38.4	4,771	-41.5
아 프 리 카	남아프리카공화국	7,252	5,634	28.7	0.1	222	31.4	1,640	-1.2	1,218	19.5	904	19.4	674	5.6	338	34.1	2,256	98.1
	아프리카 기타	24,124	17,765	35.8	0.2	1,048	26.9	4,368	9.3	5,569	16.9	4,062	13.2	2,366	14.2	850	61.3	5,861	194.2
	아프리카소계	31,376	23,399	34.1	0.3	1,270	27.6	6,008	6.2	6,787	17.3	4,966	14.3	3,040	12.2	1,188	52.5	8,117	159.2
기 타	국 적 미 상	426	325	31.1	0.0	19	137.5	50	4.2	65	132.1	48	33.3	58	7.4	36	50.0	150	18.1
	기 타 소 계	426	325	31.1	0.0	19	137.5	50	4.2	65	132.1	48	33.3	58	7.4	36	50.0	150	18.1
교 포	교 포	156,831	150,664	4.1	1.6	6,523	1.4	11,206	2.8	17,173	0.8	36,335	0.5	46,400	3.2	39,194	11.4	0	-
	교 포 소 계	156,831	150,664	4.1	1.6	6,523	1.4	11,206	2.8	17,173	0.8	36,335	0.5	46,400	3.2	39,194	11.4	0	-

목적별 국적별 입국 (2016년 7월)

대륙	국적	계				관광		상용		공용		유학연수		기타	
		인원 (명)	전년 동기 (명)	성장률 (%)	구성비 (%)	인원 (명)	성장률 (%)	인원 (명)	성장률 (%)	인원 (명)	성장률 (%)	인원 (명)	성장률 (%)	인원 (명)	성장률 (%)
총 계		1,703,495	629,737	170.5	100.0	1,405,496	235.1	14,633	13.7	4,965	33.0	11,716	38.2	266,685	44.0
아시아주	중 국	917,519	255,632	258.9	53.9	823,016	378.3	4,103	28.2	354	104.6	7,122	34.8	82,924	10.7
	일 본	186,194	81,748	127.8	10.9	179,569	139.8	1,981	8.8	139	17.8	471	27.3	4,034	-11.3
	대 만	81,459	9,879	724.6	4.8	80,041	767.0	53	12.8	27	200.0	114	40.7	1,224	140.0
	홍 콩	58,674	7,761	666.0	3.4	57,771	705.8	36	-10.0	4	-	77	67.4	786	55.3
	필 리 핀	53,411	23,529	127.0	3.1	11,132	78.8	234	44.4	146	53.7	81	30.6	41,818	146.2
	인 도 네 시 아	29,404	10,418	182.2	1.7	13,236	177.8	310	203.9	67	123.3	191	80.2	15,600	188.1
	태 국	27,271	12,130	124.8	1.6	21,107	221.6	37	0.0	183	144.0	90	38.5	5,854	8.6
	베 트 남	24,540	9,172	167.6	1.4	17,517	379.4	554	85.9	275	102.2	1,008	120.1	5,186	12.1
	인 도	20,286	8,551	137.2	1.2	2,652	29.1	2,395	30.6	108	151.2	105	16.7	15,026	231.7
	말 레 이 시 아	16,208	5,893	175.0	1.0	13,393	213.9	192	18.5	13	-	101	46.4	2,509	79.7
	싱 가 포 르	11,414	4,439	157.1	0.7	9,550	203.1	113	-7.4	4	-20.0	49	25.6	1,698	51.3
	몽 골	6,808	5,746	18.5	0.4	5,581	18.0	83	12.2	214	11.5	379	50.4	551	10.2
	우즈베키스탄	5,772	4,988	15.7	0.3	2,835	34.3	319	-37.3	1	-66.7	82	82.2	2,535	9.3
	미 얀 마	5,461	4,204	29.9	0.3	1,218	16.4	20	-9.1	149	170.9	31	19.2	4,043	32.3
	G C C	4,203	2,091	101.0	0.2	3,820	101.6	37	117.6	52	5100.0	145	19.8	149	161.4
	카 자 흐 스 탄	2,829	2,006	41.0	0.2	2,186	33.8	3	-76.9	4	-60.0	52	4.0	584	95.3
	터 키	2,782	1,783	56.0	0.2	1,427	55.4	18	0.0	75	38.9	31	72.2	1,231	58.8
	스 리 랑 카	2,145	1,448	48.1	0.1	228	23.9	55	71.9	9	200.0	37	48.0	1,816	50.8
	캄 보 디 아	1,758	1,711	2.7	0.1	552	95.1	23	-11.5	65	22.6	53	20.5	1,065	-18.4
	이 스 라 엘	992	928	6.9	0.1	896	4.1	11	57.1	1	-	4	300.0	80	35.6
방 글 라 데 시	932	827	12.7	0.1	205	28.1	142	29.1	53	47.2	50	31.6	482	-0.2	
이 란	896	413	116.9	0.1	363	77.1	252	72.6	8	-11.1	25	92.3	248	520.0	
파 키 스 탄	875	601	45.6	0.1	297	26.4	230	63.1	10	0.0	79	79.5	259	51.5	
아시아 기타	9,233	3,932	134.8	0.5	6,400	260.4	295	-20.5	187	46.1	112	10.9	2,239	43.9	
아시아주 소계	1,471,066	459,830	219.9	86.4	1,254,992	304.7	11,496	23.5	2,148	73.5	10,489	40.9	191,941	45.7	
미주	미 국	78,526	62,627	25.4	4.6	60,376	29.7	407	-20.8	2,540	12.0	164	18.8	15,039	14.4
	캐 나 다	15,886	9,496	67.3	0.9	11,504	80.7	51	-53.2	10	-33.3	36	24.1	4,285	43.9
	멕 시 코	1,713	1,466	16.8	0.1	1,026	-14.9	3	-66.7	4	100.0	78	21.9	602	223.7
	브 라 질	1,578	1,296	21.8	0.1	922	-10.1	8	-50.0	11	450.0	38	46.2	599	165.0
	미 주 기타	4,158	1,993	108.6	0.2	1,680	31.7	26	100.0	20	81.8	83	-3.5	2,349	287.0
미주 소계		101,861	76,878	32.5	6.0	75,508	33.8	495	-25.1	2,585	12.5	399	16.3	22,874	33.4

* GCC 6개국(UAE,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바레인)

대 륙	국 적	계				관광		상용		공용		유학연수		기타	
		인원 (명)	전년 동기 (명)	성장률 (%)	구성비 (%)	인원 (명)	성장률 (%)	인원 (명)	성장률 (%)	인원 (명)	성장률 (%)	인원 (명)	성장률 (%)	인원 (명)	성장률 (%)
구 주	러 시 아	19,559	13,524	44.6	1.1	13,432	46.7	136	0.0	31	63.2	68	61.9	5,892	41.2
	영 국	11,923	7,921	50.5	0.7	8,657	51.4	337	-37.1	13	44.4	20	-13.0	2,896	77.0
	독 일	9,210	7,008	31.4	0.5	7,337	33.9	238	8.2	18	-5.3	111	24.7	1,506	25.6
	프 랑 스	8,424	6,467	30.3	0.5	6,931	34.0	393	8.0	34	126.7	173	41.8	893	12.6
	이 탈 리 아	6,229	3,500	78.0	0.4	2,519	11.1	67	26.4	6	50.0	26	100.0	3,611	210.8
	네 델 란 드	3,495	2,417	44.6	0.2	2,729	44.8	49	-22.2	1	-50.0	29	-23.7	687	60.1
	우 크 라 이 나	2,778	2,017	37.7	0.2	616	-9.8	55	3.8	0	-100.0	9	200.0	2,098	64.4
	스 페 인	2,247	1,706	31.7	0.1	1,737	28.1	24	-4.0	11	450.0	30	36.4	445	47.8
	루 마 니 아	1,748	793	120.4	0.1	397	9.7	12	-29.4	0	-	7	-22.2	1,332	228.9
	스 웨 덴	1,548	1,148	34.8	0.1	1,398	40.2	27	-43.8	4	-60.0	5	-66.7	114	46.2
	스 위 스	1,538	1,290	19.2	0.1	1,430	22.2	19	-20.8	2	-	9	-47.1	78	-1.3
	노 르 웨 이	1,347	1,556	-13.4	0.1	925	-6.1	242	-40.5	1	-50.0	23	91.7	156	4.0
	폴 란 드	1,334	1,183	12.8	0.1	857	4.8	21	-30.0	0	-100.0	20	100.0	436	34.6
	포 르 투 갈	1,258	359	250.4	0.1	777	205.9	8	-27.3	1	-50.0	1	-50.0	471	423.3
	덴 마 크	1,096	952	15.1	0.1	895	24.5	46	-28.1	4	33.3	14	100.0	137	-13.8
	벨 기 에	1,095	854	28.2	0.1	893	24.7	22	10.0	12	500.0	12	9.1	156	48.6
	오 스트 리 아	1,074	817	31.5	0.1	875	34.6	10	42.9	1	-66.7	10	-16.7	178	22.8
	불 가 리 아	956	443	115.8	0.1	236	35.6	1	-50.0	0	-100.0	7	-	712	167.7
	그 리 스	910	692	31.5	0.1	468	6.8	33	57.1	1	0.0	1	-	407	75.4
	크 로 아 티 아	902	448	101.3	0.1	216	-9.6	15	36.4	0	-	2	100.0	669	239.6
대 양 주	핀 란 드	874	684	27.8	0.1	479	13.5	18	20.0	0	-	21	-8.7	356	58.9
	아 일 란 드	649	462	40.5	0.0	480	43.3	19	-32.1	1	-	1	0.0	148	51.0
	구 주 기 타	3,887	2,947	31.9	0.2	1,734	-14.6	55	3.8	10	0.0	59	25.5	2,029	151.4
	구 주 소 계	84,081	59,188	42.1	4.9	56,018	33.3	1,847	-16.3	151	41.1	658	26.8	25,407	77.3
	오스트레일리아	15,117	9,017	67.6	0.9	13,183	92.5	384	25.1	17	-55.3	20	5.3	1,513	-16.1
아 프 리 카	뉴 질 란 드	3,147	2,189	43.8	0.2	2,562	52.3	24	-27.3	2	-	2	-33.3	557	18.3
	대 양 주 기 타	657	527	24.7	0.0	448	32.9	0	-	8	-	2	-50.0	199	7.0
	대 양 주 소 계	18,921	11,733	61.3	1.1	16,193	82.6	408	20.0	27	-28.9	24	-7.7	2,269	-7.8
	남아프리카공화국	1,377	657	109.6	0.1	537	42.1	14	-54.8	0	-	1	-50.0	825	235.4
기 타	아프리카 기 타	4,210	2,514	67.5	0.2	2,206	36.1	372	19.6	54	0.0	145	2.8	1,433	270.3
	아프리카 소 계	5,587	3,171	76.2	0.3	2,743	37.2	386	12.9	54	0.0	146	2.1	2,258	256.7
	국 적 미 상	62	38	63.2	0.0	42	100.0	1	-83.3	0	-	0	-	19	72.7
교 포	기 타 소 계	62	38	63.2	0.0	42	100.0	1	-83.3	0	-	0	-	19	72.7
	교 포 소 계	21,917	18,899	16.0	1.3	0	-	0	-	0	-	0	-	21,917	16.0
교 포	교 포 소 계	21,917	18,899	16.0	1.3	0	-	0	-	0	-	0	-	21,917	16.0

목적별 국적별 입국 (2016년 1월~7월)

대륙	국적	계				관광		상용		공용		유학연수		기타	
		인원 (명)	전년 동기 (명)	성장률 (%)	구성비 (%)	인원 (명)	성장률 (%)	인원 (명)	성장률 (%)	인원 (명)	성장률 (%)	인원 (명)	성장률 (%)	인원 (명)	성장률 (%)
총 계		9,813,342	7,305,345	34.3	100.0	7,938,029	41.6	109,188	-2.6	28,343	13.2	132,749	25.2	1,605,033	10.4
아시아주	중 국	4,734,275	3,256,682	45.4	48.2	4,091,491	58.9	29,835	6.1	2,549	29.3	91,300	25.1	519,100	-10.2
	일 본	1,226,109	1,026,927	19.4	12.5	1,177,575	21.4	14,928	0.7	923	-6.9	4,899	5.1	27,784	-24.0
	대 만	476,924	300,329	58.8	4.9	467,703	60.2	387	9.6	82	54.7	1,535	12.6	7,217	9.5
	홍 콩	371,607	281,545	32.0	3.8	365,243	32.7	438	45.0	9	200.0	1,013	17.0	4,904	-4.9
	필 리 핀	305,983	223,444	36.9	3.1	94,602	17.2	1,850	1.8	802	20.1	772	14.2	207,957	49.0
	태 국	275,668	230,359	19.7	2.8	234,871	22.5	313	-0.9	1,371	49.8	712	17.9	38,401	4.3
	인 도 네 시 아	161,428	106,406	51.7	1.6	77,793	38.4	2,186	59.0	375	32.0	1,367	22.1	79,707	68.1
	말 레 이 시 아	153,817	112,071	37.2	1.6	136,118	37.4	1,347	-0.7	40	25.0	1,162	15.5	15,150	43.2
	베 트 남	137,079	89,447	53.3	1.4	88,141	85.7	3,115	2.8	1,182	-1.3	8,012	104.9	36,629	8.2
	인 도	107,798	72,008	49.7	1.1	18,652	25.9	16,503	4.3	343	-23.9	872	16.9	71,428	77.8
	싱 가 포 르	105,579	80,084	31.8	1.1	92,809	31.5	1,109	12.7	32	-8.6	514	23.3	11,115	37.6
	몽 골	44,567	44,102	1.1	0.5	35,934	-2.3	715	-8.3	1,773	17.3	2,835	55.2	3,310	2.9
	미얀마	39,741	33,828	17.5	0.4	9,275	0.3	141	-1.4	548	63.6	296	28.7	29,481	23.5
	우즈베키스탄	39,166	32,021	22.3	0.4	17,110	62.0	2,177	-60.1	3	-40.0	845	68.3	19,031	22.9
	카자흐스탄	19,800	16,724	18.4	0.2	15,035	8.8	46	-54.9	12	-33.3	637	-0.6	4,070	89.9
	캄보디아	19,777	16,775	17.9	0.2	4,607	51.2	232	14.9	450	-2.0	392	16.3	14,096	10.7
	터키	15,682	12,876	21.8	0.2	7,860	16.6	115	-6.5	348	-20.4	289	56.2	7,070	31.1
	G C C	14,672	13,027	12.6	0.1	12,866	13.8	176	-9.7	98	100.0	902	-14.8	640	50.9
	스리랑카	13,850	10,757	28.8	0.1	1,855	31.7	450	32.0	30	57.9	242	14.2	11,273	28.5
	방글라데시	7,631	6,299	21.1	0.1	1,922	61.1	948	22.2	312	8.7	463	54.8	3,986	6.5
이스라엘	7,317	7,234	1.1	0.1	6,913	3.5	69	46.8	2	100.0	37	42.3	296	-38.6	
파키스탄	7,133	6,079	17.3	0.1	2,072	18.3	1,705	6.3	89	-22.6	673	24.9	2,594	25.3	
이란	4,131	2,832	45.9	0.0	1,365	21.8	1,689	35.4	44	4.8	181	5.2	852	240.8	
아시아 기타	56,524	42,613	32.6	0.6	37,037	46.2	2,579	-22.3	1,026	-11.4	925	-2.3	14,957	26.2	
아시아주소계	8,346,258	6,024,469	38.5	85.1	6,998,839	45.7	83,053	0.5	12,443	12.7	120,875	26.8	1,131,048	9.5	
미주	미 국	503,893	442,567	13.9	5.1	384,044	16.4	3,298	-24.7	13,669	14.4	1,787	11.5	101,095	6.8
	캐나다	96,772	83,913	15.3	1.0	70,894	18.8	486	-45.5	88	35.4	272	0.0	25,032	8.8
	브라질	9,985	9,025	10.6	0.1	6,470	-0.5	82	-62.6	58	20.8	225	-9.6	3,150	56.9
	멕시코	8,738	8,017	9.0	0.1	5,932	-3.9	44	-43.6	17	-32.0	452	14.4	2,293	70.1
	미주 기타	21,564	17,029	26.6	0.2	11,053	7.5	207	5.1	142	20.3	577	2.7	9,585	63.4
미주소계		640,952	560,551	14.3	6.5	478,393	16.0	4,117	-28.6	13,974	14.5	3,313	7.5	141,155	11.2

* GCC 6개국(UAE,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바레인)

대 륙	국 적	계				관광		상용		공용		유학연수		기타	
		인원 (명)	전년 동기 (명)	성장률 (%)	구성비 (%)	인원 (명)	성장률 (%)	인원 (명)	성장률 (%)	인원 (명)	성장률 (%)	인원 (명)	성장률 (%)	인원 (명)	성장률 (%)
구 주	러 시 아	132,683	106,992	25.2	1.4	87,755	28.6	993	13.6	133	-6.3	713	9.9	43,089	19.4
	영 국	77,553	71,253	8.8	0.8	58,694	14.1	2,915	-31.4	74	-15.9	266	1.1	15,604	2.6
	독 일	62,960	54,556	15.4	0.6	49,947	16.2	1,840	-1.0	114	18.8	1,219	33.7	9,840	13.2
	프 랑 스	51,840	47,356	9.5	0.5	39,093	13.5	3,085	2.4	242	19.8	1,956	9.2	7,464	-5.5
	이 탈 리 아	34,828	24,232	43.7	0.4	17,350	16.0	522	-6.3	52	18.2	183	38.6	16,721	95.7
	네 델 란 드	18,563	16,092	15.4	0.2	13,528	13.8	392	-8.8	25	0.0	323	-12.7	4,295	27.0
	우 크 라 이 나	17,094	13,914	22.9	0.2	4,171	12.0	527	5.4	8	-11.1	81	32.8	12,307	27.9
	스 페 인	12,519	10,778	16.2	0.1	9,566	16.2	208	3.5	66	100.0	301	25.9	2,378	14.8
	노 르 웨 이	10,678	11,459	-6.8	0.1	6,871	2.0	2,406	-29.4	20	5.3	153	80.0	1,228	1.1
	스 웨 덴	10,197	9,314	9.5	0.1	8,688	12.6	337	-12.7	52	-3.7	197	-11.7	923	-1.2
	루 마 니 아	9,711	7,027	38.2	0.1	3,001	15.2	130	-7.8	6	-64.7	53	20.5	6,521	54.5
	폴 란 드	8,465	7,898	7.2	0.1	5,222	11.1	227	-5.8	2	0.0	177	24.6	2,837	0.8
	스 위 스	8,254	7,355	12.2	0.1	7,328	14.5	162	8.0	8	-20.0	179	65.7	577	-16.0
	핀 란 드	7,234	6,223	16.2	0.1	4,569	9.7	162	18.2	2	0.0	279	-7.9	2,222	37.4
	덴 마 크	6,569	6,731	-2.4	0.1	5,005	1.4	448	-16.7	19	-20.8	95	15.9	1,002	-13.1
	오 스트 리 아	6,384	5,349	19.3	0.1	4,888	21.1	80	1.3	12	-7.7	112	6.7	1,292	15.7
	벨 기 에	6,268	6,102	2.7	0.1	4,923	6.1	139	-17.8	31	181.8	111	46.1	1,064	-11.9
	그 리 스	6,234	5,342	16.7	0.1	3,202	11.5	264	17.3	6	20.0	11	0.0	2,751	23.4
	포 르 투 갈	6,182	4,608	34.2	0.1	4,596	25.6	60	-31.0	7	-41.7	34	-19.0	1,485	84.0
	불 가 리 아	5,768	3,745	54.0	0.1	1,679	38.9	16	-44.8	2	-33.3	48	60.0	4,023	62.6
	크 로 아 티 아	4,463	3,236	37.9	0.0	1,423	-5.0	100	7.5	0	-	7	-36.4	2,933	79.5
	아 일 란 드	4,401	4,049	8.7	0.0	3,150	13.7	165	-17.1	2	0.0	7	-50.0	1,077	1.3
	구 주 기 타	21,583	18,674	15.6	0.2	11,770	-1.1	406	-3.3	97	61.7	501	22.5	8,809	49.7
	구 주 소 계	530,431	451,285	17.5	5.4	356,419	16.6	15,584	-13.3	980	12.3	7,006	14.8	150,442	24.8
대 양 주	오스트레일리아	85,734	75,468	13.6	0.9	73,106	21.7	2,783	19.8	326	35.8	145	-22.0	9,374	-25.8
	뉴 질 란 드	17,462	15,694	11.3	0.2	13,300	10.4	263	-1.9	13	85.7	24	50.0	3,862	15.1
	대양주 기타	3,872	3,490	10.9	0.0	2,668	8.0	19	280.0	39	18.2	30	42.9	1,116	16.3
	대 양 주 소 계	107,068	94,652	13.1	1.1	89,074	19.4	3,065	18.1	378	35.0	199	-10.8	14,352	-15.3
아 프 리 카	남아프리카공화국	7,252	5,634	28.7	0.1	3,088	16.7	172	-24.9	10	-9.1	22	-21.4	3,960	45.6
	아프리카 기타	24,124	17,765	35.8	0.2	11,987	19.8	3,188	10.2	558	-10.6	1,325	6.3	7,066	136.0
	아프리카소계	31,376	23,399	34.1	0.3	15,075	19.1	3,360	7.6	568	-10.6	1,347	5.7	11,026	93.0
기 타	국 적 미 상	426	325	31.1	0.0	229	48.7	9	-55.0	0	-100.0	9	125.0	179	26.1
	기 타 소 계	426	325	31.1	0.0	229	48.7	9	-55.0	0	-100.0	9	125.0	179	26.1
교 포	교 포	156,831	150,664	4.1	1.6	0	-	0	-	0	-	0	-	156,831	4.1
	교 포 소 계	156,831	150,664	4.1	1.6	0	-	0	-	0	-	0	-	156,831	4.1

교통수단별 국적별 입국 (2016년 7월)

※ 2014년 1월부터 제주공항, 제주항구 분류집계

대륙	국적	계				인천공항		김해공항		김포공항		제주공항		기타공항		공항소계		부산항구		인천항구		제주항구		기타항구		항구소계	
		인원 (명)	전년 동기 (명)	성장 률 (%)	구성 비 (%)	인원 (명)	성장 률 (%)	인원 (명)	성장 률 (%)	인원 (명)	성장 률 (%)	인원 (명)	성장 률 (%)	인원 (명)	성장 률 (%)	인원 (명)	성장 률 (%)	인원 (명)	성장 률 (%)	인원 (명)	성장 률 (%)	인원 (명)	성장 률 (%)	인원 (명)	성장 률 (%)	인원 (명)	성장 률 (%)
총 계		1,703,495	629,737	170.5	100.0	906,903	146.1	96,796	170.0	92,387	85.8	145,771	622.1	62,359	748.4	304,216	170.8	100,268	396.3	66,584	130.6	91,315	176.0	41,112	38.2	89,279	169.5
아시아주	중국	917,519	255,632	258.9	53.9	394,089	243.4	27,505	226.5	26,515	160.2	133,979	645.7	59,630	967.9	641,718	309.0	52,336	5689.4	55,624	107.9	47,127	157.0	20,714	49.9	75,801	179.4
	일본	186,194	81,748	127.8	10.9	97,671	176.5	25,078	174.4	50,343	67.8	2,409	164.7	170	50.4	175,671	132.7	10,333	68.4	37	184.6	54	50.0	99	22.2	10,523	68.0
	대만	81,459	9,879	724.6	4.8	57,758	592.0	13,274	1538.8	4,418	785.4	2,674	5248.0	1,437	-	79,561	719.7	1,463	4333.3	46	70.4	303	413.6	86	59.3	1,888	997.1
	홍콩	58,674	7,761	666.0	3.4	49,825	623.3	4,830	1072.3	269	113.5	3,142	2244.8	35	1650.0	58,101	668.2	245	265.7	47	571.4	278	127.9	3	50.0	573	189.4
	필리핀	53,411	23,529	127.0	3.1	10,183	67.6	2,418	26.0	74	42.3	211	539.4	3	-50.0	12,889	59.4	12,342	244.9	3,875	281.0	16,701	253.8	7,604	24.1	40,522	162.4
	인도네시아	29,404	10,418	182.2	1.7	14,828	161.1	1,175	80.5	68	65.9	129	200.0	3	-	16,203	152.6	3,336	379.3	1,128	1016.8	7,120	276.7	1,617	22.8	13,201	229.7
	태국	27,271	12,130	124.8	1.6	23,167	115.1	2,525	264.4	138	86.5	11	-15.4	3	-25.0	25,844	123.7	762	112.3	109	142.2	338	263.4	218	169.1	1,427	146.9
	베트남	24,540	9,172	167.6	1.4	20,736	198.9	2,715	66.2	25	-21.9	56	250.0	5	-54.5	23,537	172.7	115	219.4	93	97.9	405	102.5	390	51.2	1,003	85.4
	인도	20,286	8,551	137.2	1.2	4,892	27.3	538	23.4	94	30.6	50	284.6	7	600.0	5,581	27.9	3,763	457.5	1,431	657.1	8,162	250.8	1,349	35.4	14,705	251.2
	말레이시아	16,208	5,893	175.0	1.0	13,182	167.5	2,075	172.7	97	64.4	138	820.0	9	-	15,501	169.0	186	1228.6	63	2000.0	416	378.2	42	61.5	707	443.8
	싱가포르	11,414	4,439	157.1	0.7	10,671	161.5	305	66.7	185	107.9	78	239.1	6	-	11,245	157.0	97	321.7	9	350.0	49	63.3	14	75.0	169	168.3
	몽골	6,808	5,746	18.5	0.4	6,612	16.0	125	733.3	26	100.0	21	162.5	19	375.0	6,803	18.6	0	-100.0	5	25.0	0	-100.0	0	-	5	-37.5
	우즈베키스탄	5,772	4,988	15.7	0.3	5,614	15.5	152	49.0	5	-28.6	0	-	0	-	5,771	16.2	0	-100.0	0	-100.0	1	-	0	-100.0	1	-95.0
	미얀마	5,461	4,204	29.9	0.3	1,165	0.3	499	20.2	2	-33.3	3	200.0	0	-100.0	1,669	5.2	977	37.2	219	12.9	290	1511.1	2,306	36.1	3,792	44.8
	GCC	4,203	2,091	101.0	0.2	4,089	98.2	30	400.0	42	366.7	24	2300.0	0	-	4,185	101.3	4	-55.6	0	-	10	-	4	33.3	18	50.0
	카자흐스탄	2,829	2,006	41.0	0.2	2,796	41.3	10	0.0	11	-21.4	0	-	0	-	2,817	40.6	3	0.0	0	-	6	-	3	-	12	300.0
	터키	2,782	1,783	56.0	0.2	2,347	49.9	37	27.6	16	-42.9	1	-	3	-	2,404	48.1	100	426.3	112	239.4	48	220.0	118	26.9	378	136.3
스리랑카	2,145	1,448	48.1	0.1	1,641	32.3	69	-2.8	3	200.0	10	-	1	-	1,724	31.4	266	518.6	5	-87.2	20	566.7	130	154.9	421	209.6	
캄보디아	1,758	1,711	2.7	0.1	1,694	2.2	63	23.5	0	-	1	0.0	0	-	1,758	2.8	0	-100.0	0	-	0	-	0	-	0	-100.0	
이스라엘	992	928	6.9	0.1	856	2.5	30	114.3	24	-29.4	0	-100.0	0	-	910	2.9	71	65.1	1	-	7	600.0	3	-	82	86.4	
방글라데시	932	827	12.7	0.1	770	16.5	52	52.9	11	57.1	0	-100.0	0	-100.0	833	18.3	21	61.5	1	-90.9	0	-	77	-22.2	99	-19.5	
이란	896	413	116.9	0.1	654	68.6	27	285.7	8	-27.3	4	300.0	0	-	693	70.3	107	3466.7	12	-	0	-	84	2700.0	203	3283.3	
파키스탄	875	601	45.6	0.1	752	40.3	43	72.0	38	192.3	10	233.3	3	-	846	46.6	13	-13.3	2	-	0	-	14	55.6	29	20.8	
아시아 기타	9,233	3,932	134.8	0.5	8,152	122.0	508	240.9	39	14.7	239	1493.3	9	80.0	8,947	130.9	84	300.0	16	-	179	1527.3	7	-72.0	286	401.8	
아시아주소계	1,471,066	459,830	219.9	86.4	734,144	213.8	84,083	223.5	82,451	99.1	143,190	643.9	61,343	969.3	1,052,111	238.7	86,624	545.4	62,835	120.6	81,514	171.5	34,882	40.9	95,855	174.0	
미주	미국	78,526	62,627	25.4	4.6	68,136	25.3	2,864	23.7	2,815	24.0	898	333.8	756	-48.2	75,469	24.4	2,045	40.4	183	325.6	636	278.6	193	-38.7	3,057	54.2
	캐나다	15,886	9,496	67.3	0.9	13,488	67.5	628	34.2	537	14.3	273	457.1	46	283.3	14,972	65.4	520	73.3	84	2700.0	306	118.6	4	300.0	914	105.9
	멕시코	1,713	1,466	16.8	0.1	1,121	-10.5	65	20.4	46	-45.2	4	-50.0	2	-33.3	1,238	-11.6	224	339.2	45	-	204	1357.1	2	-	475	630.8
	브라질	1,578	1,296	21.8	0.1	1,052	-6.9	56	12.0	53	51.4	10	42.9	1	0.0	1,172	-4.2	111	296.4	39	-	253	462.2	3	-	406	456.2
	미주 기타	4,158	1,993	108.6	0.2	1,760	22.9	121	80.6	76	-6.2	29	866.7	10	-	1,996	26.1	893	1494.6	206	-	1,061	225.5	2	-92.9	2,162	427.3
미주 소계		101,861	76,878	32.5	6.0	85,557	29.1	3,734	26.4	3,527	20.0	1,214	343.1	815	-44.8	94,847	28.3	3,793	100.5	557	1110.9	2,460	255.0	204	-40.7	7,014	135.8

* GCC 6개국(UAE,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바레인)

대륙	국적	계				인천공항		김해공항		김포공항		제주공항		기타공항		공항소계		부산항구		인천항구		제주항구		기타항구		항구소계	
		인원 (명)	전년 동기 (명)	성장 률 (%)	구성 비 (%)	인원 (명)	성장 률 (%)	인원 (명)	성장 률 (%)	인원 (명)	성장 률 (%)	인원 (명)	성장 률 (%)	인원 (명)	성장 률 (%)	인원 (명)	성장 률 (%)	인원 (명)	성장 률 (%)	인원 (명)	성장 률 (%)	인원 (명)	성장 률 (%)	인원 (명)	성장 률 (%)	인원 (명)	성장 률 (%)
구주	러 시 아	19,559	13,524	44.6	1.1	12,923	49.1	1,571	30.8	73	21.7	29	222.2	25	-32.4	14,621	46.5	606	26.5	47	-34.7	93	520.0	4,192	40.6	4,938	39.2
	영 국	11,923	7,921	50.5	0.7	8,562	36.5	839	24.1	366	19.5	169	634.8	16	166.7	9,942	36.7	958	150.1	196	3166.7	800	302.0	27	-54.2	1,981	206.2
	독 일	9,210	7,008	31.4	0.5	8,110	33.4	348	25.6	409	21.7	67	157.7	27	92.9	8,961	33.1	142	-29.7	22	175.0	30	76.5	55	14.6	249	-9.5
	프 랑 스	8,424	6,467	30.3	0.5	7,193	29.3	533	20.9	426	21.7	77	327.8	10	400.0	8,239	29.2	113	197.4	8	100.0	46	70.4	18	-18.2	185	103.3
	이 탈 리 아	6,229	3,500	78.0	0.4	2,575	11.8	153	71.9	162	17.4	49	444.4	9	125.0	2,948	15.9	693	518.8	303	5960.0	2,237	177.2	48	45.5	3,281	242.8
	네 델 란 드	3,495	2,417	44.6	0.2	2,896	35.6	195	30.9	188	203.2	21	950.0	2	-50.0	3,302	40.4	83	69.4	17	-	58	1350.0	35	191.7	193	196.9
	우크라이나	2,778	2,017	37.7	0.2	516	-12.8	90	42.9	15	-	17	70.0	2	-	640	-3.8	917	65.5	159	37.1	505	611.3	557	-8.8	2,138	58.1
	스 페 인	2,247	1,706	31.7	0.1	1,851	35.0	104	15.6	92	-5.2	35	1066.7	8	166.7	2,090	33.6	47	-51.5	13	160.0	92	155.6	5	25.0	157	10.6
	루 마 니 아	1,748	793	120.4	0.1	373	5.7	44	12.8	6	-	5	-	1	-	429	9.4	523	318.4	100	669.2	528	216.2	168	75.0	1,319	228.9
	스 웨 덴	1,548	1,148	34.8	0.1	1,273	33.6	87	52.6	71	-26.0	10	400.0	0	-	1,441	30.1	49	276.9	15	7.1	32	166.7	11	1000.0	107	167.5
	스 위 스	1,538	1,290	19.2	0.1	1,343	20.9	61	3.4	68	21.4	3	-57.1	1	-50.0	1,476	19.5	45	-4.3	2	-	6	-	9	12.5	62	12.7
	노 르 웨 이	1,347	1,556	-13.4	0.1	740	-12.6	457	-23.5	32	23.1	4	-20.0	0	-100.0	1,233	-16.5	52	79.3	20	300.0	29	262.5	13	-65.8	114	42.5
	폴 란 드	1,334	1,183	12.8	0.1	768	4.2	68	-17.1	35	59.1	9	350.0	3	-	883	4.7	198	38.5	44	37.5	46	187.5	163	9.4	451	32.6
	포 르 투 갈	1,258	359	250.4	0.1	720	142.4	56	211.1	18	260.0	25	2400.0	1	-	820	155.5	174	625.0	37	3600.0	222	1918.2	5	150.0	438	1052.6
	덴 마 크	1,096	952	15.1	0.1	767	27.8	145	-6.5	52	10.6	6	-	2	0.0	972	20.9	82	-27.4	9	50.0	3	-	30	3.4	124	-16.2
	벨 기 에	1,095	854	28.2	0.1	953	25.7	32	18.5	38	35.7	10	150.0	2	-	1,035	26.7	21	-40.0	6	-	13	-	20	900.0	60	62.2
	오스트리아	1,074	817	31.5	0.1	942	31.9	70	141.4	44	69.2	2	0.0	0	-	1,058	37.2	9	-77.5	1	-	6	50.0	0	-100.0	16	-65.2
	불 가 리 아	956	443	115.8	0.1	263	27.1	17	70.0	6	500.0	7	-	2	-	295	35.3	199	121.1	56	229.4	277	188.5	129	486.4	661	193.8
	그 리 스	910	692	31.5	0.1	440	26.8	64	0.0	3	-40.0	1	-	0	-	508	22.1	91	31.9	12	200.0	152	360.6	147	-13.5	402	45.7
	크로아티아	902	448	101.3	0.1	162	-21.0	35	0.0	5	400.0	4	-	0	-	206	-14.5	249	151.5	46	253.8	247	751.7	154	133.3	696	236.2
	핀 란 드	874	694	27.8	0.1	787	26.9	39	85.7	19	-17.4	4	300.0	2	100.0	851	27.8	18	38.5	1	-66.7	1	-	3	50.0	23	27.8
	아 일 란 드	649	462	40.5	0.0	513	34.6	46	48.4	38	26.7	10	233.3	3	200.0	610	36.8	18	100.0	7	250.0	7	75.0	7	600.0	39	143.8
	구주 기타	3,887	2,947	31.9	0.2	2,187	-8.9	90	15.4	38	-9.5	14	40.0	4	300.0	2,333	-7.8	595	304.8	121	2320.0	704	557.9	134	-14.6	1,554	273.6
	구주 소계	84,081	59,188	42.1	4.9	56,857	30.7	5,144	20.0	2,194	25.4	578	321.9	120	53.8	64,893	30.4	5,882	102.1	1,242	275.2	6,134	268.9	5,930	31.3	19,188	103.7
대양주	오스트레일리아	15,117	9,017	67.6	0.9	9,597	42.5	867	48.5	357	41.1	164	811.1	17	240.0	11,002	44.8	2,395	73.0	1,580	9800.0	132	325.8	8	166.7	4,115	189.8
	뉴 질 랜드	3,147	2,189	43.8	0.2	2,225	16.1	128	25.5	89	53.4	17	325.0	2	-66.7	2,461	17.9	366	447.7	267	3237.5	51	155.0	12	33.3	686	572.5
	대양주 기타	657	527	24.7	0.0	434	54.4	29	-40.8	7	133.3	0	-	0	-100.0	470	40.3	80	-36.5	0	-	82	-	25	-62.1	187	-2.6
	대양주소계	18,921	11,733	61.3	1.1	12,256	37.2	1,024	39.3	453	44.3	181	722.7	19	46.2	13,933	39.1	2,831	79.7	1,847	8370.0	265	419.6	45	-42.3	4,988	191.0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1,377	657	109.6	0.1	654	26.3	58	75.8	11	175.0	12	140.0	3	0.0	738	31.1	252	486.0	49	-	332	621.7	6	20.0	639	579.8
	아프리카 기타	4,210	2,514	67.5	0.2	2,960	30.7	82	41.4	43	26.5	4	-75.0	0	-100.0	3,089	30.1	442	590.6	49	1125.0	610	2950.0	20	-60.8	1,121	706.5
	아프리카소계	5,587	3,171	76.2	0.3	3,614	29.9	140	53.8	54	42.1	16	-23.8	3	-40.0	3,827	30.3	694	548.6	98	2350.0	942	1327.3	26	-53.6	1,760	655.4
기타	국 적 미 상	62	38	63.2	0.0	35	66.7	1	-66.7	0	-	0	-	0	-	36	50.0	0	-100.0	3	-	0	-	23	91.7	26	85.7
	기 타 소 계	62	38	63.2	0.0	35	66.7	1	-66.7	0	-	0	-	0	-	36	50.0	0	-100.0	3	-	0	-	23	91.7	26	85.7
교포	교 포	21,917	18,899	16.0	1.3	14,440	11.0	2,670	49.2	3,708	13.2	592	21.8	59	43.9	21,469	15.4	444	50.0	2	-50.0	0	-	2	0.0	448	48.3
	교 포 소 계	21,917	18,899	16.0	1.3	14,440	11.0	2,670	49.2	3,708	13.2	592	21.8	59	43.9	21,469	15.4	444	50.0	2	-50.0	0	-	2	0.0	448	48.3

교통수단별 국적별 입국 (2016년 1월~7월)

※ 2014년 1월부터 제주공항, 제주항구 분류집계

대륙	국적	계				인천공항		김해공항		김포공항		제주공항		기타공항		공항소계		부산항구		인천항구		제주항구		기타항구		항구소계	
		인원 (명)	전년 동기 (명)	성장 률 (%)	구성 비 (%)	인원 (명)	성장 률 (%)	인원 (명)	성장 률 (%)	인원 (명)	성장 률 (%)	인원 (명)	성장 률 (%)	인원 (명)	성장 률 (%)	인원 (명)	성장 률 (%)	인원 (명)	성장 률 (%)	인원 (명)	성장 률 (%)	인원 (명)	성장 률 (%)	인원 (명)	성장 률 (%)	인원 (명)	성장 률 (%)
총 계		9813,342	7,305,345	34.3	100.0	5,694,068	31.1	587,819	35.7	604,672	10.6	810,315	50.9	246,763	22.5	7,913,627	31.0	421,883	99.2	342,315	10.3	849,312	73.4	286,205	13.0	1,899,715	50.2
아시아주	중 국	4,734,275	3,256,682	45.4	48.2	2,231,785	39.7	126,901	36.2	152,229	25.8	720,780	58.0	232,725	23.7	3,464,420	41.1	181,629	420.8	238,986	14.6	645,341	71.5	143,899	11.9	1,269,855	58.6
	일 본	1,226,109	1,006,927	19.4	12.5	641,177	32.9	161,650	32.0	344,891	4.5	13,113	-34.9	1,101	75.0	1,161,932	21.6	57,812	7.9	128	-86.8	5,101	-68.0	1,136	56.9	64,177	-9.9
	대 만	476,924	300,329	58.8	4.9	341,591	53.6	76,544	114.4	30,890	27.4	14,586	115.6	5,416	188.2	469,027	61.2	5,804	21.6	329	-64.7	1,191	-62.3	573	27.9	7,897	-15.2
	홍 콩	371,607	281,545	32.0	3.8	319,498	32.4	32,779	13.9	1,710	11.6	14,006	155.5	139	59.8	368,132	32.8	1,877	9.1	218	-75.2	1,340	-25.5	40	42.9	3,475	-21.5
	필 리 핀	305,983	223,444	36.9	3.1	91,149	18.1	16,099	9.3	624	59.6	1,838	32.5	27	8.0	109,677	17.1	58,438	62.5	14,595	-4.7	71,377	125.0	51,896	10.8	196,306	51.2
	태 국	276,668	230,359	19.7	2.8	224,724	20.4	18,847	138.3	734	39.3	24,693	-16.9	31	-92.9	269,029	19.4	4,080	44.5	441	-33.8	989	63.2	1,129	9.3	6,639	29.4
	인도네시아	161,428	106,406	51.7	1.6	85,657	32.2	7,163	36.0	394	27.6	766	113.4	76	1166.7	94,046	33.0	16,360	115.8	4,203	1.8	33,976	137.8	12,843	32.7	67,382	88.9
	말레이시아	153,817	112,071	37.2	1.6	127,907	34.7	20,218	54.8	737	33.0	870	-23.5	47	6.8	149,779	36.5	1,371	99.0	359	58.1	1,982	65.0	326	70.7	4,038	75.0
	베 트 남	137,079	89,447	53.3	1.4	114,814	66.3	15,438	8.8	202	-18.5	764	-33.4	17	-84.4	131,235	54.9	689	37.1	342	-43.0	2,211	37.3	2,622	30.1	5,844	24.0
	인 도	107,798	72,008	49.7	1.1	34,475	11.9	4,252	16.4	641	7.0	333	50.0	41	-65.5	39,742	12.2	17,403	117.6	4,298	-15.7	38,006	142.8	8,349	6.3	68,056	85.9
	싱 가 포 르	105,579	80,084	31.8	1.1	98,548	31.5	3,052	32.1	1,269	36.5	1,077	10.7	58	70.6	104,004	31.4	634	47.1	579	558.0	275	-8.9	87	1.2	1,575	73.6
	몽 골	44,567	44,102	1.1	0.5	43,555	1.1	386	382.5	159	22.3	369	-51.6	29	262.5	44,508	1.0	7	250.0	11	-42.1	41	105.0	0	-100.0	59	15.7
	미 안 마	39,741	33,828	17.5	0.4	11,603	14.0	3,462	14.4	53	55.9	88	-31.8	9	28.6	15,215	13.8	6,739	9.8	1,180	-24.1	815	320.1	15,792	25.7	24,526	19.9
	우즈베키스탄	39,166	32,021	22.3	0.4	38,088	21.9	1,032	61.5	25	-47.9	8	60.0	1	-97.1	39,154	22.4	1	-95.2	1	0.0	1	-66.7	9	-25.0	12	-67.6
	카자흐스탄	19,800	16,724	18.4	0.2	19,541	18.2	117	77.3	81	-26.4	6	50.0	1	-	19,746	18.2	8	-20.0	0	-	6	-	40	900.0	54	285.7
	캄 보 디 아	19,777	16,775	17.9	0.2	19,101	17.9	580	22.9	40	-32.2	51	88.9	1	-88.9	19,773	17.9	4	300.0	0	-	0	-	0	-100.0	4	100.0
	터 키	15,682	12,876	21.8	0.2	13,458	24.2	253	5.4	176	-11.6	24	166.7	8	-11.1	13,919	23.3	404	21.7	295	60.3	271	76.0	793	-13.3	1,763	11.2
G C C	14,672	13,027	12.6	0.1	13,992	12.5	221	-15.0	241	28.9	39	95.0	118	42.2	14,611	12.5	20	53.8	12	33.3	10	-	19	0.0	61	48.8	
스 리 랑 카	13,850	10,757	28.8	0.1	11,041	29.0	445	-43.6	21	50.0	30	233.3	4	-	11,541	23.2	1,332	117.3	281	14.2	154	202.0	542	13.2	2,309	66.2	
방글라데시	7,631	6,299	21.1	0.1	6,135	30.9	338	-0.6	90	21.6	11	-8.3	6	-50.0	6,580	28.4	202	32.0	29	-67.4	0	-	820	-11.9	1,051	-10.4	
이 스 라 엘	7,317	7,234	1.1	0.1	6,417	3.3	177	12.7	233	-11.7	19	58.3	4	100.0	6,850	3.1	354	-8.5	80	-33.9	29	-63.8	4	100.0	467	-20.8	
파 키 스 탄	7,133	6,079	17.3	0.1	6,219	17.2	310	18.8	295	43.9	43	87.0	14	75.0	6,881	18.5	128	23.1	19	-42.4	1	-	104	-24.1	252	-8.0	
이 란	4,131	2,832	45.9	0.0	3,286	23.3	199	93.2	42	35.5	4	-69.2	1	-80.0	3,532	25.4	339	3390.0	28	-	0	-	232	3766.7	599	3643.8	
아시아 기타	56,524	42,613	32.6	0.6	50,541	30.5	2,856	54.3	224	7.2	1,904	128.6	24	-88.0	55,549	32.9	341	103.0	41	-56.4	524	21.0	69	-36.1	975	21.4	
아시아주 소계	8,346,258	6,024,469	38.5	85.1	4,554,312	36.0	493,259	41.2	535,991	11.2	795,422	51.4	239,898	25.0	6,618,882	35.2	355,956	124.0	326,455	11.8	803,641	73.4	241,324	13.5	1,727,376	53.3	
미주	미 국	503,893	442,557	13.9	5.1	433,723	14.5	19,771	11.1	19,183	15.4	4,871	95.4	5,241	-32.3	482,789	14.0	11,302	19.4	4,105	-8.0	3,841	4.3	1,856	16.8	21,104	9.9
	캐 나 다	96,772	83,913	15.3	1.0	82,282	17.9	4,385	18.8	3,394	-9.4	1,379	80.0	251	80.6	91,691	17.3	2,503	0.9	957	-18.6	1,551	-24.8	70	34.6	5,081	-12.0
	브 라 질	9,985	9,025	10.6	0.1	7,302	2.7	355	-33.6	374	-4.6	89	41.3	19	58.3	8,139	0.3	360	7.8	245	51.2	1,235	197.6	6	-	1,846	102.6
	멕시코	8,738	8,017	9.0	0.1	6,245	-5.4	458	2.9	246	-8.2	42	-8.7	17	-22.7	7,008	-5.1	826	161.4	331	99.4	588	281.2	5	150.0	1,730	173.3
	미 주 기타	21,564	17,029	26.6	0.2	11,922	11.8	785	-21.8	566	13.0	152	87.7	31	72.2	13,456	9.7	2,798	156.5	668	-8.1	4,549	59.4	93	6.9	8,108	70.4
미 주 소 계		640,952	560,551	14.3	6.5	541,474	14.5	25,754	9.7	23,763	10.4	6,533	89.4	5,559	-29.9	603,083	13.9	17,789	30.0	6,306	-5.8	11,744	28.2	2,090	17.3	37,869	21.1

* GCC 6개국(UAE,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바레인)

대륙	국적	계				인천공항		김해공항		김포공항		제주공항		기타공항		공항소계		부산항구		인천항구		제주항구		기타항구		항구소계	
		인원 (명)	전년 동기 (명)	성장 률 (%)	구성 비 (%)	인원 (명)	성장 률 (%)	인원 (명)	성장 률 (%)	인원 (명)	성장 률 (%)	인원 (명)	성장 률 (%)	인원 (명)	성장 률 (%)	인원 (명)	성장 률 (%)	인원 (명)	성장 률 (%)	인원 (명)	성장 률 (%)	인원 (명)	성장 률 (%)	인원 (명)	성장 률 (%)	인원 (명)	성장 률 (%)
구주	러 시 아	132,683	106,992	25.2	1.4	83,293	30.0	12,825	38.7	566	13.4	98	19.5	61	-88.1	96,843	30.2	5,038	21.2	459	-24.5	416	89.1	29,927	12.5	35,840	13.4
	영 국	77,553	71,253	8.8	0.8	56,027	10.2	6,025	0.5	2,676	2.4	878	62.0	97	90.2	65,703	9.4	5,144	22.7	1,012	-65.1	5,244	51.6	450	-29.4	11,850	5.9
	독 일	62,960	54,556	15.4	0.6	53,942	16.9	2,746	6.5	2,771	5.1	383	46.7	113	7.6	59,955	15.9	2,194	23.1	267	-19.1	257	-18.2	287	-27.0	3,005	6.6
	프 랑 스	51,840	47,356	9.5	0.5	42,081	11.2	4,655	17.1	3,258	3.3	366	58.4	91	33.8	50,461	11.5	918	-37.0	66	-78.1	229	-9.5	166	110.1	1,379	-34.1
	이 탈 리 아	34,828	24,232	43.7	0.4	18,485	28.7	1,119	5.5	1,159	6.9	263	152.9	45	25.0	21,071	26.6	2,229	146.6	576	-50.7	10,778	101.7	174	0.6	13,757	81.3
	네 델 란 드	18,563	16,092	15.4	0.2	15,252	14.9	1,289	5.5	909	67.4	88	10.0	20	11.1	17,558	16.0	364	28.6	144	-35.1	231	16.7	266	7.3	1,005	5.7
	우크라이나	17,094	13,914	22.9	0.2	4,053	12.7	600	25.5	53	178.9	102	292.3	3	0.0	4,811	16.7	5,053	15.3	825	-12.7	1,972	255.3	4,433	13.4	12,283	25.4
	스 페 인	12,519	10,778	16.2	0.1	10,164	19.0	658	11.0	587	-18.0	202	117.2	28	27.3	11,639	16.8	240	-11.1	88	-50.0	435	44.3	57	137.5	880	8.2
	노 르 웨 이	10,678	11,459	-6.8	0.1	5,382	-2.8	4,617	-11.6	232	19.0	28	-9.7	7	250.0	10,266	-6.5	180	9.8	58	-25.6	73	-27.7	101	-23.5	412	-13.3
	스 웨 덴	10,197	9,314	9.5	0.1	8,062	9.6	747	7.6	663	11.1	74	21.3	15	275.0	9,561	9.8	169	40.8	173	-8.5	159	23.3	135	-18.7	636	5.3
	루 마 니 아	9,711	7,027	38.2	0.1	2,692	15.2	408	26.3	71	51.1	30	275.0	4	33.3	3,205	18.0	2,711	51.8	367	-6.6	2,444	101.2	984	7.4	6,505	51.0
	폴 란 드	8,465	7,888	7.2	0.1	4,990	12.4	601	-10.8	200	36.1	33	50.0	22	340.0	5,846	10.6	1,187	2.2	279	-11.7	164	12.3	989	0.2	2,619	0.3
	스 위 스	8,254	7,355	12.2	0.1	6,935	14.3	356	-0.6	488	17.6	41	-26.8	7	-58.8	7,827	13.2	271	-7.8	94	1.1	45	15.4	17	13.3	427	-3.2
	핀 란 드	7,234	6,223	16.2	0.1	6,471	16.0	333	14.8	235	25.0	29	123.1	4	-66.7	7,072	16.3	89	34.8	17	-34.6	32	18.5	24	0.0	162	13.3
	덴 마 크	6,569	6,731	-2.4	0.1	4,155	1.5	1,128	-9.1	347	31.4	20	-50.0	8	-11.1	5,658	0.2	659	-12.5	29	-61.3	20	-37.5	203	-9.8	911	-16.0
	오스트리아	6,384	5,349	19.3	0.1	5,497	18.9	344	22.0	261	35.2	30	-21.1	8	-27.3	6,140	19.2	113	5.6	48	118.2	79	29.5	4	-60.0	244	22.0
	벨 기 에	6,268	6,102	2.7	0.1	5,259	11.3	246	13.4	327	14.3	34	17.2	9	800.0	5,875	11.7	144	-68.8	83	-59.7	87	-46.3	79	426.7	393	-53.4
	그 리 스	6,234	5,342	16.7	0.1	2,791	15.1	550	22.8	72	26.3	14	55.6	4	-33.3	3,431	16.5	697	13.5	114	-51.3	890	135.4	1,102	-5.9	2,803	16.9
	포 르 투 갈	6,182	4,608	34.2	0.1	4,446	21.6	383	9.8	107	23.0	167	50.5	6	-45.5	5,119	21.2	402	139.3	101	17.4	527	346.6	33	153.8	1,053	176.1
	불 가 리 아	5,768	3,745	54.0	0.1	1,904	49.3	160	12.7	25	-41.9	25	127.3	3	-96.1	2,117	36.8	1,151	64.4	299	-16.5	1,476	141.6	725	37.3	3,651	66.2
	크로아티아	4,463	3,236	37.9	0.0	1,234	5.7	226	9.2	23	-11.5	11	120.0	4	-42.9	1,498	6.0	1,129	78.4	282	20.5	847	128.9	707	20.6	2,955	62.6
	아 일 란 드	4,401	4,049	8.7	0.0	3,557	8.5	303	3.8	205	1.0	41	86.4	15	87.5	4,122	8.4	120	22.4	58	16.0	56	-11.1	45	28.6	279	13.4
	구주 기타	21,583	18,674	15.6	0.2	14,604	3.7	705	-9.6	280	-5.1	86	56.4	21	-83.2	15,696	2.3	2,487	102.2	460	16.8	2,006	174.0	934	-4.3	5,887	76.7
	구주 소계	530,431	451,265	17.5	5.4	361,276	16.8	41,044	11.9	15,516	8.4	3,043	57.7	595	-46.5	421,474	16.0	32,689	26.8	5,899	-37.3	28,527	91.9	41,842	10.5	108,957	23.9
대양주	오스트레일리아	85,734	75,468	13.6	0.9	63,494	13.0	6,057	24.6	2,801	18.4	878	40.0	153	121.7	73,183	14.4	7,850	-1.3	2,857	66.4	1,590	-1.5	254	13.4	12,551	9.1
	뉴 질 란 드	17,462	15,694	11.3	0.2	14,104	5.1	907	22.9	611	22.7	162	84.1	84	342.1	15,868	7.5	862	74.1	386	160.8	246	17.1	100	22.0	1,594	70.5
	대양주 기타	3,872	3,490	10.9	0.0	2,604	13.7	149	-5.7	33	135.7	24	166.7	4	0.0	2,814	13.7	704	-6.4	1	-	207	10250.0	146	-44.1	1,058	4.2
	대양주소계	107,068	94,652	13.1	1.1	80,202	11.5	7,113	23.6	3,245	19.8	1,064	47.0	241	162.0	91,865	13.1	9,416	2.3	3,244	73.9	2,043	11.9	500	-11.8	15,203	13.0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7,252	5,634	28.7	0.1	4,566	7.3	434	13.6	86	11.7	56	60.0	9	0.0	5,151	8.2	960	150.7	184	44.9	908	167.1	49	96.0	2,101	140.1
	아프리카 기타	24,124	17,765	35.8	0.2	18,354	18.7	550	-7.4	195	-3.9	56	14.3	79	-55.9	19,234	16.6	2,001	165.4	177	96.7	2,422	917.6	290	53.4	4,890	284.7
	아프리카소계	31,376	23,399	34.1	0.3	22,920	16.2	984	0.8	281	0.4	112	33.3	88	-53.2	24,385	14.7	2,961	160.4	361	66.4	3,330	476.1	339	58.4	6,991	225.8
기타	국 적 미 상	426	325	31.1	0.0	236	52.3	8	-33.3	1	-	0	-	0	-	245	46.7	22	29.4	10	150.0	0	-	149	8.8	181	14.6
	기 타 소 계	426	325	31.1	0.0	236	52.3	8	-33.3	1	-	0	-	0	-	245	46.7	22	29.4	10	150.0	0	-	149	8.8	181	14.6
교포	교 포	156,831	150,694	4.1	1.6	103,638	4.6	19,657	15.8	25,875	-0.4	4,141	-22.3	382	101.1	153,693	4.2	3,050	-0.1	40	110.5	27	-	21	-12.5	3,138	1.3
	교 포 소 계	156,831	150,694	4.1	1.6	103,638	4.6	19,657	15.8	25,875	-0.4	4,141	-22.3	382	101.1	153,693	4.2	3,050	-0.1	40	110.5	27	-	21	-12.5	3,138	1.3

성별 출국 (2016년 7월)

월	계			남성		여성		승무원	
	인원 (명)	전년동기 (명)	성장률 (%)	인원 (명)	성장률 (%)	인원 (명)	성장률 (%)	인원 (명)	성장률 (%)
총계	12,716,137	10,820,438	17.5	6,058,885	15.5	5,764,782	20.8	892,470	10.7
1월	2,112,337	1,834,538	15.1	1,013,132	12.7	967,197	18.5	132,008	10.6
2월	1,876,928	1,445,609	29.8	882,275	27.6	870,664	34.6	123,989	15.5
3월	1,569,162	1,416,683	10.8	750,828	7.6	693,860	15.0	124,474	8.2
4월	1,636,597	1,495,460	9.4	779,018	8.2	735,908	11.7	121,671	4.6
5월	1,656,728	1,579,265	4.9	798,294	5.1	729,596	5.0	128,838	3.3
6월	1,778,317	1,373,551	29.5	847,057	26.9	805,084	35.5	126,176	12.3
7월	2,086,068	1,675,332	24.5	988,281	22.2	962,473	27.4	135,314	21.9
8월	-	-	-	-	-	-	-	-	-
9월	-	-	-	-	-	-	-	-	-
10월	-	-	-	-	-	-	-	-	-
11월	-	-	-	-	-	-	-	-	-
12월	-	-	-	-	-	-	-	-	-

연령별 출국 (2016년 7월)

[illegible]

교통수단별 출국 (2016년 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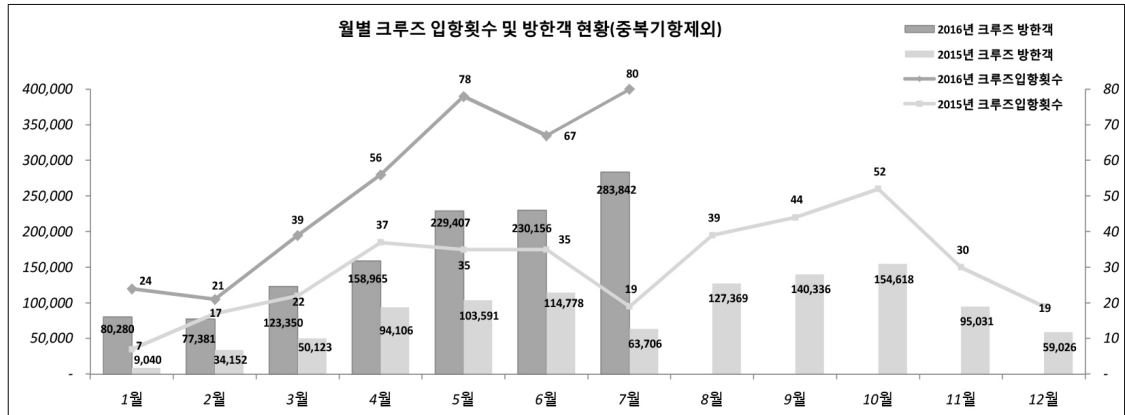
[illegible][illegible]

Ⅲ. 크루즈 통계(2016.7월)

1. 입국 기준 크루즈 방한객 통계

* 한국관광통계 외래객 입국 기준에 맞춘 통계로, 중복기항은 제외(크루즈선의 한국 도착 기준)하고 선원이 포함된 수치임

1) 월별 크루즈 방한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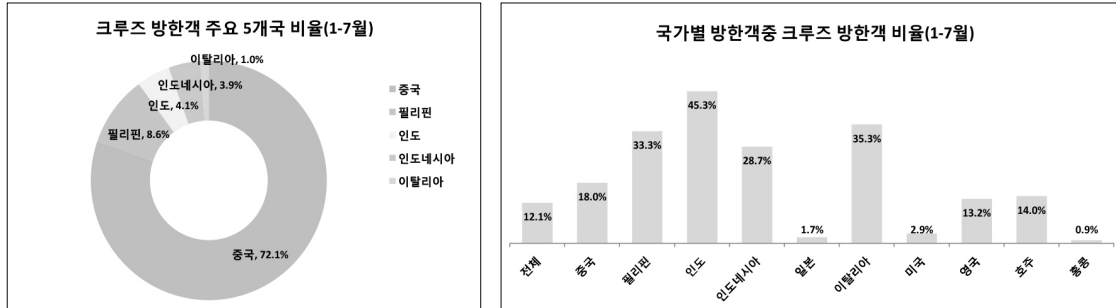


(단위 : 회, 명)

구분	입항횟수		크루즈방한객								
	2016	2015	계			승객			선원		
	2016	2015	2016	2015	성장률	2016	2015	성장률	2016	2015	성장률
합계	365	172	1,183,381	469,496	152.1%	860,762	335,538	156.5%	322,619	133,958	140.8%
1월	24	7	80,280	9,040	788.1%	58,489	6,178	846.7%	21,791	2,862	661.4%
2월	21	17	77,381	34,152	126.6%	56,366	23,854	136.3%	21,015	10,298	104.1%
3월	39	22	123,350	50,123	146.1%	89,695	35,976	149.3%	33,655	14,147	137.9%
4월	56	37	158,965	94,106	68.9%	114,590	67,400	70.0%	44,375	26,706	66.2%
5월	78	35	229,407	103,591	121.5%	165,621	74,119	123.5%	63,786	29,472	116.4%
6월	67	35	230,156	114,778	100.5%	167,995	81,293	106.7%	62,161	33,485	85.6%
7월	80	19	283,842	63,706	345.5%	208,006	46,718	345.2%	75,836	16,988	346.4%
8월	-	39	-	127,369	-	-	93,481	-	-	33,888	-
9월	-	44	-	140,336	-	-	101,362	-	-	38,974	-
10월	-	52	-	154,618	-	-	109,253	-	-	45,365	-
11월	-	30	-	95,031	-	-	67,010	-	-	28,021	-
12월	-	19	-	59,026	-	-	42,303	-	-	16,723	-

2) 월별 주요국 크루즈 방한객 통계

* 주요국 선정 기준은 2015년 크루즈 방한객 상위 10개국임



(단위 : 명)

국가	2016년 1~7월 방한객수	크루즈 방한객의 비율	크루즈방한객						
			계	구성비	1월	2월	3월	4월	5월
전 체	9,813,342	12.1%	1,183,381	100.0%	80,280	77,381	123,350	158,965	229,407
중 국	4,734,275	18.0%	853,065	72.1%	61,545	58,936	85,785	107,044	160,766
필 리 핀	305,983	33.3%	101,926	8.6%	6,423	6,551	11,033	14,075	19,885
인 도	107,798	45.3%	48,782	4.1%	3,174	3,414	5,739	6,275	9,962
인도네시아	161,428	28.7%	46,368	3.9%	3,438	3,290	4,720	7,264	9,340
일 본	1,226,109	1.7%	21,150	1.8%	57	17	246	4,322	9,720
이 탈 리 아	34,828	35.3%	12,297	1.0%	803	852	1,289	1,458	2,955
미 국	503,893	2.9%	14,829	1.3%	435	724	1,491	4,666	2,571
영 국	77,553	13.2%	10,247	0.9%	358	438	3,060	1,981	1,482
호 주	85,734	14.0%	12,024	1.0%	363	151	2,716	2,199	1,446
홍 콩	371,607	0.9%	3,192	0.3%	385	197	743	250	743

국가	2016년 1~7월 방한객수	크루즈 방한객의 비율	크루즈방한객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 체	9,813,342	12.1%	230,156	283,842	-	-	-	-	-
중 국	4,734,275	18.0%	169,844	209,145	-	-	-	-	-
필 리 핀	305,983	33.3%	19,830	24,129	-	-	-	-	-
인 도	107,798	45.3%	9,481	10,737	-	-	-	-	-
인도네시아	161,428	28.7%	8,479	9,837	-	-	-	-	-
일 본	1,226,109	1.7%	2,160	4,628	-	-	-	-	-
이 탈 리 아	34,828	35.3%	2,314	2,626	-	-	-	-	-
미 국	503,893	2.9%	2,783	2,159	-	-	-	-	-
영 국	77,553	13.2%	1,253	1,675	-	-	-	-	-
호 주	85,734	14.0%	1,122	4,027	-	-	-	-	-
홍 콩	371,607	0.9%	344	530	-	-	-	-	-

3) 주요국 승객·선원별 크루즈 방한객 통계

* 주요국 선정 기준은 2015년 크루즈 방한객 상위 10개국임

(단위 : 명)

국가	7월								
	전체			승객			선원		
	2016	2015	성장률	2016	2015	성장률	2016	2015	성장률
전 체	283,842	63,706	345.5%	208,006	46,718	345.2%	75,836	16,988	346.4%
중 국	209,145	44,191	373.3%	193,558	40,922	373.0%	15,587	3,269	376.8%
필 리 핀	24,129	5,803	315.8%	141	31	354.8%	23,988	5,772	315.6%
인 도	10,737	2,548	321.4%	28	5	460.0%	10,709	2,543	321.1%
인도네시아	9,837	2,220	343.1%	118	4	2850.0%	9,719	2,216	338.6%
일 본	4,628	3,486	32.8%	4,346	3,296	31.9%	282	190	48.4%
이 탈 리 아	2,626	853	207.9%	102	67	52.2%	2,524	786	221.1%
미 국	2,159	830	160.1%	1,567	759	106.5%	592	71	733.8%
영 국	1,675	401	317.7%	429	139	208.6%	1,246	262	375.6%
호 주	4,027	702	473.6%	3,864	684	464.9%	163	18	805.6%
홍 콩	530	126	320.6%	520	123	322.8%	10	3	233.3%

국가	1-7월								
	전체			승객			선원		
	2016	2015	성장률	2016	2015	성장률	2016	2015	성장률
전 체	1,183,381	469,496	152.1%	860,762	335,538	156.5%	322,619	133,958	140.8%
중 국	853,065	305,021	179.7%	788,086	274,841	186.7%	64,979	30,180	115.3%
필 리 핀	101,926	42,677	138.8%	1,700	1,568	8.4%	100,226	41,109	143.8%
인 도	48,782	19,117	155.2%	323	83	289.2%	48,459	19,034	154.6%
인도네시아	46,368	17,746	161.3%	556	110	405.5%	45,812	17,636	159.8%
일 본	21,150	24,484	-13.6%	20,110	23,678	-15.1%	1,040	806	29.0%
이 탈 리 아	12,297	5,835	110.7%	409	1,582	-74.1%	11,888	4,253	179.5%
미 국	14,829	9,248	60.3%	12,164	7,513	61.9%	2,665	1,735	53.6%
영 국	10,247	5,643	81.6%	5,276	3,527	49.6%	4,971	2,116	134.9%
호 주	12,024	6,349	89.4%	11,324	6,148	84.2%	700	201	248.3%
홍 콩	3,192	5,000	-36.2%	3,161	4,928	-35.9%	31	72	-56.9%

4) 주요국 기항지별 크루즈 방한객 통계

* 주요국 선정 기준은 2015년 크루즈 방한객 상위 10개국임

(단위 : 명)

국가	7월														
	전체			인천항			부산항			제주항			기타항		
	2016	2015	성장률	2016	2015	성장률	2016	2015	성장률	2016	2015	성장률	2016	2015	성장률
전 체	283,842	63,706	345.5%	19,132	975	1862.3%	79,768	7,486	965.6%	184,942	55,245	234.8%	-	-	-
중 국	203,145	44,191	373.3%	12,902	971	1228.7%	50,106	38	13175.9%	146,137	43,182	238.4%	-	-	-
필 리 핀	24,129	5,803	315.8%	1,829	-	-	8,300	1,026	709.0%	14,000	4,777	193.1%	-	-	-
인 도	10,737	2,548	321.4%	592	-	-	2,690	178	1411.2%	7,455	2,370	214.6%	-	-	-
인도네시아	9,837	2,220	343.1%	583	-	-	2,570	300	756.7%	6,684	1,920	248.1%	-	-	-
일 본	4,628	3,486	32.8%	17	-	-	4,567	3,456	32.1%	44	30	46.7%	-	-	-
이 탈 리 아	2,626	853	207.9%	84	-	-	453	67	576.1%	2,089	786	165.8%	-	-	-
미 국	2,159	830	160.1%	139	-	-	1,444	692	108.7%	576	138	317.4%	-	-	-
영 국	1,675	401	317.7%	170	-	-	845	204	314.2%	660	197	235.0%	-	-	-
호 주	4,027	702	473.6%	1,575	-	-	2,331	676	244.8%	121	26	365.4%	-	-	-
홍 콩	530	126	320.6%	41	2	1950.0%	216	32	575.0%	273	92	196.7%	-	-	-

국가	1-7월														
	전체			인천항			부산항			제주항			기타항		
	2016	2015	성장률	2016	2015	성장률	2016	2015	성장률	2016	2015	성장률	2016	2015	성장률
전 체	1,183,381	469,496	152.1%	67,261	33,575	100.3%	272,591	59,406	358.9%	837,900	375,806	123.0%	5,629	709	693.9%
중 국	853,065	305,021	179.7%	42,888	18,953	126.3%	164,614	8,905	1748.6%	643,499	277,163	132.2%	2,064	-	-
필 리 핀	101,926	42,677	138.8%	5,696	2,764	106.1%	28,520	9,123	212.6%	66,653	30,547	118.2%	1,057	243	335.0%
인 도	48,782	19,117	155.2%	1,953	1,526	28.0%	9,844	2,391	311.7%	36,747	15,192	141.9%	238	8	2875.0%
인도네시아	46,368	17,746	161.3%	2,453	1,138	115.6%	10,364	2,803	269.7%	33,211	13,805	140.6%	340	-	-
일 본	21,150	24,484	-13.6%	61	694	-91.2%	15,563	12,500	24.5%	5,060	11,281	-55.2%	476	9	5188.9%
이 탈 리 아	12,297	5,835	110.7%	200	548	-63.5%	1,499	987	51.9%	10,519	4,279	145.8%	79	21	276.2%
미 국	14,829	9,248	60.3%	3,869	2,173	78.0%	6,815	3,908	74.4%	3,726	3,061	21.7%	419	106	295.3%
영 국	10,247	5,643	81.6%	888	1,298	-31.6%	4,189	2,465	69.9%	4,944	1,714	188.4%	226	166	36.1%
호 주	12,024	6,349	89.4%	2,828	872	224.3%	7,429	4,386	69.4%	1,563	989	58.0%	204	102	100.0%
홍 콩	3,192	5,000	-36.2%	172	252	-31.7%	1,688	3,528	-52.2%	1,326	1,220	8.7%	6	-	-

관광시장 동향 (8월)

발 행 일 : 2016년 8월

발 행 처 : 한국관광공사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10

담당부서 : 관광시장조사팀(☎033-738-3723)

인 쇄 : 웃고문화사(☎033-748-6577)

〈비매품〉

